

# 2021 국별 진출전략

## 인도네시아

-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 CONTENTS

kotra 2021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b>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b>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1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4
나. 내수산업 육성·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GVC 재편 추진	5
다. 연기되었던 수도이전·인프라 구축 사업 재개	7
라. 디지털 경제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근간 마련	8
<b>II. 비즈니스 환경 분석</b>	9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2. 시장 분석	23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3
나. 교역	28
다. 투자 진출	33
라. 프로젝트	35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43
가. 교역	43
나. 투자 진출	44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49
<b>III. 진출전략</b>	53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53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57
3. 한-인니 경험을 통한 진출전략	65
<b>첨 부</b>	
1. 수출유망품목(상품)	72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75
3. 2021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77
4. 2021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78
<b>부 록</b>	
대(對) 인도네시아 K패키지	79



#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1. 개요

### 가. 시장 전망

□ 코로나19 이후 각 국의 경기 회복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 부양책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등(상승)할 것으로 예상

- (대외 환경 요인) 주요 교역국인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전 세계의 경기 회복 상황은 2021년 인도네시아의 대외 정치·통상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
- (대내 환경 요인) ① 잠정 연기된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의 재개, ② 정부의 투자유치·내수 활성화 정책, ③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2021년 경제 반등 예상
  -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정부의 중기발전계획(RPJMN 2020~2024)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 국가간 인적 교류가 재개되면 관광업의 회복 전망

###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f	2021년f
인구	백만 명	253.3	255.8	258.2	262.0	262.9	265.3	267.5	269.8
명목 GDP	십억 달러	890.5	861.1	932.1	1,011.0	1,042.1	1,119.1	1,080.6	1,148.5
1인당 명목GDP	달러	3,515.6	3,366.3	3,610.0	3,859.0	3,894.0	4,282.2	4,039.6	4,256.9
경제 실질성장률	%	5.0	4.9	5.0	5.1	5.2	5.0	-2.2	4.3
실업률	%	5.9	6.2	5.6	5.5	5.3	5.3	7.5	6.9
소비자물가상승률	%	8.3	3.3	3.1	3.7	3.2	2.6	1.9	3.2
재정수지(GDP대비)	%	-2.1	-2.6	-2.5	-2.5	-1.8	-1.6	-7.1	-6.0
총수출	백만 달러	175,980	150,366	134,604	168,828	180,013	167,683	146,409	156,348
(대한(對韓) 수출)	"	12,266	8,850	8,285	9,571	11,161	8,820	7,666	8,186
총수입	"	178,179	142,695	125,186	156,986	188,711	171,276	122,514	141,441
(대한(對韓) 수입)	"	11,361	7,872	6,609	8,404	8,833	7,650	5,682	6,560
무역수지	백만 달러	-2,199	7,671	9,418	11,842	-8,698	-3,593	23,894	14,908
경상수지	"	-27,510	-17,520	-16,952	-16,195	-30,632	-30,375	-12,007	-26,875
환율(연평균)	루피아/US\$	12,440	13,795	13,436	13,548	14,481	14,249	14,827	14,886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70.8	59.3	-122.2	20.77	80.53	33.8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85.3	292.7	289.6	322.4	293.1	282.1	279	n/a

주: 2020년은 추정치(EIU), 2021년은 전망치 기입(EIU), 대한수출입은 EIU 전체 수출입 증감율을 반영해 산출  
자료: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 BKPM(인니 투자조정청), BPS(인니 통계청)

## 2. 2021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 기존 인프라·내수산업 육성 정책 중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
- 내수산업 육성·투자 유치를 통한 역내 GVC 재편 대응
- 연기되었던 수도이전·지역균형발전·인프라 구축 사업 재개
- 디지털 경제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근간 마련

### 가.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심화

- 3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급격한 확진자 발생으로 10월 기준 전 세계 상위 20개국 중 하나  
\* 첫 확진자 발생(3.2) → 1만 명(4.30) → 10만 명(7.6) → 20만 명(8.26) → 30만 명(10.13)  
\* 코로나19로 인한 의사 사망 수 9월 기준 100명 초과(인도네시아 의사협회)
- 코로나19로 인한 인도네시아 주요 교역국 경기 침체 및 사회적 제약 정책으로 내수 소비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2.2%)
- 정부에서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 정책(PSBB\*) 및 비자 발급 제한, 코로나 방역물품 수출 임시 제한, 취약 산업 및 계층 지원책 등을 통해 확산에 따른 사회혼란 최소화 노력

#### 대규모 사회적 제약 정책(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PSBB)

- 정의: 필수 분야 제외 재택근무, 종교시설 포함 다중밀집시설 운영 중지, 지역별 이동 제한 등
- 근거: Government Regulation No. 21/2020
- 시행현황: PSBB(4.6~6.4) → PSBB 완화(6.5~9.13) → PSBB(9.14~10.11) → PSBB 완화(10.12~23)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 695조 루피아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 편성, 기존 사업 예산 일부를 사회 안전망 확충 및 보건 분야에 긴급 투입해 사회 혼란 최소화 노력
  - 4월과 7월, 2차례 국가 예산 수정(ABPN)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함
  - 주요 타격이 예상되는 19개 주요 업종 대상 세제(소득세, 선납법인세 등) 감면 혜택
  - 중소기업 채무자 지원을 위한 대출평가 일부 완화, 실직·구직자 대상 사전근로카드 지급 등 사회 보장 정책 실시 중
-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옵니버스법) 10월 5일 국회 통과

#### □ 2021년도 뉴 노멀 시대에 따른 경기 활성화 중점 정책 기조

-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 정책으로 기존 3%대를 유지하던 정부 재정 적자가 내년에는 5.5%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보건, 에너지, 자원, 관광, 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약 75조 루피아(5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 중(2020년 10월)
- 조코위 2기 정권에서도 1기 정부의 국책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며, 남은 재임기간 동안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안정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력 신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변수로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었지만, 이번 정부는 조코위의 마지막 임기로 1기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수립 및 이행 예상

## 나. 내수산업 육성·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GVC 재편 추진

### □ ASEAN 역내 GVC(Global Value Chain) 재편 추진

- 인도네시아의 ASEAN GVC 참여도는 41%로 말레이시아(65%), 베트남(78%) 등 ASEAN 경쟁국 대비 부진
  - 최근 17년 간 인도네시아는 전방 연계 GVC 참여도가 70% 정도로 후방 연계에 비해 높음 (2000년~2017년)
  -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GVC 연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천연 자원 기반 산업 및 에너지 산업으로 GVC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
- 탈 중국 기업 대상 ASEAN 경쟁국 대비 투자유치 부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유치 정책 수립 중
  - 탈 중국 기업은 33개 사로 파악되지만 인도네시아에 GVC 연계 투자를 고려한 기업은 1개사 미만으로 ASEAN 경쟁국인 태국(3개사), 베트남(10개사) 대비 적은 수치(2019년)
  - 복잡한 규제, 낙후된 물류, 경직된 노동 시장 등이 주요 원인
  - 조코위 대통령은 탈 중국 기업 투자유치 부진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문(2019년)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투자 유치 경쟁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반등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유치 정책 수립 중
  - 투자조정청 중심의 특별 투자이전 태스크 포스 구성을 통해 기업 유치활동 수행
  -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인·허가 간소화, 인프라(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조성
    - \* 농업, 플랜테이션, 임업,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가공산업 등의 신규 분야를 포함, 18개의 선도 산업 분야에 다양한 조세감면혜택(Tax Holiday)을 확대, 투자 유망구역 5곳 선정 등
  -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국회 통과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 투자유치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 고려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2020년 7개사(8억 5천만 달러)가 인도네시아에 투자 계획을 확정했고 17개사 와는 투자를 협의 중이라고 밝힘

## 〈2020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 유치건〉

기업명/주요제품	기존 소재국	이전 사유
PT Meiloon Technology Indonesia (스피커)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지: 수방(서부 자바)</li> <li>○ 투자금액: 90백만 달러</li> <li>○ 목적: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거점</li> <li>○ 진행상황: 공장 건설 시작(2020년 2Q)</li> <li>○ 기타: 대만, 수저우, 광둥지역에 있는 공장 중 수저우 지역 공장이 이전</li> </ul>
PT Segami Indonesia (전자기기 부품)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지: 바탕 산업단지(중부 자바)</li> <li>○ 투자금액: 50백만 달러</li> <li>○ 목적: 인건비, 공장 운영비 절감</li> <li>○ 진행상황: 공장 건설 예정(2020년 2Q)</li> </ul>
PT CDS Indonesia(Alpan) (태양광 전등)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지: 워자야 쿠수마 산업단지(자카르타)</li> <li>○ 투자금액: 14백만 달러</li> <li>○ 목적: 주 수출국인 미국 대상 관세 절감(중국 수출 시 25%, 인니 수출 시 0%)</li> <li>○ 진행상황: 공장 건설 시작(2020년 2Q)</li> </ul>
PT Kenda Rubber Indonesia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자동차 타이어 제조)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지: 세랑(반트)</li> <li>○ 투자금액: 미발표</li> <li>○ 목적: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 공략</li> <li>○ 진행상황: 투자 인센티브 협상 중</li> </ul>
PT Denso Indonesia (자동차 부품)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지: 중부자바</li> <li>○ 투자금액: 미발표</li> <li>○ 목적: 인도네시아 이전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적 거점)</li> <li>○ 진행상황: 투자여부 조율 중</li> </ul>
PT Panasonic Indonesia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지: 중부자바</li> <li>○ 투자금액: 미발표</li> <li>○ 목적: 수출목적 가전제품 생산</li> <li>○ 진행상황: 투자여부 조율 중</li> </ul>
PT LG Electronics Indonesia(LG전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지: 중부자바</li> <li>○ 투자금액: 미발표</li> <li>○ 목적: ASEAN과 호주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li> <li>○ 진행상황: 투자여부 조율 중</li> </ul>
PT Sejin Fashion Indonesia(파크랜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지: 파티(중부자바)</li> <li>○ 투자금액: 35백만 달러</li> <li>○ 목적: 원가 절감, 인도네시아 이전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li> <li>○ 진행상황: 행정 절차 진행 중</li> </ul>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2020년 8월)

### ○ 자유무역협정 타결 및 체결 확대를 통한 GVC 재편 전략

-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 도모,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기존 시장과의 교역·투자 확대 및 중동·아프리카 신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 관계 수립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10월 한국과의 CEPA 실질 타결, 2020년 2월 호주와의 CEPA 협정 비준 승인

\* 인도를 제외한 14개국이 참여 중인 RCEP 협상도 2020년 연말 타결 전망

- 조코위 2기 정부는 지난 5년 간의 보호주의에 가까웠던 현 정권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과 직접투자를 증대하는 정책 지속 예정

####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을 통한 첨단 제조 산업 육성

-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바이오 산업, 하드웨어 자동화 등의 주요 혁신을 계획하고 있으며,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5대 주력 산업은 식음료, 자동차, 섬유 봉제, 전자, 화학임
-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약, 바이오 분야가 추가되어 총 7대 주력 산업에 대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
- 정부는 7대 주력산업 성장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수입 비중을 2022년까지 35%로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다. 연기되었던 수도이전·인프라 구축 사업 재개

#### □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된 수도 이전 프로젝트 재개

- 정부는 정부 정책 우선순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바뀌면서 수도 이전 사업이 순연되었으나 올해 연말에는 다시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신수도는 인도네시아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할 것이며,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와 달리 동부 깔리만탄에서의 새로운 수도는 심미적인 기능을 가미한 그린, 스마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
-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는 150만 명\*의 주민이 신규로 거주 예정
  - \* 입법, 행정, 사법부 소속 20만 명의 공무원과 2만 5천 명의 군·경찰 병력(TNI-Polri)이 신수도로 이전하게 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이전 가능한 사업가 수는 3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
- 신수도에 배치될 각종 기관은 대통령궁 및 정부 부처, 입법부(의회), 사법부(대법원, 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 경찰청, 인도네시아 군대, 중앙은행 및 메이저 은행, 각 국가의 대사관,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등임
- 신수도 건설 사업 추진과 동시에 전국 각 지에 최소 10개 이상의 ‘광역도시(메트로폴리탄 설립)’을 통해 ‘자바(Jawa)섬으로의 지나친 경제 집중현상(전 인도네시아의 58%)’ 및 ‘지역 불균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

#### □ 인도네시아 중기발전계획(RPJMN) 따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요

-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중기발전계획(RPJMN 2020~2024)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도 인프라 분야에 올해 대비 47% 증가한 약 414조 루피아(270억 달러)를 배정
-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많은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추후 입찰에 들어갈 예정임으로 지속적인 정보 확인 필요

## 라. 디지털 경제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근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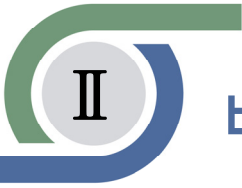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 지불결제시스템 2025 비전 선포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전자화폐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정부의 현금 사용 최소화 정책\*, 유통 소매점포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언택트 결제를 권장
    -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를 전자화폐로 지원
- 2019년 5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빠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총재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 2025 비전(Indonesia Payment System 2025 Vision, SPI 2025)을 선포했음
- 2025년까지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비전이 포함하는 총 5가지의 세부 비전을 실현해나갈 예정
- SPI 2025는 ①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 오픈 बैं킹 구축, ②소매 결제 시스템 개발, ③도매 결제 및 금융 시장 인프라 구축, ④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국가 데이터 개발, ⑤결제 관련 규제, 관리 감독, 인허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비전으로 구성됨

### □ 디지털 경제 산업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조코위 2기 정부는 재임기간(2019~2024년)동안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
- 디지털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사방(Sabang)에서 머라우케(Merauke) 지역까지 이어지는 빨라빠 링(Palapa Ring) 프로젝트의 완성,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경제 인력 육성 등이 있음
- 도시 기획·산업현장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도입되기 시작했고 핀테크 수요는 증가하나 관련 분야 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조코위 2기 정권에서는 IoT 산업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경제 회복, 내수 진작 및 지역균형개발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전망

- (정치) 조코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국가 통합 정치를 지향하며 국제 관계의 다변화 추구
- (경제) 코로나19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예상, 경기회복에 중점
- (산업)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가 및 역내 GVC 재편 추진
- (정책) 국가 중장기 개발계획에 입각한 세부 정책 수립·이행 예상, 투자유치 활성화

### 가. 정치 환경

#### □ 2020년 코로나19가 정치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는 조코위 2기 정부 정책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의 대규모 사회적 제약 정책(PSBB) 시행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조코위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음
  -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64.7%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매우 불만족 하다는 답변은 4.6%에 불과
  - \* 현지 일간지 'The Jakarta Post'에서 80개 도시의 529명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10월)
- 급격한 변수가 없는 한 조코위 2기 정부는 재임기간(2019~2024년) 동안 문제없이 국정 수행 완수할 것으로 전망

#### □ 2021년 국내 정치 환경 전망

- 인도네시아의 정치구조는 기본적으로 연정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조코위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인 골카르당(Golkar)과 민주당(PDI-P)을 포함한 10여개 정당의 지지를 확보했기에 2기 정부 국정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조코위 2기 부통령인 마루프 아민은 이슬람 성직자이자 인도네시아 올라마 협의회(MUI) 의장 출신으로 이슬람교가 정치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증가
- 이에 따른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온건 이슬람 교파와 강경 이슬람 교파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들 세력의 과격한 활동을 통제할 것
- 대선 결과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한 지역만큼 프라보워 총재를 지지한 지역 수도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있을 것

-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옴니버스법)에 대한 노동·환경단체와 인권·종교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는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2020년 10월)
  - 옴니버스법 반대측은 개정안 취소 및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돌입하며 대규모 시위, 파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
  - 국회 통과 이후 법안 세부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혼란 가중

## □ 2021년 국제 정치 환경 전망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인 외교부·국영기업부 장관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 방문을 통해 공동 대응체계 구축 추진 중
  - 인도네시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시노백과 백신 3상 진행 중이며 약 2억 9천만 회 용량 확보, 인도네시아 식약처 인증을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중국 시노백 공장 실사 출장(2020년 10월)
  - 아랍에미리트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각각 3천만 회,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2020년 10월)
- 코로나19 공동 대응으로 한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 형성 전망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과 한국 정부에서는 마스크·손세정제·방호복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
  - 조코위 대통령은 4월 정상 간 통화에서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
  - 이 밖에도 한국의 제넥신은 인도네시아 현지 제약사인 Kalbe Farma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 2단계 임상시험을 진행 예정
- GVC 재편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은 지속적 확대 예상
  - 최근 취임한 일본의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순방으로 10월 18일부터 나흘 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 이를 통해 코로나19 공동 협력과 일본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해 논의 예정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과 투자조정청장은 서울을 방문해 백신에 더해 개인 보호 장비와 같은 방역 분야 협력 및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 성사(2020년 9월)

## 나. 경제 환경

### □ 인도네시아 2020년 경제 동향 및 2021년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주요 교역국들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역 수요 감소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제약 정책으로 내수가 동반 침체되면서 1998년 경제위기 이래로 20여 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기록 전망
- 코로나19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각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

- 코로나19 이후 인도네시아는 인도, 미국,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16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당했고 인정되는 경우 약 19억 달러의 외화손실이 예상됨
  - \* 섬유(4건), 화학제품(4건), 철강제품(3건), 목제품(2건), 자동차 부품(1건), 전자제품(1건)
  - \* 16건 중 10건은 반덤핑, 6건은 거래 파트너 국가의 세이프가드 조사
- o 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방역 시스템의 개선으로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 증가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o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인도네시아의 2020년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로 예상하지만 2021년에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주요 기관별 2020~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 분류 전망	기관명	국제기구			경제연구소	인니 정부
		IMF	World Bank	ADB	EIU	재무부
	2020년	-0.3	-2.0~-1.6	-1.0	-2.2	-1.7~-0.6
	2021년	6.1	3.0~4.4	5.3	4.3	4.5~5.5

자료: 각 기관별 전망치(2020년 10월)

- o **(환율)**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3월 달러 당 16,000루피아까지 하락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통화스왑, 국채매입 등)을 통해 10월 기준 달러 당 14,800루피아 대를 지속적으로 유지
- o **(기준금리)** 2020년 1월 5%를 유지하던 기준 금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4월 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 10월 기준 4% 대 기록
  - \* 5%(1월~3월) → 4.5%(4월~6월) → 4.25%(6월~7월) → 4%(7월)
- o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월 물가 상승률은 2000년 5월의 1.54% 이후 가장 낮은 1.32%를 기록, 이후 다음 달인 9월에는 예상치인 1.4%보다 소폭 증가한 1.42%를 기록

□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 o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주요 경제지표는 2019년 대비 부진, 이는 경제 주체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뜻함
- o 6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의 사회적 제약 정책 완화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로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정책 완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9월부 사회적 제약 원인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하락 예상

〈2020년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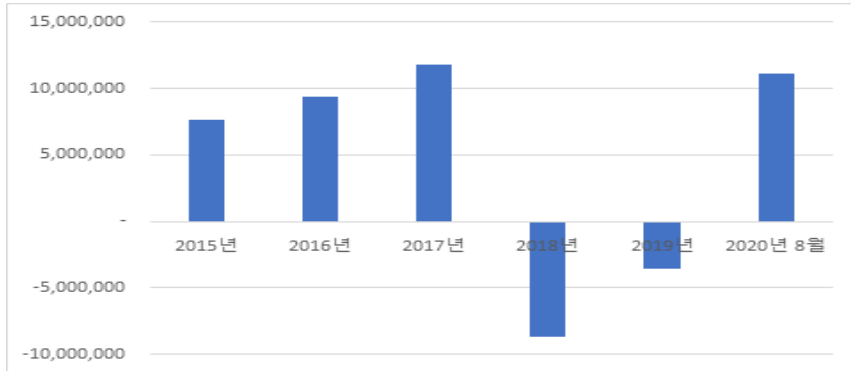
구분	월	단위	2019년	2020년 1월	2020년 3월	2020년 6월	2020년 9월
제조구매관리자지수(PMI)		point	50.1	49.3	45.3	39.1	47.2
소비자동향지수		확산지수(%)	124.3	121.7	113.8	86.9	83.4
소매판매		2010년=100	228.2	217.5	219.9	193.6	196.8
소비자물가		%	3.03	2.68	2.96	1.96	1.42
고정자산투자		%	4.45	1.7	1.7	-2.74	-8.5%~-6.6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EIU 등

-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중간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도네시아의 수출 증가가 제한적이며 이는 2018년과 2019년의 무역 적자를 야기
- 하지만 2020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로 수입 물량이 수출 물량보다 더욱 감소하여 올해 다시 무역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 2020년 8월 기준 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 동 기간 대비 6% 감소한 1,031만 달러 규모이지만 수입은 18% 감소한 921만 달러 규모를 기록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동향〉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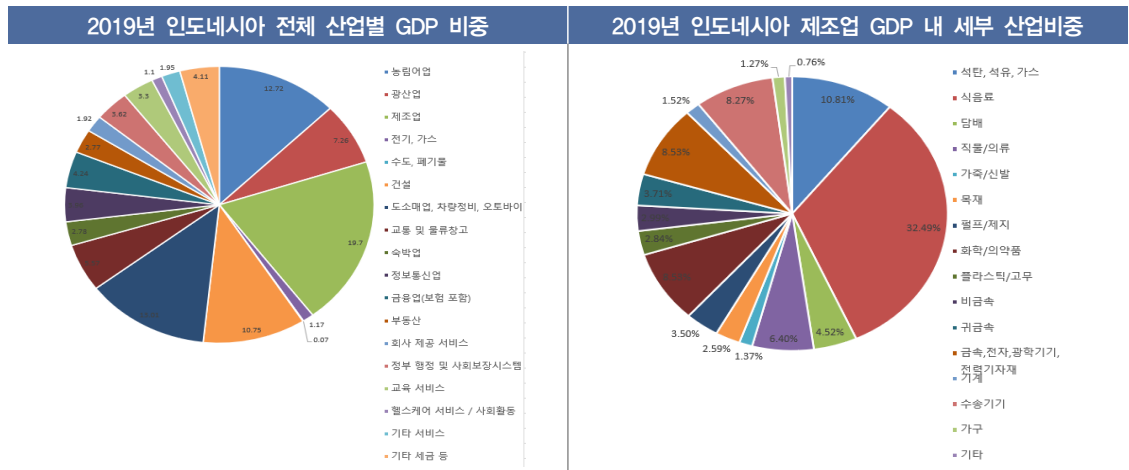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 다. 산업 환경

### □ 인도네시아 산업 성장률 및 최신 동향

- 인도네시아의 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2019년 기준, 전체 GDP의 19.7%를 차지하며, 농림어업 분야가 12.7%, 건설 분야가 10.75%, 광산업이 7.26%, 금융업(보험 포함)이 4.24%를 차지

〈2019년 인도네시아 산업별 GDP 비중〉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BPS, 2020년 10월)

- 2019년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식음료 분야(32.49%)이며, 그 다음으로 석탄·석유·가스 분야(10.81%), 수송기기(8.27%), 금속·전자·광학기기·전력기자재(8.53%) 순서로 차지 비중이 높음
- 제조업에서 섬유·봉제 산업의 경우 다년간 임금상승, 설비 노후화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2018년보다 비중이 작아짐
-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제약 정책으로 2020년 2분기 기준 관광과 연관된 교통 및 물류창고(-13.72%), 숙박업(-0.83%)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부진
-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경기 침체로 인도네시아의 주력 수출 품목인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광산업(-18.71%) 분야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대부분의 분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2분기 주요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주요 산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림어업	3.8	3.9	3.9	2.2	1.1~1.3
광산업	-3.4	0.7	2.2	-5.3	-1.0~-0.5
제조업	4.3	4.3	4.3	2.0	-2.4~0.5
전기, 가스	0.9	1.5	5.5	-0.7	-0.1~0.7
수도, 폐기물	7.1	4.6	5.5	0.3	4.6~4.8
건설	5.2	6.8	6.1	3.0	-0.9~0.3
도매업, 차량정비, 오토바이	2.5	4.5	5.0	2.0	-3.3~1.0
교통 및 물류창고	6.7	8.5	7.0	3.9	-15.4~-12.7
숙박업	4.3	5.4	5.7	0.8	-12.7~-7.3
정보통신업	9.7	9.6	7.0	2.4	10.7~11.2
금융업(보험포함)	8.6	5.5	4.2	2.2	4.3~4.7
부동산	4.1	3.7	3.6	2.3	3.0~3.2
회사 서비스	7.7	8.4	8.6	3.3	-1.4~0.3
정부 행정 및 사회보장시스템	4.6	2.1	7.0	0.9	1.0~1.5
교육 서비스	7.3	3.7	5.4	2.1	3.0~3.6
헬스케어서비스/사회활동	6.7	6.8	7.1	1.8	5.8~6.4
기타 서비스	8.1	8.7	9.0	4.0	-3.0~-0.2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2020.8),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개황 및 환경

- **(인도네시아 산업 개황)**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으로 국가 성장을 이뤘으며 아세안 시장에서 서비스산업 규모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손꼽히고, 규모면에서도 독보적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임
- **(2021년 유망산업)** 정부의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정책에 의거, 정부 7대 육성 산업인 식음료, 자동차, 섬유봉제, 전자, 화학, 제약, 바이오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세부 산업으로는 에너지, 핀테크, 정보통신기술(CT), 사물인터넷(IoT), 유통, 물류서비스, 수송기계, 보건의료, 교육 서비스, 수처리기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

- **(우리 기업 주요 진출 산업)** 2019년에 우리 기업이 대(對) 인니 직접투자한 주요 분야는 금융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의류 제조업, 종합 건설업 등이며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산업 부진)**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고 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산업 동향〉

분야	내용
공통	○ 현지 기업의 82.55%(중견 및 대기업 82.29% / 중소기업 84.2%) 코로나19 이전보다 수입 감소(인도네시아 통계청, 2020년 10월)
자동차	○ 8월까지 약 32만 대의 자동차 판매(43만대 생산), 작년 동 기간 대비 50% 이상 감소, 연간 판매 목표 연초 대비 40% 축소한 60만대로 수정(인도네시아 자동차생산자협회, 2020년 9월)
섬유	○ 섬유 산업 근로자 수 작년 대비 50% 감소(인도네시아 섬유 및 필라멘트 생산자 협회, 2020년 8월)
기계	○ 중장비 기계 판매율 전년 대비 62% 하락한 약 3,000톤으로 예상(인도네시아 중장비기계산업협회, 2020년 10월)
원자재	○ 팜유의 주 수출 대상인 중국, EU, 인도 등의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수출 18% 감소 예상(인도네시아 팜유협회, 2020년 9월) ○ 세라믹 생산 전년 대비 15% 감소하여 약 310톤으로 예상(인도네시아 세라믹 협회, 2020년 10월)
소매·유통	○ 소매 물품 판매량 전년 대비 9.2% 감소(인도네시아 은행, 2020년 8월)
관광	○ 관광산업 전년 대비 50% 하락한 35억 달러 규모로 예측(Statista, 2020년 8월) ○ 인도네시아 8월 호텔 객실 점유율 28.07% 기록(인도네시아 통계청, 2020년 8월)
전시산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제약 정책으로 3월 이후 대부분의 전시회가 내년으로 잠정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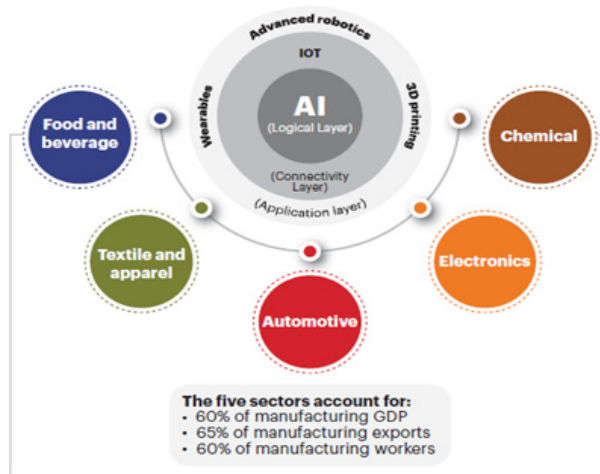
자료: 현지 언론사 및 정부 자료 종합

라. 정책·규제 환경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통해 살펴본 신산업 육성 및 GVC 재편 정책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은 제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는 국가차원의 산업 로드맵으로 정부는 5대 중점 분야 제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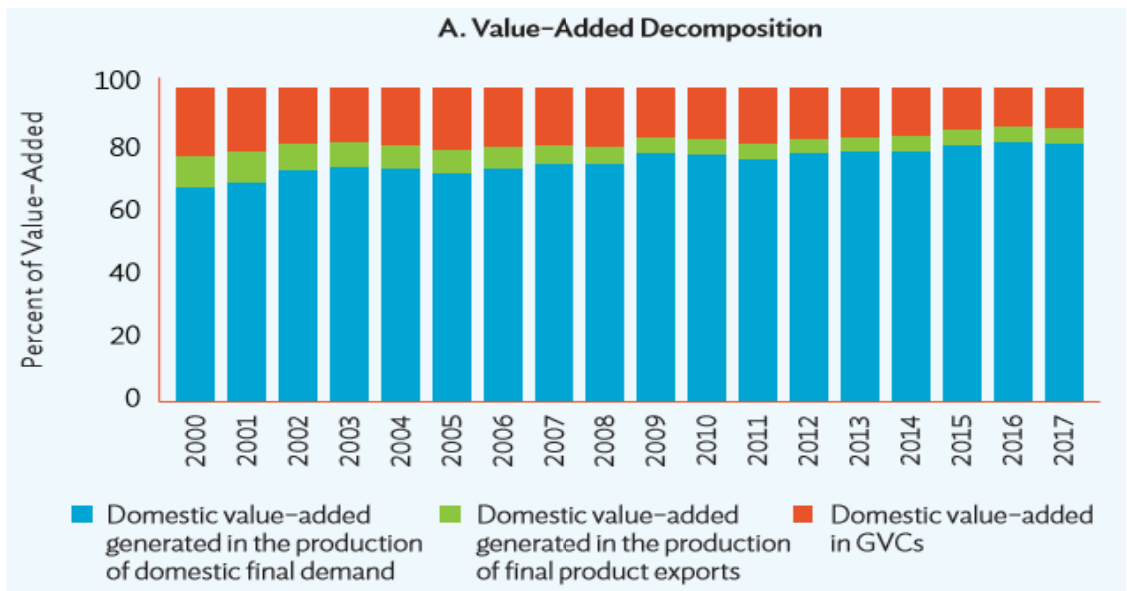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체계도〉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코로나19로 연기되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올해 4월 세계적인 산업 전시회인 하노버 메세 2020 (Hannover Messe)의 동반 국가로 참여해 대외적으로 자국의 산업 청사진을 홍보하고 글로벌 기업 대상 투자유치를 강화할 계획이었음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5대 중점 산업이 자국 내 수요는 높지만 부족한 역량으로 산업별 원부자재 및 완성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
  - 광물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에 이르나 광물업을 제외한 5대 중점 산업은 아직 12%대에 머무르고 있음
    - \* 5대 중점산업 GDP 차지 비율: 12.8%(2016)→12.7%(2017)→12.5%(2018)→12.6%(2019)
  - 인도네시아는 과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후방 연계에 비해 전방 연계 GVC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ADB, 2019년)
  - 이는 내수 수요에 포함되는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수출에 포함된 국내 부가가치 및 GVC에 포함되는 해외부가가치와 환류된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음을 의미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 창출 비중 분석〉



자료: ADB(2019년 10월)

- 자국 유망 제조업 산업의 혁신을 통해 수입 비중을 낮추고, 수출 비중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역내 GVC 재편에 참가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자국의 일부 원자재에 대한 수출 및 수입 규제 강화와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한 GVC 연계 투자 유치로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 원광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수출을 금지
  - 국산 부품 사용 요건(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을 40%대로 증가시킬 계획
  - 물품 수입 비중을 2022년까지 35%로 감소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조코위 정부 중기발전계획(RPJMN 2020-2024)에 따른 대규모 통신망 구축 사업인 빨라빠 링 (Palapa Ring) 구축 완료, 다기능 위성 프로젝트 추진 지속 진행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
- 노동 시장 유연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옵니버스) 국회 통과
- o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주요 분야별 육성 계획 및 유망 산업은 아래와 같음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내용 및 유망산업〉

분야	추진 배경	세부 계획	유망 산업
식음료	o 높은 수입의존도 - 수출 대비 수입액이 2배를 넘음(2017년)	o 자동계측·모니터링, 오토 파일럿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업스트림 생산성 향상(원료 자국 내 해결) o 지역별 수출 허브 활성화	o 농업기술 o 포장기술 o 드론 o 스마트 팜
섬유 및 봉제	o 가파른 임금 상승,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낮은 생산성 o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	o 업스트림 생산능력 및 품질 향상 o 기술도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 o 기능성 의류에 대한 내수 및 해외수요 맞는 생산능력 증대	o 스마트팩토리 o 스마트 물류 시스템
자동차 (전기차)	o 높은 일본차 기업 지배력 탈피 o 공해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 o 전기자동차 산업 선도	o 생산규모 확대를 통한 원자재 및 핵심부품 자급자족 o 기술도입 및 물류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 지원을 통해 GVC 진입 o 수출형 차종(저비용 그린카, SUV)등의 현지 위탁생산 유도	o 스마트팩토리 o 전기 자동차
화학	o 거대한 내수 시장 규모에 비해 높은 수입 의존도 o 내수 수요 충족이 불가한 자국 기업의 역량	o 자국 가스전 근접 지역에 석유화학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높은 가격 경쟁력 달성 o R&D를 통한 생산성 향상 o 바이오 연료, 플라스틱 등 차세대 화학 제품 생산 능력 개발	o 신재생에너지 o 친환경소재
전자	o 생활 필수 전자제품 생산 자국 기업 부족 o 선진국과의 큰 격차	o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제조 기업과의 협업 o 단순 조립이 아닌 고 부가가치 전자 부품 생산능력 배양 o 기술 도입 및 이전을 통한 내수 역량 확보	o 전자제품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기술연구개발기구(BPPI)

- o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가 추가될 예정이나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음(2020년 9월)
- o 인도네시아 정부도 과거 INNOFEST 2018 행사에서 밝혔듯이 취약한 산업 기반, 부족한 자원과 인센티브 제도, 저숙련 노동력, 복잡한 규제 등이 산업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추후 규제 개혁에 따라 해당 산업 진출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



## □ 2021년 인도네시아 국가 계획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발전계획(RPJPN\* 2005-2025)을 토대로 매 5년마다 국가 중기발전계획(RPJM\*\*)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 계획이 수록된 국가 계획 보고서(RKP\*\*\*)를 연간 발간 중

\* Rencana Pembangunan Jangka Panjang Nasional(RPJPN)

\*\*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RPJM)

\*\*\* Rencana Kerja Pemerintah(RKP)

-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국가 계획 보고서의 목표는 대폭 하향 조정되었음
- 2021년 국가 계획 보고서(RKP)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반등시키고 기존 중장기개발계획을 추진해 경제를 원래의 궤도로 돌려놓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보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분야 인력 양성, 의료기기 및 제약 분야 역량 강화, 능동적인 감시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인력 개발 교육을 통한 정교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으로 취약 계층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인프라) 노동 집약적인 산업 분야와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예정
  -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특별법(오니버스법)을 통한 고용의 유연화, OSS(O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절차 편리성 증대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진

### 〈2021년 국가 계획 보고서 주요 목표〉

분야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경제성장률	%	5.3	-0.4~1.0	4.5~5.5
인플레이션	%	2.5~4.5	3.0±1.0	3.0±1.0
환율	IDR/USD	15,000	14,500~14,800	13,700~14,900
비 석유·가스 품목 수출 증가율	%	5.5	-7.7~-5.1	3.5~5.1
비 석유·가스 품목 수입 증가율	%	8.0	-12.0~-8.6	4.4~5.9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	%	11.1	-1.6~-1.3	-2.0~-1.7
GDP 대비 세수익 비율	%	1.2	8.6	8.3~8.4
GDP 대비 자본 지출 비율	%	1.0	14.2~15.1	15.1~15.6
GDP 대비 정부 적자 비율	%	30.0	37.6	39.8~40
사업용이성(EODB) 세계 순위	순위	73	73	40
투자 증가율	%	7	-2.8~3.0	6.0~7.1
내·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1조 루피아	833~873	817.2	858.5
빈곤율	%	8.5~9.5	9.7~10.2	9.2~9.7
실업률	%	4.8~5.2	8.1~9.2	7.7~9.1
지니계수	%	0.380~0.385	0.379~0.381	0.377~0.379
인적자원개발지수	지수	71.98	72.11~72.21	72.78~72.95

자료: 정부 발표자료(President Regulation No 86 year 2020 on RKP 2021, 2020년 9월)

## □ 인도네시아 중기발전계획(RPJMN 2020~2024)에 따른 인프라 구축

- 인도네시아 정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개발 계획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도네시아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주요 목표(2020년 1월)〉

 <p><b>기초 인프라</b></p>	 <p><b>경제 인프라</b></p>	 <p><b>도시 인프라</b></p>	 <p><b>디지털 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주거공간 확보 인구비율 → 70%</li> <li>• 적절한 안전한 식수 확보 인구 비율 → 100%</li> <li>• 적절한 위생환경 확보 가능 인구 → 90%, 안전한 접근이 가능한 비율 15% 포함</li> <li>• 산업용수 확보 증가 → 50 m3/초</li> <li>• 새로운 다목적 댐 → 63 개</li> <li>• 새로운 관개 연결망 → 500,000 H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철도 → 자카르타-스마랑, 자카르타-반둥</li> <li>• 화물열차 → 마카시르-빠레빠레</li> <li>• 새 항공기 노선 → 43개</li> <li>• 섬 내 이동 시간의 축소 → 1.9 h/100 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유료도로 : 2,500 km</li> <li>✓ 신규 국도 : 3,000 km</li> <li>✓ 안정적인 국도의 비율 : 97%</li> </ul> </li> <li>• 연결 형태의 운송 경로 → 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대도시의 대중교통</li> <li>• 폐기물 처리시설 접근 가능한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 접근 가능</li> <li>✓ 20% 접근성 부족</li> </ul> </li> </ul> <p><b>에너지 및 전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인당 전력 소비량 → 1,400 kWh</li> <li>• 도시가스 네트워크 → 신 주택 4백만 채 연결</li> <li>• 석유 플랜트 구축 및 개발 → 6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사용률 → 95% 지역</li> <li>• 광섬유 네트워크 범위 → 60% 지역</li> <li>• 아날로그 변환 → 80% 디지털 방송</li> <li>• 신규 유니콘 스타트업 → 3개</li> </ul>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재가공)

- 자금 조달의 문제로 많은 프로젝트가 PPP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참가 가능성이 열려 있음

## □ 2019~2024년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5월 14일에 2019~2024년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 (MEKSI 2019~2024)을 발표
- 조코위 2기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2024년까지 글로벌 할랄 산업 국가로 육성할 계획

###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MEKSI 2019-2024)

- 잠재성 및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할랄 밸류 체인(Halal Value Chain) 강화
  - \* 해당 분야는 식음료 산업, 할랄 관광, 무슬림 패션, 할랄 미디어·오락, 할랄화장품·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 기존의 샤리아 금융 체계 구축 계획에 더해 이슬람 금융 분야 강화
- 할랄 밸류 체인 내에서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역량 강화
- 핀테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과 관련한 할랄 디지털 경제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은행(Mandiri, BRI, BNI)의 샤리아 자회사 합병절차를 진행 중이고 내년 초 까지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함
  - 샤리아 금융산업 자산은 2020년 7월 기준, 동 기간 대비 20.6% 성장, 합병 시 그 규모는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은행이 될 예정

- 샤리아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증대에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 조코위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이 내년 초에 통과될 것이라는 주요 조사 기관들의 예측을 뒤엎고 10월 5일 국회 통과, 11월 2일 대통령 최종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포됨
- 옴니버스법은 하나의 법률로 78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76개) 및 폐지(2개)하는 증보 방식을 택함
  - 그 결과, 옴니버스법의 조항 자체만 하더라도 769페이지의 분량에 이르고, 법률 각 조항에 대한 상세설명까지 포함하면 분량은 총 1,187페이지에 달함
- 옴니버스법은 총 15개의 장, 186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허가제도, 투자, 근로, 토지, 경제특구, 영세 및 중소기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관련 법률이 개정됨

〈일자리창출특별법(옴니버스법) 주요 변경 내용〉

주제(법령)	주요 내용										
위험도에 기반한 사업허가제도 도입 (옴니버스법 제 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도 분류 : 저위험도-중위험도-고위험도</li> <li>○ 구분 기준 : 위험성 평가, 잠재적 위험도</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위험도 구분</th> <th>사업허가 필요 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저위험도</td> <td>사업고유번호(NIB) 발급</td> </tr> <tr> <td>중위험도</td> <td>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사업자의 진술이 기재된 표준인증서</td> </tr> <tr> <td>중고위험도</td> <td>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td> </tr> <tr> <td>고위험도</td> <td>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허가</td> </tr> </tbody> </table>	위험도 구분	사업허가 필요 서류	저위험도	사업고유번호(NIB) 발급	중위험도	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사업자의 진술이 기재된 표준인증서	중고위험도	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고위험도	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허가
	위험도 구분	사업허가 필요 서류									
	저위험도	사업고유번호(NIB) 발급									
	중위험도	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사업자의 진술이 기재된 표준인증서									
중고위험도	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고위험도	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허가										
저위험도	사업고유번호(NIB) 발급										
중위험도	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사업자의 진술이 기재된 표준인증서										
중고위험도	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표준인증서										
고위험도	사업고유번호 발급 및 중앙정부 등이 발급한 사업허가										
건설업법 (UU 2/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증명서(Sertifikat Badan Usaha) 발급 절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설업협회 경유 + 공공건설주택부 장관 발급</li> <li>- (변경) 중앙정부 발급으로 변경(행정부령 위임)</li> </ul> </li> <li>○ 시공경력 등록 의무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중·대규모 건설업자 시공경력 인정을 위해 반드시 등록 후 경력 등록증 발급</li> <li>- (변경) 사업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기에 해당 제도 폐지</li> </ul> </li> <li>○ 외국건설인력에 관한 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외국건설업자는 반드시 외국인력의 이용계획(RPTKA)과 고용허가(IMTA) 보유</li> <li>- (변경) 해당 규정 삭제</li> </ul> </li> </ul>										
투자법 (UU 25/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의 개방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투자 활동을 위해 모든 투자 분야 또는 업종은 일정한 요건에 의해 개방 또는 제한 되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원칙적 개방</li> <li>- (변경) 투자의 금지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거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원칙적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pres 44/2016으로 마련된 네거티브리스트는 유효하지만 근시일 내 전면 개정될 것으로 예상</li> </ul> </li> </ul> </li> <li>○ 조사, 수입허가 편의 등 혜택 요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제 18조 제 3항에 명시된 요건 충족 시 세제상 혜택,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 편의, 이민국 서비스 편의, 수입 허가 편의 등의 혜택 부여</li> <li>- (변경) 기존 충족 요건에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경우' 추가</li> </ul> </li> </ul>										

<p>주식회사법 (UU 40/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설립 시 법인격 취득 절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법무인권부 장관의 법인격 취득에 관한 결정서 발급 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규정</li> <li>- (변경) 법무인권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그 등록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회사가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규정</li> </ul> </li> <li>○ 회사의 수권자본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최소 수권자본금을 5천만 루피아로 특정하여 위수권자본금 미만 회사 설립을 금지</li> <li>- (변경) 회사로 하여금 반드시 수권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면서 수권자본금의 상세 규모에 대해서는 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자투자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가치를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 이상 투자 필요, 회사의 발행자본 및 납입자본은 최소한 25억 루피아 이상 필요한 기존 규정 유효</li> </ul> </li> </ul> </li> </ul>
<p>근로기준법 (UU 13/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 근로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기간제 근로자 고용 가능 분야 명시</li> <li>- (변경) 기존 고용 가능 분야에 '업무의 종류, 성격 또는 활동이 영구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지는 업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과 같은 세부 내용은 행정부령으로 구체화될 예정</li> </ul> </li> </ul> </li> <li>○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주 6일 근로의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주 5일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명시</li> <li>- (변경) 근로계약서, 사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li> </ul> </li> <li>○ 초과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최장 1일 3시간, 1주일 총 14시간</li> <li>- (변경) 최장 1일 4시간, 1주일 총 1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업종의 경우 초과 예외 가능 조항 행정부령 위임</li> </ul> </li> </ul> </li> <li>○ 장기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6년간 동일 회사 근속한 근로자 최소 2개월 장기 휴가 부여(근속 7년차, 8년차에 각각 1개월씩 장기 휴가 사용)</li> <li>- (변경) 해당 조항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근로계약서, 사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장기 휴가 부여 가능</li> </ul> </li> </ul> </li> <li>○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주 또는 시·군별 최저임금, 주 또는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구성</li> <li>- (변경)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신설, 성과에 따른 급여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추후 최저 임금계산 공식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공식에는 경제성장률 또는 인플레이션 같은 변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해당 공식은 행정부령으로 위임</li> </ul> </li> <li>○ 근로관계 해지 또는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근로관계 해지 금지사유 열거, 해당 금지사유로 인한 해고 시 해당 해고가 부적법·무효로 규정</li> <li>- (변경) 기존 원칙이 유지되었으나 특별 조항을 신설해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 더해서 사규, 단체협상에 따른 근로 관계 해지 및 종료 가능</li> </ul> </li> <li>○ 근로관계 해지 또는 종료에 따른 각종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대체보상금 존재</li> <li>- (변경) 기존 보상금 유지, 단 대체보상금 요소 중 '해고보상금 또는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 지원비' 항목 삭제, 더해서 자진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보상금 지급 의무 삭제</li> </ul> </li> <li>○ 외국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반드시 외국 인력 사용 계획에 관한 승인 및 별도 고용 허가, 외국인의 직위 및 역량 기준 규정 준수</li> <li>- (변경)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자 고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승인받은 외국 인력 사용 계획 수립 필요, 단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획 수립 생략 가능 규정 신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시스템법상 실업보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실업보험 없음</li> <li>- (변경) 실업보험을 신규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 추가, 실업보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업보험료 납입 및 가입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함, 최대 6개월간 급여 지급될 수 있음</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조세 분야 (옴니버스법 제 6장 제 111조, 1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상환보증과 관련된 이자에 대한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부채상환보증으로 인한 이자 소득과 관련한 20% 세율</li> <li>- (변경) 행정부령으로 인한 감경 근거 규정 신설</li> </ul> </li> <li>○ 국외 과세 대상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구 소득세법 제 2조 제 4항에서 규정한 국외 과세 대상</li> <li>- (변경) 국외 과세 대상 해당범위 일부 수정</li> </ul> </li> <li>○ 과소 납세 및 지연 납세 관련 제재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납기일로부터 실제 납세일까지 월 2% 비율에 의한 가산세</li> <li>- (변경) 납세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납세 및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 이내 이루어진 납세에 대해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부과,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최대 기간을 24개월로 한정, 가산세율은 '기준금리 + 5%'의 이자율을 12등분한 값을 월 가산세율로 적용하도록 조정</li> </ul> </li> </ul>

자료 : 법무법인 세종 인도네시아 사무소(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2020년 11월 30일)

- 옴니버스법 내용 중 시행령에 위임한 항목이 많아 세부 내용 및 파급 효과는 정부령이 나와야 정확히 파악이 가능
  - 옴니버스법으로 일부 개정된 각 법률의 시행을 위해 행정부령 또는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 항목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세부 내용 마련되어야 함이 명시됨
  - 하지만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①그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고, ②각 행정부처의 사정에 따라 하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질 수 있는 점, ③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센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이 어려운 점 등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시행령 정비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는 옴니버스법 공포 이후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기업 대상 웨비나 개최 추진(2020년 12월 4일)

#### □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주요 인증 제도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되는 분야는 유통허가와 관련한 인증이며, 대표적으로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할랄(Halal) 인증이 있음
  - 상기 인증 중 BPOM과 SNI 인증은 법으로 지정한 해당 제품에 한해 필수 유통 인증으로 공통적으로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 서류가 많아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인도네시아 민간 할랄 인증인 MUI 할랄 인증은 의무 인증이 아니었으나 정부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로 정부 차원의 할랄 인증 표기 유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품들은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담당 기관인 할랄청(BPJPH)로부터 할랄 인증 유무 여부를 제품에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함
    - 한편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품목별로 계도기간이 설정되었고 신 할랄 인증 제도에 대한 엄격한 시행 자체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후가 될 것
- \* 2024년 10월 17일(식품, 음료 인증 의무화), 2026년 10월 17일(의약품, 화장품 등 의무화)

-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은 인도네시아의 수입 의존도 감소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 현지 제조 파트너링을 통한 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향후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중점 5대 산업에도 적용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산업의 평균 국산 사용 비중을 40%대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수립

## 2. 시장 분석

### 거시경제 활력이 감소했으나, 국가발전계획에 따른 시장 수요 여전

- (시장 특성·전략가치) 비즈니스 규제 많고 기초 인프라 부족하나 구매력이 상승하는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
- (교역)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수요 감소로 전체 교역 감소
- (투자진출) 2018~2019년 외국인직접투자액 감소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對) 인니 생산기지 이전 증가
- (프로젝트) 지역 통합 위한 교통·물류·통신 인프라 및 전력보급확대 위한 에너지 프로젝트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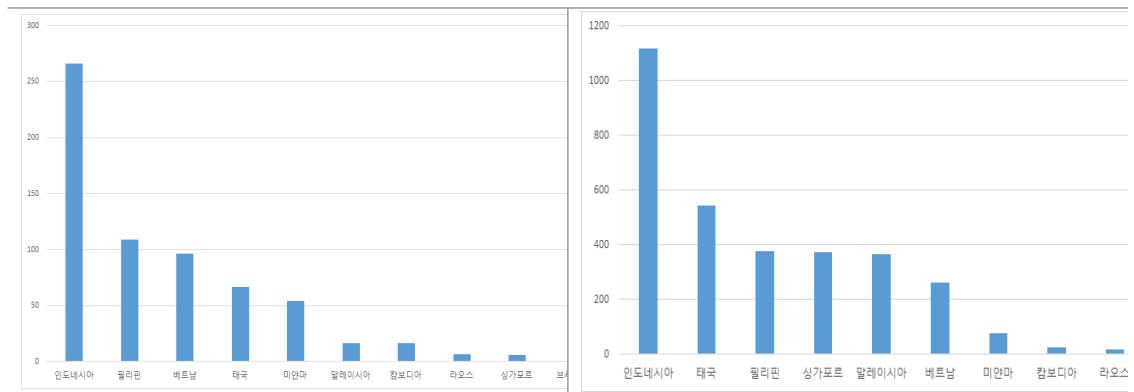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 무역의존도 낮으나 성장의 여지가 있는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최대 국가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이에 따라 국제 표준 등을 준수하기보다 자국 기준을 대외에 적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자국 인구 규모가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3개국 인구의 합과도(2억 6,896만 명) 비슷한 수준이며, 명목 GDP는 2019년 기준 1조 1,190억 달러로 아세안 10개국 총 GDP의 35.2%를 차지(2018년 대비 0.5% 상승)
  -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인구 수준에 기반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최대 국가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어 개별 구매력에 비해 눈높이가 매우 높은 편임

#### 〈2019년 아세안 10개국 인구 현황(좌) 및 국가 총 GDP 현황(우)〉

(단위: 백만 명(좌)/십억 달러(우))



자료: 인구는 IMF WEO(2019), GDP는 World Bank(2019) 기준

-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인구 및 총 GDP 수준에 비해 구매력 부족 및 비관세 장벽 등 보호주의 정책으로 수입 비중은 타 동남아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2019년 총 GDP 규모는 세계 16위, ASEAN 역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명목 GDP는 4,282달러로 ASEAN 내에서 5위에 불과

-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생산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등으로 인해 무역의존도(32%)와 GDP 대비 수입비중(16%)은 아시아 주요국 대비 낮은 편
-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 부족 및 제도적 애로 등으로 완제품의 직접 수출이 쉽지 않아,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

#### □ 높은 시장 진입 장벽: 제조업 진입 장벽 및 비관세 장벽

##### ○ 제조업 진입 장벽

- 외국 기업 견제, 사업 허가 정부 규제, 제조업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연 평균 8%대로 제조업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자국산 제품 의무 사용 비율 지속 증가

#####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 최근에는 고용, 생산 등 자국 발전에 기여도가 낮은 외국기업에 대한 진출을 제한하거나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 및 기업을 보호하려는 추세

#### □ 인도네시아 소비 시장 특성 \_ ① 소득·지역별 불균형, 가격우선

##### ○ 화교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 상장기업 가운데 화교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스타트업 투자, 스마트 분야, 의료 서비스, 전자상거래 유통 분야 등에서 큰 영향력을 보유

##### ○ 자바(Jawa)섬 중심의 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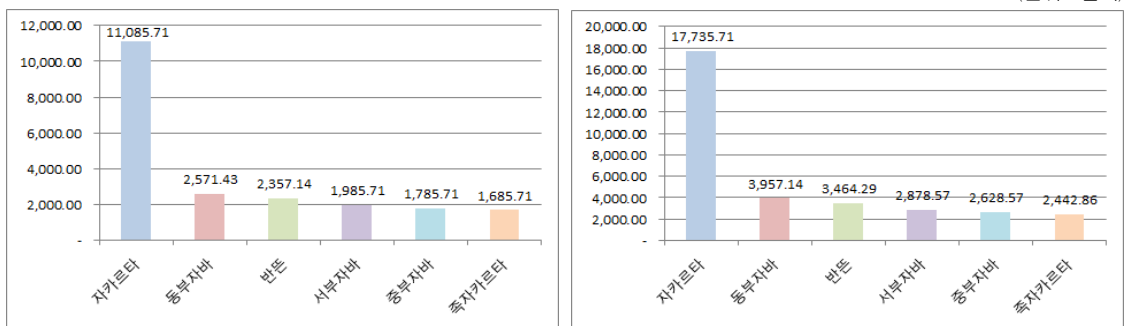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개의 큰 섬 중 자바섬(제 1, 2의 도시인 자카르타, 수라바야 위치)에는 인구의 56.7%인 1억 5천만 명이 거주
- 자바섬의 2018년 GDP는 전체 인도네시아의 58.5%를 차지해 인도네시아 소비시장이 자바섬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대부분의 국제거래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이뤄짐

##### ○ 소득계층의 양극화

- 인도네시아의 실질적 중산층의 규모는 6천만 명 내외 수준이며, 중산층 이하의 소득 계층은 중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형편임(재무부 장관, 2019년)

〈2013년(좌) 및 2018년(우) 자바섬 내 주별 1인당 GDP 수준〉

(단위: 달러)



주: 1달러=14,000루피아 적용. 통계청 자료는 루피아로 표기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2019년)



- 인도네시아의 경제 중심지인 자바섬 내에서도 1인당 GDP 수준은 천차만별이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자카르타 주와 타 주간의 격차 수준 또한 5년 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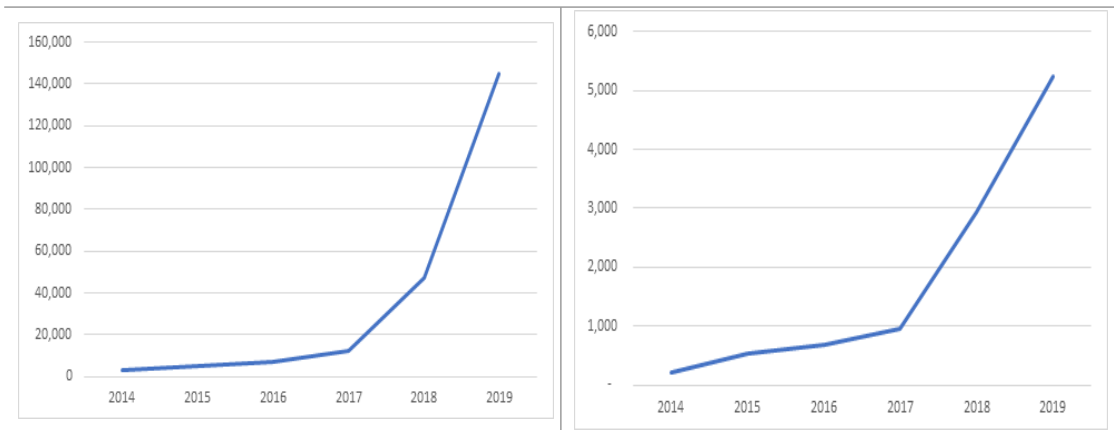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 소비 시장 특성 \_ ②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 급성장

### ○ 디지털경제 시장 성장

- 최근 5년간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 온라인 거래 증가
-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률 증가, 핀테크, 정보통신 인프라 발달 등으로 라이드헤일링(Ride Hailing) 및 이월렛(E-Wallet) 시장이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성장

### 〈2014년~2019년 인도네시아 전자지갑을 통한 거래 추이(좌), 거래량(우)〉

(단위: 십억 루피아(좌), 백만 건(우))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2020년 8월)

### ○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3년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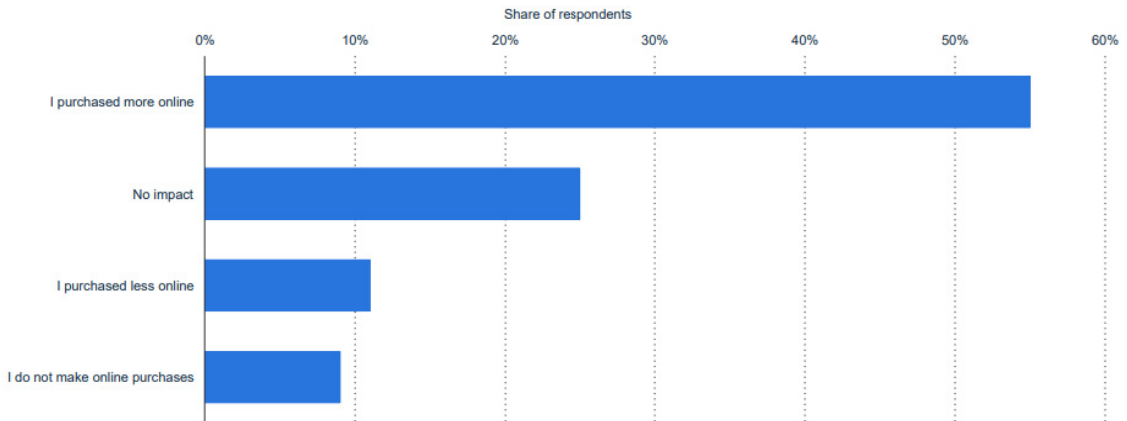
- 전체 소매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 비율이 2018년 1%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에는 8%까지 성장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3년에는 18%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가 193억 달러 규모로 전체 소매 판매의 약 10%를 차지
- 구글 테마섹도 2019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총 거래가치가 210억 달러로 동남아 국가 중에 가장 크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연평균 88%씩 급성장한 것으로 분석(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 보고서, 2019년)

###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면서 비대면 거래인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이후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온라인 선호도 상승 조사 결과〉

### Impacts of COVID-19 pandemic on the online purchase behavior among consumers in Indonesia as of May 2020

Online purchase behavior during COVID-19 pandemic Indonesia 2020



자료: Statista

-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전자지갑, 전자화폐 등 핀테크 산업도 발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지갑 회사 OVO의 총책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10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함
  -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을 전자화폐로 지원하고 있고, GOPAY, DANA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전자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자지갑은 인도네시아인의 생활에 보편화되고 있음
  - \*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전자화폐인 GOPAY로 지불하여 화제가 됨(2020년 10월)

### □ 인도네시아 소비 시장 특성 \_ ③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할랄 시장

- 인도네시아의 할랄 시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광, 이슬람 금융, 미디어, 패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은 총 2,818억 달러로 2016년 대비 49.3% 증가, 2025년에는 3,3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은 식품 시장으로 2017년 식품 시장 규모는 1,702억 달러를 기록
- 전 세계 인구 4위인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인 중 87%가 무슬림(전 세계 무슬림의 약 12%)
- 2014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할랄 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할랄 경제 국가로 거듭나고자 신할랄인증법에 대한 정부령을 발표
  - 2019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로 유통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할랄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구분이 돼야 함을 규정
  - \* 모든 제품 및 서비스: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 공학제품 등의 제품/도살,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출하 등의 서비스(정부령 2019년 31호 제 68조)

- 해당 법령의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할랄 인증 주관 기관이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 (MUI)에서 할랄인증청(BPJPH)으로 변경
  - \* 할랄인증 접수, 검사 및 발급을 MUI에서 전적으로 관리했다면 10월 17일 이후는 BPJPH에서 관리
- 할랄보장청의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 규칙 시행 준비 부족으로 할랄인증유무 표기 의무화는 **5년 유예된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추후 인증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

### 〈인도네시아 하람(금지) 성분 표기 방식 규정〉

MENGANDUNG BABI	MENGANDUNG BABI	돼지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돼지 함유"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색 네모 칸 안에 검은색 글씨로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식품은 빨간 글씨로 부착해야 함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	식품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an/atau menggunakan fasilitas bersama dengan bahan bersumber babi	[식품] 제조 과정 중 돼지 파생 원료와 함께 제조 시설 및(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접촉하였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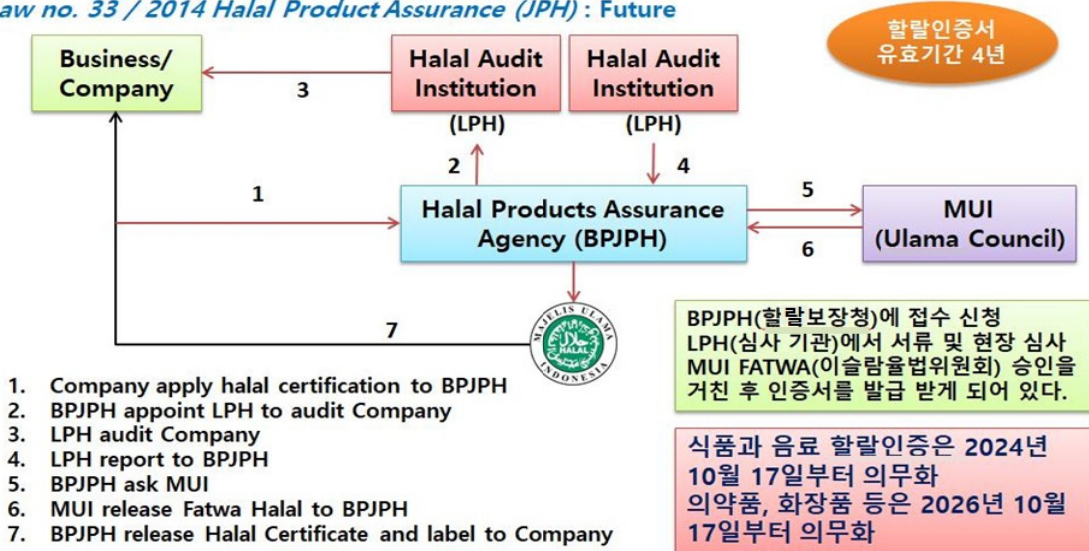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engan bahan bersumber babi.	[의약,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과정 중 돼지 파생 원료와 접촉하였음
---	--

자료: 인도네시아 식약청, PT Green Nature Farm

### 〈신할랄인증법 및 프로세스〉

Law no. 33 / 2014 Halal Product Assurance (JPH) : Future



자료: 인도네시아 식약청, PT Green Nature Farm

## 나. 교역

### □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 2015~2016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2017년과 2018년의 인도네시아 교역이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수출입 모두 감소했으며 무역적자 발생
- 인도네시아 수출 동향
  -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2016년 이후 안정된 경기 및 제조업 활성화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2019년 수출이 전년 대비 7.3% 감소
  - 인도네시아의 상위 3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이며 연간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 비중의 36% 기록(2019년)
  - **한국은 7위 수출국**이며 한국으로의 연간 수출 비중은 약 5%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 주요국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7월)
전체 수출액	167,640	180,215	167,003	90,090
1 중국	22,808	27,127	27,877	16,503
2 미국	17,782	18,427	17,647	10,201
3 일본	17,491	19,480	15,928	7,838
4 싱가포르	12,763	12,992	12,929	6,529
5 인도	13,869	13,726	11,774	5,549
6 말레이시아	8,454	9,437	8,942	4,218
7 <b>한국</b>	8,084	9,533	7,210	3,770
8 필리핀	6,382	6,825	6,758	3,073
9 태국	6,462	6,819	6,213	2,851
10 베트남	3,587	4,584	5,150	2,511

자료: Global Trade Atlas(원자료: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2020년 9월)

-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석탄·석유·가스, 동식물성 유지, 전자기기 부품, 일반 차량 및 부품, 철강 등을 주로 수출(2019년)
- 인도네시아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세계 4위의 인구나 저렴한 인건비로 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이며, 현지 기업 및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주로 전자기기(TV, 음향기기 등), 일반차량, 신발류, 기계류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7월)
전체수출액	167,640	180,215	167,003	90,090
1 광물성연료	36,825	42,012	34,728	15,276
2 동식물성유지	22,965	20,346	17,542	10,618
3 전기기기(TV등)	8,467	8,854	8,345	4,851

4	일반차량	6,834	7,552	8,149	3,293
5	철강	3,349	5,751	7,411	5,389
6	귀석·귀금속류	5,608	5,605	6,620	5,377
7	고무와 그 제품	7,741	6,381	6,022	3,029
8	보일러기계류	5,873	5,866	5,379	2,863
9	신발류	4,146	4,495	4,484	2,201
10	의류(편물제)	4,912	5,113	4,408	2,862

자료: Global Trade Atlas (원자료: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2020년 9월)

#### ○ 인도네시아의 수입 동향

- 인도네시아의 수입의 경우, 투자 감소 요인 등으로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9.3% 감소
- 인도네시아의 상위 3대 수입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이며 연간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 비중의 45.54%임(2019년)
- 한국은 6위 수입국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 비중은 4.94%을 차지함(2019년)

#### 〈인도네시아 주요국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7월)
전체수입액	156,925	187,917	170,388	81,421
1 중국	35,767	45,349	44,895	21,581
2 싱가포르	16,889	21,385	17,096	7,340
3 일본	15,241	17,878	15,609	6,784
4 미국	8,122	10,148	9,249	4,939
5 태국	9,280	10,878	9,462	4,131
6 한국	8,122	9,042	8,416	3,929
7 말레이시아	8,797	8,563	7,725	3,559
8 호주	6,009	5,819	5,515	2,694
9 인도	4,049	5,003	4,295	2,101
10 대만	3,256	3,544	3,650	2,051

자료: Global Trade Atlas (원자료: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2020년 9월)

#### ○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품목

- 인도네시아는 보일러 기계류, 전자기기, 광물성 연료, 플라스틱 등의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2019년)
-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 원자재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과 에너지산업 및 산업 공정과 관련된 보일러 기계류, 농업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곡물 종자, 의료산업 성장에 따른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CKD)의 수입 수요도 지속 존재

###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7월)
	전체수입액	156,925	187,917	170,388	81,421
1	보일러기계류	21,770	27,070	26,766	12,522
2	전기기기(TV 등)	17,931	21,335	19,583	10,409
3	광물성연료	25,439	31,473	23,480	9,368
4	플라스틱류	7,729	9,177	8,703	4,188
5	철강	7,985	10,213	10,388	3,929
6	유기화합물	5,897	6,893	5,817	2,959
7	일반차량	6,693	8,019	7,161	2,790
8	곡물류	2,927	3,782	3,237	1,799
9	철강제품	2,628	3,876	3,585	1,705
10	화학공업제품	2,197	2,659	2,590	1,679

자료: Global Trade Atlas (원자료: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2020년 9월)

#### ○ 인도네시아 수출입 주요 경쟁사 현황 및 교역 성향

- 인도네시아 100대 기업에 선정된 대기업 혹은 그룹사의 수출입 규모가 큰 편이며,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뿐 아니라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도 포함
- 담배, 석탄, 완성자동차(CBU)는 주로 수출에 많이 관여하며 철강 제품, 건설 자재, 석유, 가스, 중장비, 컴퓨터 하드웨어는 수출과 수입이 활발한 품목임
- 한편, 내수 생산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원자재, 부품 및 산업기계 등 자본재에 대한 수입 수요는 높은 편임

### 〈인도네시아 주요 교역 기업〉

분야	대표 기업
담배	Gudang Garam (Tobacco), Djarum, HM Sampoerna
건설 자재	Semen Indonesia
정보통신 서비스	Telekom Indonesia
제조업(자동차)	Astra International
석탄	Bumi Resources
컴퓨터 하드웨어	Dragon Computer & Communication
철강 제품	Krakatau Steel, Krakatau Posco
석유, 가스	MedcoEnergi, Pertamina
의약품, 화학	Kalbe Farma, Sidomuncul, Chandra Asri, Barito Pacific,
기계, 중장비	Ateliers Mecaniques D'Indonesia, United Tractors

자료: GlobeAsia(2018년), Forbes Global 2000(2018년), 무역관 자체 정리(2019년)

#### □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최종 타결에 따른 기대

##### ○ 2019년 11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최종 타결

- 한국은 수입품목(95.5%), 수입액(97.3%) 관세 철폐, 인도네시아는 수입품목(93%), 수입액(97%) 관세 철폐

##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개방 내역〉

한국 시장 개방	인도네시아 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양파 제외) 등으로 보호*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니 측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기 체결 자유무역협정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유(3-5%, 즉철), 벵커씨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 측 민감성이 높지 않은 바, 이익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 철폐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니측은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 개방</li> </ul>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정리

- 높은 수준의 규범 합의를 통한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겪는 비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한-아세안 FTA와 한-인니 CEPA 원산지 증명 비교〉

품목	개선내용	한-아세안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섬유, 의류	단순화	업계 활용 불편한 특수기준 규정 (원사기준, 공정기준, 결합기준)	특수기준 삭제
기계, 전자	기준완화	역외산 부분품 사용 난해 (세번 변경 기준, 역내 부가가치율 40% 이상)	역외산 부분품 사용 용이
자동차부품	선택기준 확대	일부 품목은 단일기준 활용 (세번 변경 기준 없이 역내부가가치율만 적용)	모두 선택기준으로 변경 (세번 변경 or 역내부가가치율)
철강	기준완화	일부 스테인레스 품목은 냉연공정 시에도 원산지 불인정	냉연공정 시 스테인레스 품목 원산지 인정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정리

- 이 외에도 서비스 시장 접근 개선, 자유화규범 도입, 인력이동 상호 교류 확대 등 기존 FTA 대비 높은 수준의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 조코위 대통령은 조코위 1기 정부에서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 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한 바 있음
  - 무조건적인 개방은 지양, 필요시 수입세 부과,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
- 2018년 2월에 정부는 사후 통관 관리제도(Post Border Policy) 시행으로 원자재 수입 통관 절차 완화를 통한 현지 생산 및 수출을 증대하려 했으나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증가율 속도가 더 빨라 무역적자가 발생

- 이에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 수입을 규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완화되었지만 추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억제 및 수출 장려 법규 관련 내용〉

제정(enact) 시기	수입 규제 및 수출 장려 사항	세부 내용
2019년 1월	철강 제품 수입 규제 강화 (법명: 무역부장관령 Permendag Nomor 110 Tahun 2018)	- 철, 강철, 합금강, 및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에 대한 규정 개정본 발표 - 수입 요건, 수입 승인 획득, 검사, 보고 의무, 면세 사항 등에 대한 법으로 2019년 1월 20일부로 발효
2019년 2월	타이어 제품 수입 규제 (법명: 무역부장관령 Permendag Nomor 5 Tahun 2019)	- 해당 법령은 2019년 2월 1일부로 발효됐으며, 타이어 수입 방법 및 타이어 수입승인, 관련 절차 및 보고 의무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수입규제를 적용받는 품목군은 HS Code 4011, HS Code 4013, HS Code 870870
2019년 2월	완성차 수출 절차 간소화 (법명: 국제청장령 No PER-01/BC/2019)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완성차 수출자가 수출신고서 제출 전에 세관 구역(Customs Zone)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선적 후 3일 내에 수출 대상 차량 종류 및 수량 수정이 가능하게끔 제정
2019년 3월	서비스 수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감면·면제 (법명: 재무부장관령 No 32/PMK.010/2019)	- 수출과 관련하여 고객과 과세 대상 사업체간에 지불이 이루어진 것이 유효한 지불 영수증으로 증명됐을 경우, 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
2019년 5월	신 할랄 인증 제도 (법명: 정부령 PP Nomor 31 Tahun 2019)	- 수입 제품 포함,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 중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식음료 제품, 의약품 및 화장품, 화학적/생물학적/유전공학적인 제품 및 기타 착용/사용/이용되는 제품 등) 및 서비스(도축, 가공, 보관, 유통, 판매 및 증정 등)를 규정 - 한편, 비할랄 재료로 생산된 제품에는 비할랄 정보가 부착되어야 하며, 5~10년의 계도기간 적용
2019년 7월	유해 물질의 조달, 유통 및 감독 (법명: 무역부장관령 Permendag Nomor 47 Tahun 2019 (No. 44/M-DAG/PER/9/2009 의 제3차 개정))	- 유해 물질("B2")의 수입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먼저 무역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B2수입 승인("P-B2")을 득해야 함 - B2의 유통은 다음 항목의 당사자가 수행 가능 (1) B2 생산자 ("P-B2") (2) API-U 수입자 (3) B2 유통자 ("DT-B2") (4) B2 소매업자 ("PT-B2"), 그러나 PT-B2만이 B2를 해당 물질의 최종 사용자에게 유통할 수 있음
2019년 8월	니켈 수출 금지 (법명: 에너지자원광물부 장관령 No.25/2018)	- 니켈 원광 수출 금지를 예정일(2022년 1월)보다 앞당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임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
2020년 1월	탄송화물 면세한도 하향 (법명: 재무부령 No 199/PMK 010/2019)	- 탄송화물 면세한도 USD 75 → USD 3(FOB) 하향 조정 - USD 1,500 이상 화물의 경우 정식 수입통관 필요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무역부, 대통령실 등



○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할랄인증

- 해외인증 준비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다수이며, 이에 해당하는 주요 인증에는 식약청(BPOM)인증, 기술표준(SNI)인증, 할랄인증이 있음

〈인도네시아 주요 인증 세부내용〉

인증명	SNI	BPOM	HALAL
인증마크			
허가기관	Bureau of Standard Nasional (BSN, 인니 국가 표준기구)	Badan POM (BPOM, 인니 식약청)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 할랄 인증청)
성격	의무	의무	2024.10.17.: 식품, 음료 2026.10.17.: 의약, 화장품
적용제품	공산품, 목재, 가공수산물	식품, 화장품, 의약품	종합
신청주체	제품 수입업체	제품 수입업체	제조사 (생산설비가 인증 대상)
획득소요기간	2개월~1년		
획득소요비용* (제품 당)	USD 6,000~15,000 내외 (실사비용 포함)	USD 120~USD 2,200 내외	USD 10,000~USD 20,000
유효기간	4년	5년	4년
타국 인증 상호인정여부	미인정	미인정	패키징이 완료된 완제품은 교차인증이 되지 않음

\* 대행업체 포함 기준이며, 품목의 종류(예: SNI의 B1(문구, 완구류), Type 5(대형 설비))에 따라 상이

다. 투자진출

□ 외국인 투자 현황

- 2019년 FDI 금액은 282억 달러이고, 건수는 21,105건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는 136억 달러, 23,364건을 각각 기록함
- FDI 총 금액은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이는 소액 투자가 많아졌음을 의미

〈최근 인도네시아 FDI 유입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상반기)
FDI(억 달러)	292.7	289.6	322.4	293.1	282.1	135.8
증감률 (%)	2.6	-1.1	11.3	-9.1	-3.7%	-4.3%
프로젝트(건수)	17,738	25,248	26,257	21,972	30,354	26,062

주: 투자 통계 작성 기관인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FDI 통계 환산시 매년 정부예산 기준환율을 사용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싱가포르가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34.4%)하고 있으며, 자카르타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가 있는 자바섬에 과반수가 넘는(51.9%) 투자가 진행됨
- 2016년과 2017년 한국의 투자 규모와 주요 투자국 순위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2018년 FDI 금액 기준 한국 순위는 6위, 2019년 순위는 7위로 하락

〈최근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상반기)
1	싱가포르 8,441.6	싱가포르 9,193.2	싱가포르 6,509.6	싱가포르 4,673.4
2	일본 4,996.2	일본 4,952.8	일본 4,310.9	일본 1,213.0
3	중국 3,361.2	중국 2,376.5	중국 4,744.5	중국 2,426.5
4	홍콩 2,116.5	홍콩 2,011.4	홍콩 2,891.0	홍콩 1,797.1
5	한국 2,024.6	말레이시아 1,774.9	네덜란드 2,596.8	말레이시아 795.6
6	미국 1,992.8	한국 1,604.7	말레이시아 1,357.5	네덜란드 503.0
7	네덜란드 1,489.4	미국 1,217.6	한국 1,070.2	한국 683.0
8	말레이시아 1,213.6	버진아일랜드 1,043.3	미국 989.3	미국 201.1
9	모리셔스 1,056.6	네덜란드 943.1	버진아일랜드 743.8	버진아일랜드 217.5
10	영국 844.8	호주 597.4	영국 142.1	영국 83.0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2020년 9월)

-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기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있음(5월 96.6%, 7월 92.2%)
- 2019년 탈 중국 기업 대상 유치가 저조하여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
  - \* 투자조정청장, 국영기업부장관 등 9월 한국 방문하여 현지 투자 협약 체결
  -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에서는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SEZ) 투자유치웨비나 진행(10월 19일)
-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제한리스트(DNI)의 개정본을 제정 예정이며, 최근 인센티브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온라인 시스템이 정착하지 못했고 행정 절차는 복잡한 편이라는 의견
- 일자리 창출 특별법(옵니버스법) 통과로 정부에서는 투자유치 증대를 기대

□ 우리 중소·중견 기업 투자 진출 성공 및 실패사례

〈인도네시아 투자 성공 사례〉

기업명	기업 규모	업종	진출 시기	성공 요인	성공 결과
Z사	중견	매트리스	2018년	미중 분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생산기지 분산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빠른 정착	연 대미수출 3억불
C사	중견	화장품 (제조·판매)	2012년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 할랄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진출 성공	1년 간 매출실적 3배 증가
D사	중견	제약 (제조·판매)	2012년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직접 생산, 현지시장 집중 공략	EPO 시장 점유율 1위

## 〈인도네시아 투자 실패 사례〉

기업명	업종	진출 시기	실패 원인	조치 결과
D사	신발	비공개	경쟁력 향상에 대한 투자 및 기술개발 부재했으며,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다 여러 관련기업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사업 실패	철수
K사	식당업	비공개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내국인 명의로 차명 사업하다가 적발되어 사업허가 취소	철수

### 라.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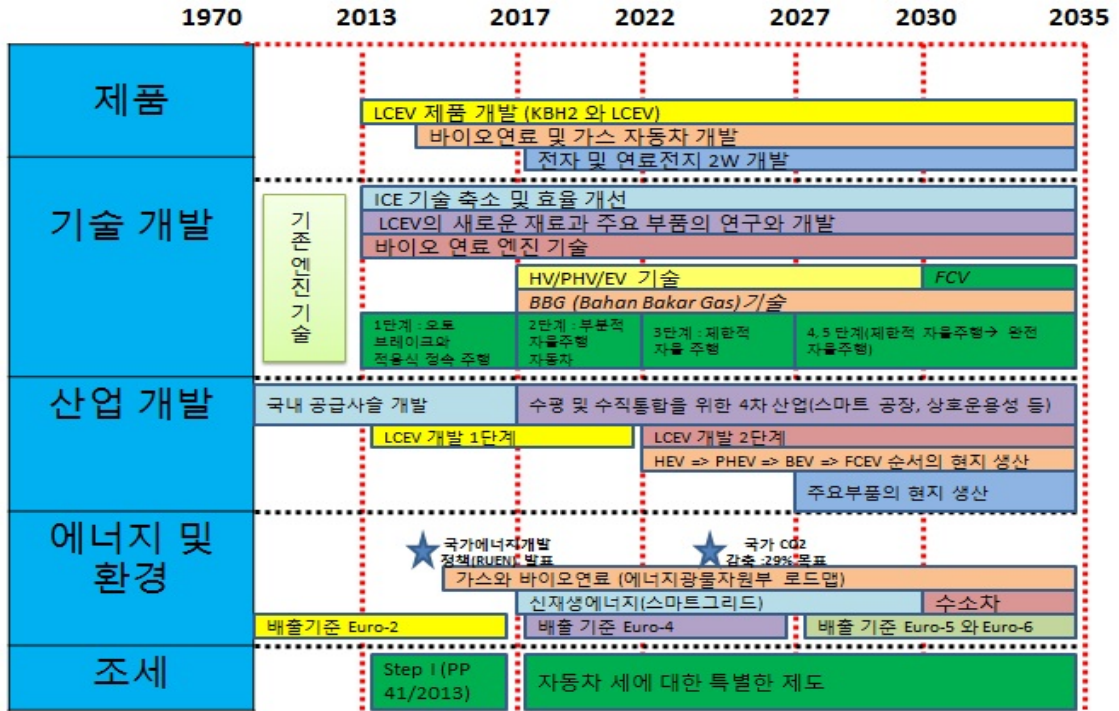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 정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인프라 개발

- 조코위 대통령은 1기 정부 대선 공약으로 해양고속도로(Maritime Axis) 신설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을 내세운 바 있으며, 국가 중기발전계획(RPJMN 2020~2024)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을 추진 중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예산 계획이 수정되면서 기존에 계획되었던 인프라 프로젝트가 2021년에 재개될 예정

#### □ 주요 분야별 프로젝트 시장 개황

- **(전기차)**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어젠다와 관련이 있는 분야로, 조코위 2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해문제를 해결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2륜 이상의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2019년 8월 대통령령 관보 게재)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 원재료와 주요 부품의 현지 생산을 확대해 산업 밸류 체인의 생산성을 최적화하여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자동차의 생산 및 수출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은 Pertamina, PLN, Telkom, Inalum과 같은 대형 공기업과 협업을 통한 전기차 개발 팀을 구성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육성 로드맵〉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2019년 2월)

- 2020년 1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의 수입 금지 조치도 해당 산업 육성과 관련 있음
- 자동차 생산에 있어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ND)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현지 진출 시 관련 규제 및 동향 면밀히 파악 필요
- 최근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동향 지속 파악 필요

### 〈2020년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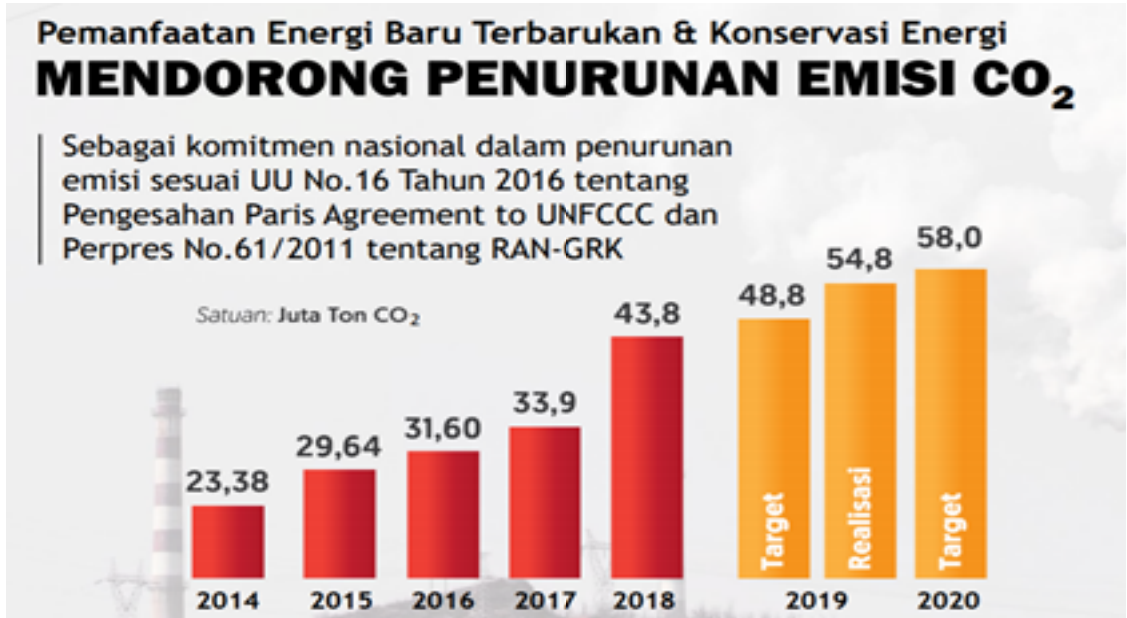
주체	분야	발표 시기	주요내용
GEM	전기차 배터리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M 중심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배터리용 니켈 생산 프로젝트에 총 7억 달러 투자 예정</li> <li>○ 프로젝트 참가 주요 중국 기업으로는 중국 최대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인도네시아 최대 니켈 채굴 기업 중 하나인 Tsingshan Holding Group 등이 있음</li> </ul>
Sumitomo Metal Mining	전기차 배터리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대 주주로 있는 PT Vale Indonesia 소유인 Pomalaa 지역 니켈 광산 운영 예정</li> </ul>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2020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장관과 투자조정청장 9월 한국 방문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투자 논의</li> <li>○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성사 여부 미정</li> </ul>
Mining Industry Indonesia (MIND ID)	전기차 배터리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켈광산을 운영하는 자회사 Aneka Tambang과 국영 석유기업 Pertamina, 그리고 국영 전력기업 PLN과 협업하여 '인도네시아 배터리'라는 약 1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li> </ul>

주체	분야	발표 시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d ID는 광업 부문을 담당하고, 중간 가공과 유통 부분을 Pertamina와 PLN이 관리할 예정</li> <li>○ 한국 및 중국 파트너들과 협업에 논의 중</li> </ul>
현대자동차	전기차	2020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차량공유업체 Grab과 협력 하 인도네시아 최초로 전기차 운행 시작</li> <li>○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20대 시범 중</li> </ul>
BYD	전기차	2020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공공교통수단인 Transjakarta에 전기버스 시범 운행</li> <li>○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시범 운행</li> </ul>
Today Sunshine New Energy Vehicle Industry	전기차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석탄기업 SESM과 협업 하 전기차 공장 건설 계약 체결</li> <li>○ Today Sunshine 업체의 가장 상징적인 제품은 2인용 소형 전기 자동차임</li> <li>○ 매년 10,000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알려짐</li> </ul>
Tesla	전기차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슬라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왔다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 조정부에서 밝힘</li> <li>○ 아직 정확한 발표가 없어 성사 여부는 미정</li> </ul>
(정부) 에너지광물 자원부	전기차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기업들이 전기자동차 지원 인프라 개발(충전소, 배터리교환소) 기획 제공</li> <li>○ 기반 시설 구축 가능 기업이 전기공급자특별사업면허(IUPTL)를 취득 시 국영전력기업 PLN 별도 허가 필요 없음</li> <li>○ 충전소 개설 기업들은 특별 충전소 번호(SPCLU)를 취득해야 하며, 이 번호는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음</li> <li>○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기충전소 시설을 2020년까지 전국 180개, 2025년까지 2,465개를 설치할 계획</li> </ul>
(정부) 금융감독청	전기차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자동차 및 전기오토바이 제조 관련 기업 대출기준 완화</li> <li>○ 8월에 시행한 전기자동차 프로그램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 2019년 55호에 의거함</li> <li>○ 인프라 장비와 전기자동차 개발 기업에 대한 대출 상한 폐지, 기업 및 구매자에 대한 대출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li> </ul>
(정부) 자카르타, 주정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전기차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자동차 지속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li> <li>○ 10월 1일부 전기자동차 할부 구매의 경우 계약금 0% 적용</li> <li>○ 2021년부터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사치세 면제</li> <li>○ 자카르타에 한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양도세 면제 및 차량 할부제 미적용 혜택 검토 중</li> <li>○ 2030년까지 버스 및 대중교통 차량과 일반 오토바이를 전기화 한다는 목표를 밝힘</li> </ul>

자료: 언론사 및 정부 발표 종합

- **(신재생에너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 인도네시아는 세계자연연구소에서 지적한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 중 하나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장려 중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4~2020년)〉



주: 2020년은 목표치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23%(45.2GW), 2050년까지 31%(167.7GW)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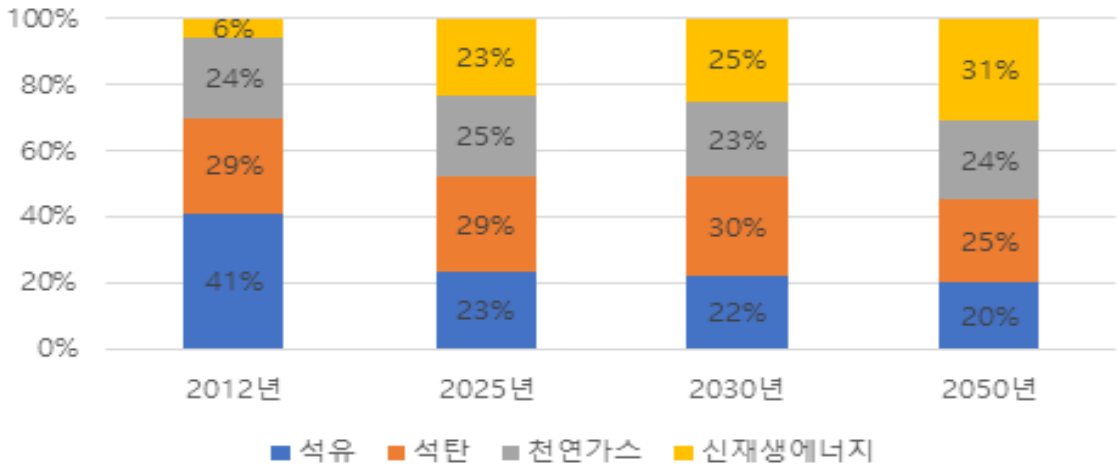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에너지 생산 목표〉

구분	2016년	2025년	2050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생산량)	7.7% (8 GW)	23% (45 GW)	31% (167 GW)
에너지 공급(MTOE)	169 MTOE	400 MTOE	1,012 MTOE
생산역량(GW)	59 GW	136 GW	443 GW
전력생산(kWh)	956 kWh	2,500 kWh	7,000 kWh
전력화율	91%	100%	100%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2019년)

- 2020년 1분기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 생산에 10.9%를 차지(2019년 9.15%)
- 전력 대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력 공기업(PLN)과 협업\*을 통해 인프라 개선 추진
  - \*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바이오에너지 발전소로 전환 추진, 지열, 태양광,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추가 설립 등
- 더해서, 석유 공기업(Pertamina)와 협업\*을 통해 국내 바이오 디젤 정제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의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음(2020년 30%→2021년 B40%)
  - \* Plaju, Balongan, Cilacap, Dumai 등 자사 보유 정제소에서 바이오 디젤 연료 개발 중

### 〈인도네시아 에너지별 생산 비중 목표〉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장관령(Permen ESDM No.50, 2017)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민간협력 사업 독려

\* 국영전력공사(PLN)이 입찰 없이 직접 구매 가능(구매시기도 결정), 수익성이 낮은 BOOT 방식 폐지

###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외국기업 투자 주요 현황〉

구분	발전소명(위치)	생산량(MW)	진행단계	설명
수력	Wampu (북부 수마트라)	45	운영 중	○ 한국 중부발전 운영(2016.4~2046.4)
수력	Tanggamus (남부 수마트라)	45	운영 중	○ 한국 중부발전 운영(2018.7~2048.7)
수력	Sungai Kaya (북부 갈리만탄)	9,000	공사 중	○ 인도네시아 최대 수력발전소 ○ PT Kayan Hydro Energy(현지)와 중국전력건설(Power China) 합작 ○ 5단계에 걸쳐 25년 간 건설 예정
수력	Siborpa (북부 수마트라)	114	계획 중	○ 한국 중부발전 투자 및 개발 중
풍력	Sidrap (남부 술라웨시)	85	운영 중	○ 인도네시아 최초 풍력발전소 ○ PT UPC Sidrap Bayu Energy(미국 합작법인)가 건설
지열	Sarulla (북부 수마트라)	110	운영 중	○ 세계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단일 기준) ○ 한국 현대건설이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IPP)를 통해 진출
지열	Sokoria (동부 누사틍가라)	30	공사 중	○ 4단계에 걸쳐 2028년 완공 예정 ○ PT Sokoria Geothermal Indonesia(싱가포르 합작법인)가 건설
지열	Muara Laboh 2곳 (서부 수마트라) Rantau Dadap (남부 수마트라)	80,140.86	공사 중	○ PT Supreme Energy(일본 도호쿠 전력, 마루베니, 스미토모 합작투자)가 건설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 **(스마트시티)** RPJMN 2015~2019의 도시 개발 로드맵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이는 RPJMN 2020~2024에 따라 개발될 예정임
  - 20년 내 인구의 65%가 도시에 거주하며 중산층이 7천만 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을 예상해 도시개발·IT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시티 구축을 계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 중임
  - 인도네시아 국가 정보통신 기술위원회는 34개 지방, 514개 도시가 스마트시티 개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스마트시티 표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 **(건설 인프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3차 국가 중기개발계획(RPJMN 2015~2019년)에 따라 해양고속도로(Sea Toll Road) 건설 계획에 맞추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신설·확장·개/보수해왔음
  -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4차 국가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을 통해 3차 계획 때 추진 중이었던 프로젝트를 지속해나갈 예정임
- **(정보통신기술)** 2017년 이후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13억5천만 달러에 달하며 공영방송(TVRI) 네트워크 디지털화, 전자정부(e-Government) 인프라 구축, 광케이블 연결 프로젝트, 국가 범죄정보 시스템 구축
  - 2020년 이후에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및 디지털 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 2019년 10월 14일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정보통신부가 주관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됐던 빨라빠 링 (Palapa Ring) 구축(서부 빨라빠 링: 1.2조 루피아/중부 빨라빠 링: 1조 루피아/동부 빨라빠 링: 5.4조 루피아)이 완료돼 개관을 공식 선언했으며, 2020년에는 다기능 위성 프로젝트(66억 루피아)가 지속 추진될 것

## □ 현지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 동향

- **(현지기업)** 기존 국영 건설기업 이외에도 현지 주요기업들의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나 큰 규모의 자금 투입으로 인한 사업적 부담 존재
  -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한 정부 예산 부족으로 2020년과 2021년도 다수의 프로젝트는 민관합동 프로젝트(PPP)로 진행될 예정
- **(외국계 기업)**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특히 일본계 상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기업들이 현지 프로젝트 시장에 다수 진출해 있음
  - 대표적으로 일본 마루베니(丸紅) 상사는 현지에서 진행 중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약 60%에 참여하고 있을 만큼 현지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 차지
  - 일본계 기업들은 40년 이상 축적된 네트워크 및 JICA, ADB 등의 개발자금 원조를 활용하여 현지 프로젝트 수주에서 앞서고 있음



###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 프로젝트 사례

- 최근에 인니 교통부는 자카르타 주정부와 90조 루피아 규모의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본 정부와 MOU를 체결
-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 현재 JICA가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2022년에 프로젝트 착수하여 2024년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사 지연 중

- **(일대일로)**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150km 구간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인도네시아 국영 회사(PT Wijaya Karya Tbk)와 중국 철도 공사(CRCC)의 합작법인인 인니-중국 고속철도회사(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는 해당 프로젝트의 완공 시기를 2021년으로 예상

### □ 민관 협력 프로젝트 사업 계획 및 현황

- 조코위 정권 출범 이래 인프라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주력 수단으로서 인정받아왔고,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음
- 2015년 3월에 제정된 대통령령 2015년 제 38호는 PPP사업에의 민간기업 참여를 이전에 비해 더 공고히 하였음
  - \* 2005년 대통령령 67호가 발효되면서 과거 국영 기업이 중심이 되어 참가하였던 민관협력(PPP) 사업을 국제 경쟁 입찰 체제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시도한 바 있음
- 민관협력사업의 민간 기업 조달 자금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민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상황임
  -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 조달 자금은 총 1,697억 달러이며, 정부 예산이 151억 달러, 국영 기업(SOE) 예산이 448억 달러인데 반해 민간 기업 조달 자금이 1,098억 달러 차지하며 전체 조달 자금의 64.7% 차지
- 인도네시아 정부의 민관협력사업(PPP) 프로그램은 공항, 항만, 도로 및 교각, 철도, 수처리 시설 및 관개 시설, 식수, 폐수 처리, 고형 폐기물 처리, 정보통신 기술, 전기, 석유 및 가스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
-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정부가 제안하는 정부 제안 사업(Solicited Proposal)과 민간 영역에서 제안하는 민간 제안 사업(Unsolicited Proposal)으로 나뉨
-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주체에는 사업 참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다국적 개발 은행, 스폰서, 관련 정부기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EPC 계약자, O&M 운영자 등이 있음

### 〈인도네시아 주요 민관협력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지역)	제안주체	예산 규모 (백만 달러)	프로젝트 계획	주요 타당성 지표 (백만 달러)
Patimban 항구 개발 (수방, 서부자바)	정부	511.11	입찰 진행(2020. 2Q) 공사 시작(2020. 4Q)	○ IRR: 13.40% ○ NPV: USD 103.12 ○ 운영: 40년
자동차 주행 테스트 및 인증 시험장 개발 (브카시, 서부자바)	정부	116.76	입찰 진행(2020. 4Q) 공사 시작(2021. 3Q)	○ IRR: 11.40% ○ NPV: USD 3.65 ○ 운영: 20년
Semanan-Balaraja 고속도로 (땅그랑, 서부자바)	민간	1,117.26	입찰 진행(2020. 3Q) 공사 시작(2021. 3Q)	○ IRR: 12.04% ○ NPV: USD 4.66 ○ 운영: 40년
Kamal-Teluk Naga-Rejeg 고속도로 (자카르타, 반튼)	민간	1,331.39	입찰 진행(2020. 3Q) 공사 시작(2021. 3Q)	○ IRR: 10.58% ○ NPV: USD 96.44 ○ 운영: 40년
Patimban 항구 도로 (수방, 서부자바)	민간	457.37	입찰 진행(2020. 3Q) 공사 시작(2021. 3Q)	○ IRR: 10.92% ○ NPV: USD 55.47 ○ 운영: 45년
Gedebage-Tasikmalaya Cilacap 고속도로 (서부자바, 중부자바)	민간	4,143.49	입찰 진행(2020. 3Q) 공사 시작(2021. 3Q)	○ IRR: 12.00% ○ NPV: USD 139.28 ○ 운영: 40년
Bogor-Serpong 고속도로 (서부자바, 반튼)	민간	621.73	입찰 진행(2020. 3Q) 공사 시작(2021. 3Q)	○ IRR: 12.38% ○ NPV: USD 78.9 ○ 운영: 40년
Cikunir-Karawaci 내부고속도로 (자카르타, 반튼)	민간	1,815.57	입찰 진행(2020. 3Q) 공사 시작(2021. 3Q)	○ IRR: 12.07% ○ NPV: USD 223.1 ○ 운영: 45년
Cikunir-Ulujami Jakarta 외부순환고속도로 (자카르타, 서부자바)	민간	1,541.00	입찰 진행(2020. 3Q) 공사 시작(2021. 3Q)	○ IRR: 12.49% ○ NPV: USD 536.27 ○ 운영: 45년
고속도로 무인 수납 시스템 (전국)	민간	300.72	입찰 진행(2020. 4Q) 공사 시작(2022. 1Q)	○ IRR: 12.5% ○ 운영: 10년
Semarang 항구 고속도로 (중부자바)	민간	222.00	입찰 진행(2020. 4Q) 공사 시작(2021. 4Q)	○ IRR: 11.10% ○ NPV: USD 12.20 ○ 운영: 50년
South Sentul-West Karawang 고속도로 (서부자바)	민간	836.81	입찰 진행(2020. 4Q) 공사 시작(2021. 4Q)	○ IRR: 12.08% ○ NPV: USD 104.79 ○ 운영: 40년
Sarbagikung지역 수도 공급 시스템 (발리)	민간	1,067.70	입찰 진행(2020. 2Q) 공사 시작(2020. 4Q)	○ IRR: 11.63% ○ NPV: USD 30.20 ○ 운영: 25년
Karian-Serpong지역 수도 공급 시스템 (르박, 반튼)	민간	169.26	입찰 진행(2020. 3Q) 공사 시작(2021. 4Q)	○ IRR: 12.30% ○ NPV: USD 58.74 ○ 운영: 33년

주: 세부 사항은 인도네시아 PPP Book(2020) 참고  
자료: PPP Book 2020, 2020년 7월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 가. 교역

##### □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 양국 간 교역은 2004년 100억 달러, 2011년 300억 달러 돌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148.9억 달러(수출 66.1억 달러, 수입 82.9억 달러) 기록
- 2017년 교역 규모는 약 180억 달러, 2018년의 교역 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2년간 교역량이 증가했음
- 2019년 교역 규모는 16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6% 감소했으며, 이는 ①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및 주요국 제조업 경기 부진, ②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의 단가 하락세 지속 등의 요인으로 인한
- 2020년 교역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주요 교역국들의 경기가 부진하면서 수출(-24.8%)과 수입(-16.7%) 모두 전년 대비 부진

##### 〈한-인도네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총교역액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무역수지
2015년	16,727	7,875 (-30.7%)	8,852 (-27.8%)	-977
2016년	14,894	6,609 (-16.1%)	8,285 (-6.4%)	-1,676
2017년	17,974	8,404 (27.2%)	9,571 (15.5%)	-1,167
2018년	19,994	8,833 (5.1%)	11,161 (16.6%)	-2,328
2019년	16,470	7,650 (-11.6%)	8,820 (-12.2%)	-1,170
2020년(1~9월)	10,042	4,353 (-24.8%)	5,689 (16.7%)	-1,336

자료: 무역협회(2020년 10월)

- 올해 우리나라의 대(對) 인니 5대 수출 품목은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섬유류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유연탄, 천연가스, 신발, 의류, 철강 등임(2020년 9월)

##### □ 우리 기업 수출 성공 및 실패 대표 사례

- 성공 사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항암제 수출 성공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018년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식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이하 BPOM)으로부터 항암제 2종의 등록을 승인받음
  - 품목은 'Helixor(성분명 Pemetrexed)'와 'Gaploy(성분명 Gemcitabine)'이며, 올해 9월부터 현지 유력 제약사 'PT Pharos'을 통해 판매가 진행되며 초도 물량은 약 100만 달러 규모로 예상됨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2016년 12월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기존 수출 중이던 6종의 항암제에 더해 10여 종의 신규 항암제 등록을 추진해 성공, 신규 제품 최초 수출

- 동 사는 KOTRA와 20년의 인연을 토대로 현재 세계 40여 개국에 항암제, 항생제, 비타민제 등 완제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에는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이력이 있음
- (실패 사례) 민감 품목(주류)에 대한 세관의 자의적 세 번 분류로 통관 지연
  - 수출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업체 측에서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 문의
  - 이전까지 동일 제품으로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통관 허가를 내 주지 않음에 따라 현지 수입업자 측의 물량 조달에 문제가 발생
  - 무역관 통관 자문가와 현지 세관 및 수입업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통관 거부 사유를 파악해보니 소비세 부분에 문제가 있어 통관이 보류되고 있음이 확인
  - 무슬림 인구가 87%로 주류 수입 관련 규정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주류의 경우 수입 통관 시 납부하는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이외에 국내소비세(CUKAI)를 납부해야 함
  - 시기에 맞게 유통을 진행해야 하는 수입업자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며 수입업자에게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동 타격은 고스란히 수출업자에게 전달됨
- 실패사례로 보는 진출 시 유의사항
  -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BPOM) 인증 발급 절차가 까다로우며, 현지 생산을 장려 중이고,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유통업자가 아닌 제약회사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정해 수출이 제한적인 상황임
  - 의약품이나 주류는 공통적으로 통관 및 유통하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한 민감 품목이나, 차이점은 의약품은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품이고, 주류는 외국인과 비이슬람 교도의 수요가 있으나, 할랄(halal)이 아닌 하람(haram)으로 분류되는 무슬림 음용 금지 아이템이라는 점임
  - 제품이나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하기에 앞서 소비 성향과 유사 제품 단가, 그리고 유사제품이 없을 시 수요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나. 투자진출

### □ 한국-인도네시아 투자 동향

-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 기업 수는 약 2,000개사 내외로 추산하며, 특징은 타 국가 대비 투자 건수가 많고 투자액이 적은 소형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임
- 투자건수는 201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바, 대(對) 인니 투자진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높은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8년 전체 대(對) 인니 투자 규모는 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7% 감소했으며, 2019년 투자 규모는 10억 달러로 33.2% 감소
  - 2019년 투자가 감소한 이유로는 불안정한 국제 경기에 따른 인도네시아 경기 동반 침체, 인도네시아 대선·총선 여파, 정치·경제적 과도기를 지나는 한국의 경제 상황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2020년 상반기 투자 규모는 6.8억 달러를 기록하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전기·가스·수도 분야의 2020년 상반기 투자 금액은 2.2억 달러로, 이는 전년 총 투자금액인 1억 달러보다 2배 많은 수준임
  - 이는 발전 인프라, 제조업 등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최근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 동향〉

연도	건수	금액(백만 달러)	증감률(금액 기준)
2014년	1,336	1,127	-49%
2015년	2,562	1,213	8%
2016년	3,027	1,065	-12%
2017년	4,217	2,024	90%
2018년	3,967	1,605	-21%
2019년	4,258	1,070	-33%
2020년(상반기)	2,543	683	25%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 조정청(2020년)

- 2019년 전체와 2020년 상반기 주요 투자 업종이 겹치는 분야는 전력 인프라에 해당하는 전기·가스·수도 분야와 화학·제약 분야이며, 그 외의 분야는 상이함
- 2020년 상반기의 5대 대 인니 한국 직접 투자 분야는 전기·가스·수도 분야와 화학·제약 분야, 섬유 봉제, 가죽·신발, 식·음료 등의 영역임

### 〈산업별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 순위〉

(단위: 백만 달러)

년도 순위	2019년		2020년 상반기	
	산업	총 투자액	산업	총 투자액
1	화학·제약	246.9	전기·가스·수도	228.4
2	광산	166.9	화학·제약	148.4
3	가죽·신발	123.4	섬유봉제	60.8
4	전기·가스·수도	106.8	가죽·신발	50.9
5	고무·플라스틱	96.3	식·음료	14.8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2020년)

-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 검토 및 진행 중
  - LG전자 구미 사업장 TV 생산라인 2개 인도네시아로 이전 검토 중
  - 한국 파크랜드 자회사인 세진패션은 중국의 다롄에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2020년 9월)
  -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약 25개의 한국 기업들과 투자를 협의 중이라고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주최 무역·투자 세미나에서 밝힘(2020년 8월)

## □ 우리 기업 주요 투자 현황

### 〈우리 기업의 단계별 대(對) 인니 투자진출 사례〉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정리

- 한국 기업의 대(對) 인도네시아 진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까지 자원개발 또는 섬유, 신발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주축을 이룸
- 1990년대 이후에는 현지 수요를 타겟으로 한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의 진출로 투자 규모가 대형화됐음
- 비금융 분야 최근 투자는 제약(종근당, 2015년), 전자상거래(아이롯데, 2017년), 매트리스(지누스, 2018년) 등임
-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인프라 투자로 인한 건설업, 제조업으로의 진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인해 중국 생산 법인이 인니로 이전을 검토하는 경우가 증가

### 〈주요 투자진출 한국 기업 현황〉

참여기업 (진출년도)	투자 현황
Korindo (196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자원(합판, 조림, 팜오일, 고무), 제지, 중공업(상용차, 풍력, 특장차, 소재), 화학, 물류, 부동산, 금융 등 40여 개 계열사</li> <li>- 한국인 약 300명, 현지인 약 20,000명</li> <li>- 자바, 칼리만탄, 파푸아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 사업장 보유</li> </ul>
미원 (197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미료 생산, 인니 시장점유율 1위(30%)</li> </ul>
삼성물산 (197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5년 지사 설치, 주재원 6명(2009년 1.5억 달러, 10년 1.2억 달러 실적, 팜농장 포함)</li> <li>- 수마트라 지역 팜 농장 사업(2008년 2만 4천 헥타, 5천만 달러 투자)</li> <li>- 칼리만탄 지역 카사바 농장 및 전분가공 공장 사업(2011년)</li> <li>- 석탄 광구, 태양광 발전 등 신규사업 진출 검토 중</li> </ul>
대우 인터내셔널 (197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재원 5명(2009년 2.9억 달러, 2010년 3억 달러 실적)</li> <li>- 포스코 등 한국산 철강 제품(탄소강, 특수강) 인니 내수 판매</li> <li>- 한국산 방위산업 제품 인도네시아 판매(국방부 경찰)</li> <li>- CPO, 유연탄, 발전소 등 투자사업</li> </ul>

참여기업 (진출년도)	투자 현황
KODECO (198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1년 서마두라광구 유전개발사업 Kodeco/Pertamina 20:80 지분으로 계약 최근 광구 계약 연장: 2011년 5월~2031년 5월(20년) 광구면적: 최초 6,460km<sup>2</sup> → 현재 1,666km<sup>2</sup></li> <li>- 2002년 Kodeco/CNOOC/Pertamina 25:25:50 지분으로 계약</li> <li>- 2011년 Kodeco/시너르진도/Pertamina 10:10:80 지분으로 계약 연장</li> <li>- 2018년 7월 현재는 기존 사업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li> </ul>
KIDECO (198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3년부터 유연탄 생산 시작(30년간 조광계약: 2043년)</li> <li>- 칼리만탄 동부 파시르 지역(노천광산)</li> <li>- 매장량: 11억 톤(세계 5대 광산, 50,400ha, 인도네시아 3위 광산)</li> <li>- 2012년 생산량: 3,400만 톤</li> <li>- 1982년 국내업체 컨소시엄(삼탄, 범양상선, 용산화물, 한일시멘트, 태웅)으로 진출, 수송비 문제, 유연탄 국제시세의 하락(1982년 \$60/톤→1988년 \$35/톤)으로 다른 기업은 철수하고, 현재 삼탄(지분 49%)과 인도네시아 기업 2곳이 지분 보유</li> <li>- 2017년 12월, 삼탄은 KIDECO의 지분 49% 중 40%를 매각하여 지분이 많이 축소된 상태이며 2023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이 만료되나 연장 위해 노력 중</li> </ul>
LG전자 (19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li> <li>- 1995년 Global 생산기지 공장 추가 건설-전 세계 78개국, 150여 바이어에 수출</li> <li>- 2016년 기준 판매실적 약 12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핵심 가전제품기업에 선정</li> <li>- 2018년 5월, LG전자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가동 시작</li> <li>- 종업원 약 5,000명(협력사 약 35,000명)</li> </ul>
삼성전자 (199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STB, DVD, Blu-ray, HTS 등 디지털제품 생산</li> <li>-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2017년 기준 매출 약 281백만 달러 기록</li> <li>- 종업원 약 3,500명,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li> <li>- 삼성전자는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플라자 센트럴 건물을 비롯해 9개국 랜드마크 14곳 에 LED 사이니지를 수주</li> </ul>
CJ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료품, 핵산, MSG, 사료 등 생산, 제과점 투레주르, 영화관(CGV) 진출</li> <li>- 핵산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라이신 세계 2위</li> </ul>
SK 에너지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공사(Pertamina)사와 함께 윤활유 공장 설립</li> <li>- 1일 75천만 배럴 생산</li> </ul>
KEB하나은행 (1990년,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 최초 진출(외환은행)</li> <li>- 2007년 PT Bank Bintang Manunggal 지분인수 후 PT Bank Hana로 진출</li> <li>- 2014년 외환은행과 합병을 완료하고 PT Bank KEB Hana로 변경</li> <li>-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PT BANK KEB Hana)은 2019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Indonesia Stock Exchange)에 상장 예정</li> </ul>
롯데마트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대형 체인 Makro 19개 매장을 인수하며 국내업체 최초 유통업계 진출 현재 37개 매장 보유</li> <li>- 총 14개의 연관법인이 현재 인니에 진출 중</li> </ul>
롯데케미컬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6월 Titan사 인수</li> <li>- 100ha 규모의 대규모 에틸렌 공장 건설 계획</li> <li>- 2016년 연산 1백만 톤(인니 최대 규모) 에틸렌 생산 예정</li> <li>- 총 투자액: 50억 달러</li> <li>- 2018년 내 나프타분해공장 완공 예정</li> </ul>
포스코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니 Krakatau Steel과 JV형태로 일관제철소 준공(2013. 12. 24.)</li> <li>- 2018년까지 총 60억 달러 투자 (1단계: 27억 달러, 2단계 33억 달러)</li> <li>- 2013년 300만 톤 생산에 이어 2018년까지 600만 톤 생산 예정</li> </ul>

참여기업 (진출년도)	투자 현황
한국타이어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9. 17. 준공</li> <li>- 2018년까지 총 12.1억 달러 투자(1단계: 3억 달러)</li> <li>- 2014년에는 1,400명, 2018년에는 4,200명의 신규 고용 창출 기대</li> <li>- 연간 600만 개(1단계) - 2,000만 개(4단계)의 타이어 생산 예정</li> </ul>
우리은행 (1992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년에 진출한 우리은행 BW는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li> <li>- 소매금융 강화를 위해 현지은행 소다라 회사 지분 33% 인수</li> <li>- 2013년 말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 인수를 통해 2014년에 우리소다라은행 출범</li> <li>- 2016년 245억 7300만 원 순이익 달성</li> <li>- 2017년 6월 1일, 1억 달러 규모의 증자를 결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동남아 거점으로서의 기반을 마련</li> <li>- 2017년 순이익은 384 억 8,800만 원 기록, 2018년 7월 현재 기준 점포수 153개 달성</li> </ul>
한화생명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013년 10월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에 진출한 한화생명은 2017년 5월 말 기준 746억 루피아(약 65억 원)의 수입 보험료의 수익 발생</li> <li>- 2017년 전체 순손실은 43억 원으로 추산되나 이는 전년에 비해 적자 규모(113억 원)를 큰 폭으로 줄인 실적임</li> </ul>
종근당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오토사와 합작법인 CKD-OTTO 설립</li> <li>- 2016년 7월 짜까랑 산업단지에 항암제 공장 생산 착공</li> <li>-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GMP획득, 2019년 2월 인도네시아 최초 할랄인증 항암제 공장 준공</li> <li>- 3,000만 달러 투자 연면적 1만 2,588㎡ 2층 건물 설립, 연간 약 160만 바이어 생산 예상</li> </ul>
지누스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8월 보고르 및 까라왕 지역에 매트리스2개 생산 공장 설립</li> <li>- 기존 중국 공장에서 미-중 무역분쟁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진출</li> <li>- 총 투자 규모: 6천만 달러(규모상 역대한국기업 투자 8위에 해당)</li> <li>- 보고르 116,934㎡(2019년 2월 첫 제품 출고), 까라왕 83,300㎡(2019년 9월 생산 개시)</li> <li>- 연간 3억 달러 가량 제품 북미 수출 예상</li> </ul>
현대자동차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11월 인도네시아 진출 공식 선언</li> <li>- 인도네시아 생산 공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설립하는 첫 완성차 생산 기지</li> <li>- 자카르타 동부 브카시시 짜까랑 델타마스 산업공단 내 생산공장 건설 중,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li> </ul>
IBK 기업은행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9월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출범식 개최</li> <li>- 2019년 1월 현지 아그리스 은행과 미트라니아 은행을 인수하고 8월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두 은행 합병 승인</li> <li>- 한국 데스크와 외환 전담부서를 설치해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에게 금융 서비스 지원</li> <li>- 현재 30곳인 영업망을 2023년까지 55곳으로 늘릴 계획</li> </ul>

자료: KOTRA 국가정보, 2020년 10월,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 □ 우리 기업 투자 성공 및 실패 대표 사례

### ○ 성공사례: 지누스 생산공장 설립

- 1979년 설립된 지누스(ZINUS)는 Global No.1 온라인 가구기업을 목표로 매트리스, 소파, 테이블 등의 가구제품을 연구개발 및 제조·생산하는 한국의 우수 중견기업임
- 지누스는 북미 최대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인 Amazon.com, Walmart.com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북미 시장에서 구축한 성공모델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판매 시장의 지역적인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물량과 시장다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보고르(Bogor), 까라왕(Karwang) 지역에 각각 1개의 공장을 운영
- 2019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 공략에도 몰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의 K-Move 사업과 법률자문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거나 현지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한 점도 인도네시아 정착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

○ **실패사례: 현지법인 수익성 악화로 사업 철수**

- A 그룹은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 B사의 인도네시아 법인을 매각했음
- 지난 5년 간 100억 원의 누적 손실액이 발생할 만큼 수익성이 악화되어 2018년 하반기에 B사의 현지 식품 생산법인인 C사를 청산했음
- C사는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 업체로 B사가 2013년 말에 B사 지분 90%를 D사로부터 인수한 회사임
- 인수 이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에 식품 가공 공장을 신설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96%까지 지분을 늘림
- 그러나 5년 연속으로 C사의 매출 실적은 총 100억 원에 달했으며 현지 법인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자 2차례에 걸쳐 전 지분을 매각하기로 함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 코로나19 방역 공동 대응 및 경제 협력

- 현지 진출 기업 및 한국 정부 주도로 지속적인 방역물품 기부 중, 조코위 대통령 정상통화를 통해 지원에 감사 표시(2020년 4월)
- 양국 간 기업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포함한 기업인 신속입국절차 합의
- 현지 진출한 국내 제약사와 현지 제약사 간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임상 2차 진행 중, 2020년 9월)

### □ 신(新) 남방정책의 핵심, 인도네시아와 주요 협력 의제 본격 이행

- 인도네시아는 현재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핵심 수출 및 투자 국가임에 따라 1년 안에 양국 대통령의 한, 인니 국민 방문 성사

#### 한-인니의 활발한 경제협력 추진

-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4위 투자(FDI) 국가, 7위 수출 상대국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최초 해외 투자대상국이며 최초 해외유전 공동개발 국가이자, 제1호 플랜트 수출국
- 전략적 동반자 관계(2006년)→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2017년)로 관계 격상
- 코로나19 공동 대응 활발 논의 중(백신 공동개발, 방역물품 지원 등)
- 2019년 11월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

- 2017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국민 방문했으며, 2018년 9월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한국을 국민 방문하여 양국 간 주요 협력 의제를 논의했음
- 2018년 8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국무총리로서는 최초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석, 조코위 대통령과 이례적으로 4차례의 만남 성사
-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 참가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 성사
- 2017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ASEAN) 국가와 협력을 미·중·일·러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新) 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 합의
- 양국의 대통령은 한-인니 경제협력 안건이 포함된 공동비전성명을 발표했으며 '산업협력 MOU', '교통 협력 MOU', '보건의료협력 MOU'을 체결하고 양국 경제주체 간 경제협력을 위한 14건의 양해각서(MOU), 거래조건협정서(MOA), 계약 등 14건 체결
  - 14건의 협약에는 공공주택, 전력 발전소, 할랄, 금형분야 산업기술협력, 전자상거래, 조선 산업 협력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
- 뒤이어 2018년에 한국을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를 재확인하고 상생과 미래·성장·번영을 목표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양국 정부 간 출입국, 경제, 인사행정, 법제교류, 해양안보, 산업혁신 연구 협력에 대한 6건의 MOU를 체결했으며, 한-인니 기업 및 경제 기관은 62억 달러(약 7조 원) 규모, 15건의 양해각서(MOU), 거래조건협정서(MOA), 계약 등을 체결
  - 15건의 협약에는 제조업 협력 확대, 인프라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협력 강화, 공정 무역을 위한 협력 강화, 스타트업·창업 협력 강화, 전력 발전소, 화장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신도시·역세권·주거시설·부동산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
- 2019년에는 2017년과 2018년에 양국 간 국민 방문 시 체결된 MOU 및 각종 다이얼로그를 기반으로 에너지·교통 인프라, 투자·통상협력, 인증, 전자상거래 협력, ICT, 과학,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기관·기업차원의 세부 협력 강화 및 협력 체계 심화
- 2019년 6월 28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니 CEPA 연내 타결, 경전철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 제공, 자동차·석유제품 산업 협력, 방산 협력 방안 논의
- 2019년 11월 25~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조코위 대통령 방한을 통해 한 인도네시아 CEPA 협상 최종 타결 선언

#### □ 경제 협력 중심의 한국-인도네시아 6가지 중점 협력과제 발표 및 본격 추진

-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표방하기 위함

-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해 교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6가지 중점 협력과제를 발표
- 2018년 조코위 방한 시, 양국 정상은 양국 간의 중점 협력 과제를 재확인하고 상호 경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 2019년에 이와 관련한 교류가 본격 추진됨
- (경제 교류 강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복원하고 활성화할 것이며, 한-인니경제협력위원회, 한-인니중소기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협의체들을 재편하고 양국 경제부처간 장·차관급 교류가 활발
  - '산업협력 MOU', '교통협력 MOU', '보건의료협력 MOU'를 시작으로 경제협력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협력 강화
- (경제협력 분야 다각화) 기존의 제조업과 자원개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 환경산업, 교통, 보건 등 미래 전략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
  -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의 방위산업 분야, 교통인프라, 보건의료, 의료기술 분야,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디지털 스타트업 분야, 신수도 건설 및 메트로폴리탄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강화
- (기간산업 분야 협력 강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분야의 대(對) 인니 투자 진출을 확대
  - 한국 포스코와 국영 크라카타우 스틸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철소 증설과 롯데케미컬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으며, 2019년에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진출을 공식화 하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생산 공장 건설 중
    - \*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수출국의 비전을 실현하고 한국의 자동차 수출 및 투자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한-인니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 구상
- (사람 중심 경제협력 확대) 조코위 정부 주력 프로젝트인 저소득 주거지역 개선, 발전소 증설, 경전철, 서민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
  - 피레본 1 발전소 같은 여러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며, 도서지역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섬' 시범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도 진행 중임
- (중소·중견기업 교류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예산과 인력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중소기업들의 통관 및 물류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 간 통관 간소화 협정을 체결 제안
  - 한국은 이미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사업을 통해 한국의 산업기술을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 중임
- (교역품목 확대) 경기변동에 민감한 화석 연료와 기초 원자재 뿐 아니라 지속 교역 가능 품목인 기계, 소재·부품, 소비재와 팜오일, 농산물의 교역을 늘릴 것
  - 교역 품목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교역액을 2022년까지 3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500억 달러 이상의 교역 목표 수립 전망

- 2019년 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통상장관이 CEPA 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한데 이어 4월, 한-인니 CEPA 협상이 5년 만에 재개됐으며, 4월에 제 8차 협상, 8월에 제 9차 협상이 진행됐으며, 2019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 선언

## □ 양국 간 경제 협력 관련 사업 내역

### ○ 2019년 한-인니 경제협력 MOU 및 협약 체결 내용

순서	MOU 명칭 (체결기관)	주요 내용
1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MOU (한국 국토교통부-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관련 수도이전 및 개발 협력
2	한-인니 제약바이오 상호 교류 MOU (제약바이오협회-인도네시아제약협회)	○ 기업 간 정보 교류 및 사업 가능 분야 발굴, 수출입 확대에 협력
3	한-인니 교육 및 연구 협력 MOU (세종대학교-Institut Teknologi Bandung)	○ 대학원생 후보자 확대, 학술 협력
4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MOU (한국 관세청-인도네시아 관세청)	○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세관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FTA 혜택 적용
5	국제표준 제·개정 공동연구 및 적합성 분야 기술·정보 교류협력 MOU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 BSN)	○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을 통한 국내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국제표준 제·개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양국의 협력 사업 확대
6	한-인니 자카르타 해안 개발 협력 MOU (KOICA-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 외해방조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수도권해안개발 계획 수립, 기술자문과 인도네시아 사업관계자 역량 강화 지원
7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 (현대자동차-인도네시아 정부)	○ 현대자동차의 현지 공장 설립 협조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정리

### ○ 2020년 한-인니 경제협력 MOU 및 협약 체결 내용

순서	MOU 명칭 (체결기관)	주요 내용
1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사업 협력 MOU (KOICA-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 보건 인력 역량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 ○ 자카르타 소재 코로나19 대응 거점병원(13곳)과 인니 재난방재청에 대한 긴급 의료, 방역장비 지원 △인니 지역 사회 방역역량강화 △취약계층(거리청소녀, 재소자, 격오지 주민 등) 지원 등으로 구성
2	한-인니 EODES(온라인 원산지정보교환) 협약 (한-인니 관세청)	○ 원산지 증명서 온라인 제출 가능
3	정유공장 EPC 개발협력에 대한 MOU (현대엔지니어링-PT Rekayasa Industri)	○ 정유공장 프로젝트 협력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정리

### 강점을 살리고 열악한 환경 및 사업 장애 요인을 진출 기회로 승화(昇華)

- (역량 확대) 청년·디지털을 공략한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강점 활용) 현지 생산·유통·판매를 통한 소비 시장 집중 공략
- (기회 포착) 코로나19, 인프라, 친환경, 스마트 산업, 서비스테크 사업 기회 포착
- (위험 대응) 지속가능발전, 틈새시장 진입 통한 글로벌 무역분쟁 리스크 대응

## 1.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인도네시아 지역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마케팅으로 고객인 청년층 소비를 중점 공략</li> <li>• 한류를 활용한 생활소비재의 유통·판매 경로 다각화</li> <li>• 공유 오피스 및 엑셀러레이터 활용 통한 창업 기회 모색</li> </ul>	청년·디지털을 공략한 시장 진출 기회 확대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정책적 흐름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li> <li>• 글로벌 밸류 체인의 Tier1, 2 시장 진출</li> <li>• 생산기지로써가 아닌 내수생산용 투자 진출 확대</li> </ul>	현지 생산·유통·판매를 통한 소비 시장 집중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교육 서비스와 테크를 결합한 사업 참여</li> <li>• 친환경, 스마트 산업 분야로의 진출 기회 모색</li> <li>• 기술 및 교육지원 통한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 확대</li> </ul>	인프라, 친환경, 스마트 산업, 테크 기반 사업 기회 포착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 가능 발전 모델 개발을 통한 진출 기회 모색</li> <li>• 무역분쟁을 극복한 인도네시아 사업기회 중대</li> <li>• 시장 및 정책의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 리스크 최소화</li> </ul>	지속가능발전, 틈새시장 진입 통한 글로벌 무역분쟁 리스크 대응

## □ 전반적인 시장 특성: 높은 잠재성과 낮은 성과의 이중적인 시장

- 인도네시아는 **다문화가 공존하며 자원이 풍부한** 경제 대국임
  - 해상 교역의 중심지로서 지난 1,000년 이상 중국, 중동, 인도 등 유교, 이슬람, 힌두 문화권의 유입이 있었고, 300년간 네덜란드 지배를 받아 이문화에 개방적
  - 인도네시아는 2억 6천만 명 이상의 인구 세계 4위 규모이며, 연중 기후가 온화해 농업에 유리하고 팜오일, 석탄, 귀금속, 고무, 커피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렴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아세안(ASEAN) 내 최대 경제 규모** 보유
-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으로 사업 여건은 열악한 편
  - 유통 허가 등 인증은 대부분 받기가 까다로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사업 허가 관련 정부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규제에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외국인 기업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음
    -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73위(2019)
  -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콘텐츠 산업 등 창조경제와 관련된 신(新)사업이 유입되는 속도를 정부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임

## □ 2021년 인니 시장 진출 가능성 전망: 기술력·자본력을 활용한 진출가능성 유지

-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지속 여부와 대외 통상 환경이 인도네시아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내년에 재개될 예정인 프로젝트 추가 연기 가능성,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우려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가속화와 내수 성장 위주의 인니 정부 정책도 2021년 인도네시아 진출에 변수가 될 수 있음
-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 원칙에 따른 사업거래방식에 대한 이해 필수
  - 중국과 일본은 정부 기관 및 기업을 통한 각종 무상·유상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국책 및 민간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경향이 있음
  - 제품·서비스의 가격경쟁력 강화, 인도네시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지식 공유를 통한 현지 업계와의 협력관계 구축 전략이 요구됨
- 개인 소비 수준 유지와 인프라 투자로 인해 시장 경제의 붕괴 가능성은 낮음
  - 큰 소득 격차로 소비자의 평균 구매력은 낮음에도 중산층 확대로 구매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도이전계획에 따라 조코위 2기 정부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경기 변동 리스크는 높지 않은 상황임

## □ 2021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전략 개요

- (사업 모델)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시장의 강한 특징은 ‘**높은 가성비**’,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 선호**’, ‘**테크 기반 사업 발달**’, ‘**현지 생산 적극 선호**’임

-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은 현장인터뷰 시 생활소비재 뿐 아니라 기계 부품 등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가성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드헤일링 시장, 전자지갑 시장 등 애플리케이션 기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2021년에는 기존 제조·서비스업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사업이 더욱 유망해질 것으로 전망
- 또한 인도네시아로의 단순 수출 외에 내수 생산을 통한 현지 판매 및 수출 활동으로 사업 모델이 점진적으로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
- **(진출 기회)** 2021년 진출 유망 산업은 생활소비재, 인프라, 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석유화학·자동차, 친환경 산업 등이 될 것으로 전망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건강보험 정책 확대 실시, 인프라 구축 계획, 창조경제 육성 등의 정부 정책과 관련해 수입산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분야 산업에 대한 많은 수요 예상
  - 수입의 무분별한 제한이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어 수요 대비 공급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수입산 콘텐츠 사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조코위 2기 정부에서 확대 이행 예정인 수도 이전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10대 메트로폴리탄 구축 사업, 환경 보호 프로젝트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
- **(창업 기회)** 스타트업 수가 2,200개 내외로 세계 5위 스타트업 시장이며, 고젝(GO-JEK), 토코페디아(Tokopedia), 트래블로카(Traveloka)등의 유니콘\* 배출
  - \*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한지 10년 미만의 스타트업
  - 최근 3년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사업 확장에 성공한 전자화폐 OVO가 2019년 3월에 기업가치 29억 달러로 인도네시아의 5번째 유니콘으로 등극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테크 기반 스타트업 주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조코위 2기 정부는 디지털 경제 육성과 관련,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며,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설립에 관한 규제를 지속 완화할 계획
- **(위기 극복)** 무역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 진출 또는 분쟁국가 간 상호 제재 품목을 분쟁 국가로 수출하는 현지기업으로의 납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2018년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10월에는 EU 에어버스 보조금 사건\*에 의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분쟁이 대두
    - \*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10월 2일, EU로부터 수입되는 항공기에 10%, 스카치위스키·치즈·커피 공구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관세를 부과
  - 2019년에는 부진하였지만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로 생산 법인을 이전하거나 중국 생산법인은 그대로 둔 채로 인도네시아에 생산 법인을 확장 설립하는 고려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 분쟁 요인 뿐 아니라 시장잠재력으로 대(對) 인니 투자 진출 증가 예상

○ **(높은 호감도 활용)** 코로나19로 더욱 더 증가한 한국 호감도 적극 활용

-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함
  - \* 설문 조사 결과, 73%의 응답자가 코로나19가 확산된 3월 이후 한국 드라마 시청 시작, 91%의 응답자가 정기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다고 응답(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 2020년 8월)
- 드라마에 자주 나온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 \*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Tokopedia는 코로나19 이후 떡볶이, 라면과 같은 한국 식품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함(2020년 8월)
- 현지 주요 유통 플랫폼\*에서 한국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광고모델로 내세우고 있음
  - \* Tokopedia(BTS), Shopee(블랙핑크), Luwak White coffee(이민호), Asus(공유) 등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1년 진출전략	
구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디지털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경제 육성에 따른 관련 사업 수요를 진출 기회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업계 유니콘과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 창출</li> <li>- 물류·제조업 사무자동화, 사이버 보안 기술 수요 증대</li> </ul> </li> </ul>
할랄 생활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랄인증 취득 생활소비재 수출을 통한 시장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류열풍 효과가 있는 제품에 할랄인증 취득하여 수출 도모</li> <li>- 인도네시아 할랄 밸류 체인(Halal Value Chain) 진입 시도</li> </ul> </li> </ul>
수도 이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회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디자인 공모 등 도시 계획 공모활동에 적극 참여</li> <li>- 자카르타시 정비와 관련된 스마트·친환경프로젝트 증가 전망</li> </ul> </li> </ul>
친환경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오염 해결 및 환경 보호 사업 아이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플라스틱·배기가스 감축과 관련한 창업 기회 모색</li> <li>- 폐기물 처리시설, 상하수도 프로젝트 확충 정책에 편승</li> </ul> </li> </ul>
ICT 기술 기반 서비스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기술 융복합 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헬스케어 스마트제조시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 기회 발굴</li> <li>- (교육) 도서지역의 높은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에듀테크 사업 추진</li> </ul> </li> </ul>
자동차·오토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생산법인 설립 전략 모색 및 글로벌·대기업 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자동차기업의 진출, 전기차 산업 육성에 따른 진출 전략 수립</li> <li>- 글로벌 브랜드 OEM 제조 생산 및 애프터마켓 진출 기회 모색</li> </ul> </li> </ul>
디지털, 스마트, 친환경, 할랄	메이킹 인도네시아 4.0과 할랄 경제 확대를 통한 제조·인프라 혁신에 부합하는 사업 기회 증대

## 가. 디지털경제 육성에 따른 사업 수요를 진출 기회로 전환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아세안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의 빠른 성장
  - \* 2018년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0% 성장, 가계 소비 성장률이 5% 이하에 비해 급속 성장
- 인도네시아 은행의 디지털 뱅킹 관심 고조
  - \* 은행 침투율이 낮은 인도네시아에서 핀테크를 접목한 금융서비스는 은행 서비스의 대체 수단
- 인도네시아 결제시스템 2025 비전 발표를 통한 핀테크 산업의 체계화 및 집중 개발 전망
  - \* 소·도매결제시스템 및 데이터통합 인프라 구축 예정 뿐 아니라 사이버보안시스템 강화 예상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트렌드) 금융산업 및 전자상거래 규모 성장에 따른 핀테크 시장 성장 기대**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9년 188.3억 달러이고 2018~2023년 연평균 18% 성장이 예상됨
    - \* 출처: statista, 온라인플랫폼 운영 업체 수의 변동은 있으나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활동 제약으로 비대면 거래 대폭 성장 중
  - 높은 예대금리차·순이자 마진 및 낮은 금융서비스 침투율로 인니 금융산업은 불포화상태이며, 전산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시스템과 관련, IT의 중요도가 증가
    - \* 출처: statista, 온라인플랫폼 운영 업체 수의 변동은 있으나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증가
- **(주요 이슈) 최근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디지털 경제 구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온라인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주요 경제 개발 계획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경제 실현을 도모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바이오 산업, 하드웨어 자동화 등의 주요 혁신 전망
  - 2019년 5월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 2025 비전**(Indonesia Payment System 2025 Vision, SPI 2025)을 선포하여 소·도매결제시스템 및 데이터통합 인프라 구축 예정

###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 전략) 디지털 경제 기반의 융복합 사업 개발 기회 포착**
  - 금융산업의 침투율이 낮다는 것은 전통적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핀테크 스타트업 구상 가능성을 시사
  - 전자상거래용 보세 물류창고(PLB)\* 활용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배송 모색
    - \* 인니 정부는 중소기업의 이커머스 사업 독려를 위한 전자상거래용 보세 물류 창고(PLB) 지정(2018년 3월)
- **(유망 분야) 대형 스타트업·금융기업 협력사업, 산업 연계 기술 프로그램**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협력 사업을 통한 유망 SW 시스템 수출 기회 모색
  - 물류산업: 물류 시스템의 정확성, 투명성, 그리고 신속성을 향상시켜 배송추적, 기록, 저장 등 물류 서비스 개선 도모 위한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공급망 확보 프로그램

- 사이버 보안, 전자정부, 전자지갑(e-Wallet), 라이드헤일링(Ride-Hailing) 관련 프로젝트

## 나. 할랄인증 취득 생활소비재 수출을 통한 시장 진출 확대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산 가공식품 및 화장품 수입 실적 증가
  - \* 2018년 기준 수입 시장 점유율 한국산 라면 1위, 화장품(HS 3304) 시장 점유율 5위
  - \* 한국의 불닭볶음면 라면 브랜드 점유율 3위(2017년)
- 무슬림 인구가 전체의 87% 이상으로, 할랄 제품 판매가 마케팅에 긍정적인 영향 미침
  - \* 2024년 10월 이후부터는 할랄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할랄 인증 취득이 중요해질 것
- 식품·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고 인니 정부의 10대 주력 육성 산업군으로 내수 생산 독려 추세 강화
  - \* ODM, OEM 제조공장 설립을 통한 수출 기회 모색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 (트렌드)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가공식품과 화장품의 수입실적 증가

- 한류 열풍 지속,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성화, 소셜네트워크(SNS) 홍보로 인한 한국산 가공식품 및 화장품 인지도 증가
- 코로나19로 한국 드라마 시청 비율이 높아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
  - \*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Tokopedia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산 가공식품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함
- 인도네시아의 할랄 소비재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음
  - \* 2017년의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은 총 2,818억 달러로 1,888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6년 대비 49.3% 증가(Global Islamic Economic Report, 2019년 5월)

#### ○ (주요 이슈) 생활소비재에 대한 내수 생산·판매 독려 강화 및 할랄마크 영향력 증가

- 화장품·가공식품의 선납법인세(PPh 22) 3~4배 상향 조정(2018년 9월)
  - \* 화장품류(HS 33,34) 2.5%→10%, 가공식품류(HS 16~22) 2.5%→7% 조정
- 화장품·식품·의약품에 대한 할랄 인증 유무 의무 표기 제도 도입(2024년부터 단계별 도입)
  - \* 제품의 할랄 여부가 판매 성사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 (진출 전략) 인도네시아로 판매하려는 소비재는 할랄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

-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 한류에 관심 있는 청년층을 겨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출
- 한류는 문화 마케팅의 일환이나, 이슬람 교도가 대다수인 국가에서 아이돌 가수의 복장, 퍼포먼스, 언행 등이 샤리아 율법에 위배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 제품의 할랄 여부는 바이어의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정책에 따라 할랄 제품의 경우는 반드시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할 것
- 할랄 인증 취득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됨으로 시장 진출 전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 후 인증 취득여부를 결정해야 함

- 현지 ODM, OEM 제조공장 설립을 통한 화장품 원료 수출 기회 및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
- **(유망 품목)** 최근 3년간 대(對) 인니 수출이 증가하고, 현지 이슈에 부합하는 품목
  - 화장품: 마스크팩 포함 스킨케어 제품, 색조화장품, 파우더 메이크업 제품 등
  - 가공식품: 라면, 시리얼, 시즈닝·장류 등 소스류, 즉각 음용 가능 음료수 등

## 다. 도시 개발 계획과 관련한 프로젝트 참여 기회 물색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8월, 동부 칼리만탄으로 수도 이전 발표
  - \* 수도는 뿌나잠 빠사르 우따라(Penajam Paser Utara)군과 꾸따이 까르따느가라(Kutai Kartanegara)군에 이전될 것
- 신수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각종 프로젝트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상하수도 시설, 도로, 대중교통, 주거지, 사무빌딩, 녹지, 쇼핑몰, 전시장, 박물관 건설 수요 증가
- 인구과밀지역으로 공해문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문제를 겪는 자카르타 시 정비 프로젝트 증가 전망
  - \* 폐기물 처리시설, 스마트 시티 구축, 경전철(LRT) 및 고속철(MRT) 건설 사업 지속 예정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자바섬에 몰리는 인도네시아 인구, 산업, 경제를 전국으로 분산시키면서 각종 공해 및 인프라 부족 문제로 시민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카르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의지가 강함
  - 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으나, 인프라를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간주하는 **조코위가 재선에 성공**하며 수도 이전 본격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수도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1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2019~2045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절차(안)

- 전체 계획: 2019년에 타당성 조사, 도시 설계, 예산 할당, 부지 확보 작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 법규 개정 및 입찰 공고 준비, 2021년에 통신 인프라 등 각종 프로젝트 입찰 절차 진행, 2021~2022년에 신도시 건설 착수, 2024년에 다수의 정부기관을 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 2029년에는 4만 헥타르 규모까지 개발 목표 달성을 통해 2045년에 수도 이전 작업을 완료
- 개발 단계
  - 2021~2024년: 대통령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전 및 중앙 공원, 식물원 조성을 위한 2천 헥타르 규모의 중심부 개발
  - 2025~2029년: 공무원 주거지역, 인도네시아 군대 및 경찰청 본부 이전을 위해 개발 부지 면적이 4만 헥타르 규모로 확장될 것임
    - \* 여기에는 대사관 지대, 교육 및 의료시설, 대학교, 사이언스테크노파크, 친환경 및 하이테크 산업 개발 관련 장소, R&D센터, 전시장, 박물관, 스포츠경기장, 쇼핑몰, 군부대 시설 등이 포함될 것
  - 2030~2045년: 광역 도시(메트로폴리탄) 구축 단계로 주변 주정부 관할 지역과의 연결 작업과 관련
    - \* 개발 부지 면적을 20만 헥타르까지 확장하며, 이 개발 단계에서는 국립공원, 오랑우탄 보존 지대, 비정부기관 종사자 정착 클러스터 등을 구축하게 될 것

- 예산안: 466조 루피아(329억 달러) 또는 323조 루피아(228억 달러) 예상하며, 신수도에 대한 자금조달(financing)은 국가 예산보다는 민간 영역, 국영 기업, 그리고 기업체와의 정부 협의체(Kerjasama Pemerintah dengan Badan Usaha, KPBU)을 통해 주로 이뤄질 것임

##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 전략)** 신수도 구축뿐만 아니라 자카르타 및 광역도시 프로젝트 기회 모색
  - 신수도 설립에 따른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이지만, 조코위 정부의 지역균등발전 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의 광역도시(metropolitan) 설립사업 참여 기회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 당국(BAPPENAS)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사업 계획 정보 획득 및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전략 구상 가능
- **(유망 분야)** 지속가능개발이 가능한 프로젝트 분야
  - 스마트(IoT), 통신, 물류, 대중교통, 지능형 교통체계, 건설, 전력, 상하수도 등

## 라. 환경오염 해결 및 환경 보호 사업 아이템 발굴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도네시아의 해양 폐기물 규모는 현재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위를 차지
  - \*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반면 처리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조치로 갈 곳을 잃은 '선진국발 쓰레기'가 인도네시아로 몰림
  - \*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2018년에 전년 대비 3.5배로 급증
- 인도네시아 대기 오염 수준은 AirVisual 상위 3위권에 드는 경우가 많은 편임
  - \* 산림이 전체 토지의 60% 이상으로 산림 화재 취약,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오토바이 분진 많음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트렌드)** 최근 3년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증가
  - 유통업자 및 소비자를 중심으로 바나나잎 포장재 활용, 카사바잎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봉지, 대나무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및 식기 사용 등의 움직임이 증가
  - 패스트푸드점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운동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음
  -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스테인리스 또는 유리 소재 생활소비재 판매 증가
- **(주요 이슈)** 정부와 민간 차원의 환경 보호 인식 개선 노력 증가
  - 인도네시아 발리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발리는 지난해 12월 플라스틱 빨대와 스티로폼,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채택
  -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 비닐포장지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고 있어 2020년 7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됨(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플라스틱 용기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임

- 2019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소매유통협회(Aprindo)가 편의점 등 미니마켓 체인점과 대형의류, 가구점을 중심으로 고객이 비닐봉지 1개당 200루피아(1,5미화 센트)를 부과하는 캠페인 동참 요구
- 2019년 8월에는 에너지효율화, 내수 산업 생산성 증대, 투자유치 뿐 아니라 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전기 육성 계획 및 관련 촉진법 발표

##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 전략)** 환경보호 인식 제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수요에 대응
  - 해당 사업 개발을 위한 협업에 관심이 많은 현지 기업체들과 지자체 및 중앙 정부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사업은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고용창출로 연결되어 사업 운영자 또는 투자자들이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유망 분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연동 사업 또한 구상해볼 수 있을 것
  - 인도네시아의 전자지갑 또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쓰레기 줍기, 재활용 또는 친환경 소재 제품 사용 인증 장면, 환경 보호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유망 사업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 마. ICT 기술 융복합 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최근 5년 간의 의료 산업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 정부의 예산 확대 투입, 의료 인니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의 공보험 가입률 확대, 병원 수 증가
-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성장 전망
  - \* 원격 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한 명확한 규제가 부재해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애플리케이션 성행
- 인도네시아 교육 예산 규모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을 접목한 교육서비스가 유망할 것
  - \* 약 18,000개의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있는 지리적 특성과 인터넷 접근성 증가로 에듀테크 수요 증가 전망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의료 이슈·트렌드)** 정부는 전체 정부 예산의 약 5%를 ‘의료산업’에 할당,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험공단 (BPJS Kesehatan, 보건의료분야 사회보장기구로 직역)이 운영하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현지인들이 보험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이전보다도 병원 진료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됨\*
    - \* BPJS Kesehatan 보험제도 시행 효과: ①만성질환의 치료 속도 개선, ②1차 진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선, ③암·비만·당뇨와 같은 비전염성 질환의 치료율이 상승
  -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온디맨드(On-demand)형 프로그램을 통한 처방약 배달, 원격 의사 상담, 병원 및 건강증진센터 예약 등의 서비스 발전 중

### 인도네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 구축 최신 트렌드

Tanyadok(병원 예약), Halodoc(의사 상담), ALODOKTER(병원추천, 의사상담), OVULA(여성 건강관리), Homecare(요양사 알선), Gomed(처방약, 의약품 배달), FITNESSIA(피트니스, 스파, 살롱 예약), Doogether(맞춤형 피트니스 센터 예약), Medi-Call(환자 이송, 의료진 가정방문), dokter.id(헬스케어 정보 제공, 증상체크), medika(의사상담, 병원예약), YesDok(24시간 의사상담)

- **(교육 이슈·트렌드)** 정부는 전체 정부 예산의 약 20%를 ‘교육산업’에 할당하고 있으며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및 디지털 경제 개발 계획은 에듀테크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최근 인도네시아의 에듀테크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에듀테크 모델 구축 최신 트렌드

- 1) Quipper와 Zenius와 같이 비디오 형태의 영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 2) Scline과 Bahaso와 같이 영상 채팅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외국어 교육 육성
- 3) HarukaEdu, Kelase, Class Kita와 같이 일반 대중과 특별 이용객이 모두 접근 가능한 이러닝 플랫폼 구현
- 4) Quintal, Aimis와 같이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학교에서의 교수(teaching)과 학습활동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구축
- 5) Sukawu와 PrivatQ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이용객을 튜터(과외교사) 또는 양질의 과정과 매치메이킹을 돕는 에듀테크 플랫폼
- 6) Ruangguru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시행하는 에듀테크 플랫폼

##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 전략)** ICT, IoT 기반 교육·헬스케어 분야 기술 지식 공유를 통한 관련 기자재 수출 기회 모색
- **(유망 분야)** 헬스케어 IoT 보안 시스템, 앱(App)기반 병원·학교 운영 시스템, 보안 관련 기자재·프로그램, 온디맨드형 서비스 플랫폼, 직업훈련프로그램 등

## 바. 자동차 현지 생산법인 설립 전략 모색 및 글로벌·대기업 공략

###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도네시아 자동차·오토바이 업계는 일제차의 점유가 지배적임
  - \* 일제 저가형 조립 자동차, 오토바이가 현지 시장의 최소 98% 이상 장악해 타 국가 기업 진입 난해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을 통한 내수 생산 확대 독려 중
  - \* 완제차(CBU)보다 완전조립형 반조립제품(CKD), 불완전조립생산(IKD) 부품 수입 선호
- 에너지 절감, 대기 오염 등의 문제로 전기차 개발 계획을 지속해오다가 전기차 산업 개발 촉진법 발표
  - \* 2013년에 저비용 그린카(LCGC) 도입, 2016년 8월 전기충전소 최초 도입해 1년 간 542개 충전소 설립, 2019년 8월 전기차 법 최초 제정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트렌드)**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지만 인도네시아 자동차·오토바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됨
  -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시장 규모는 아세안(ASEAN)에서 가장 크며, 일본계 제조기업의 자동차·오토바이 분야 시장 점유율은 98% 이상
  - 판매시장에서 세단 차량의 비중은 0.6%로 낮으며 4X2 차량은 약 75%\*로 가장 높음
  - 현지 생산 차량은 CKD, CBU 형태로 대부분 **중동 및 아세안 국가로 수출**됨
  -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육성정책에 따라 몇몇 전기차는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
    - \* 테슬라 모델 3(약 1억 1천만 원), BMW i3s(1억 원), 현대 아이오닉(4천 5백만 원)
- **(주요 이슈)** 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완성차 수입 줄이고 내수 조립 생산 독려
  - 인도네시아 자동차·오토바이 시장 규모가 매우 큰 반면 일본 기업의 장악으로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정부에서 내수 성장 위해 다양한 브랜드 도입 의지
  - 2017년에 자동차 부품 수입 장려를 위한 수입 관세율 유지 또는 인하
    - \* 완전조립생산(CKD) 자동차 부품의 수입 관세 현지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7.5% 유지, 불완전조립생산(IKD) 부품의 경우 0%까지 인하
  - 2019년 완성차 수출 절차 완화, 자동차 부품 수출입 절차 완화, 선도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규정, 전기자동차 산업개발 촉진법을 발표하면서 정부 당국은 자국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활동 본격 지원 착수
    - \* 해당 보고서 "정책·규제 환경" 부문 참조
  -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타결을 통해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 및 자동차부품, 합성 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 예정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 전략)** 대·중·소 동반진출 전략 및 액세서리 등 부가 제품 수출
  - 우리 기업 진출 밀집 지역에 생산 법인을 설립하여 물류비용 절감 효과 도모
  - 차량용 예비 부품을 취급하는 애프터 마켓으로의 진출 전략 모색
  - 차량 부착용 TV 모니터·고성능 오디오 등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있는 독립 기능의 액세서리, 윤활유, 차량용 페인트 등의 부가제품 수출 모색
- **(유망 품목)** 완제품 보다는 고품질 부품 및 차량 관련 품목 위주
  - 기본: CKD·IKD용 부품, 연산축전지, 리튬배터리, 컴프레서, 에어컨 장치 등
  - 관련품목: 인포테인먼트 제품(시청각 장치), 윤활유, 휘발유, 차량 코팅제 등



### 3. 한-인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가. 현지 K-방역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한 의료기기 시장 진출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방역 관련 지속적으로 협업 중
  - \* 조코위 대통령, 한국의 코로나19 지원에 감사표시(4월), 한국 외교 차관보 인니 방문 통해 협력 논의(9월)
- 코로나19 대응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예상
  - \* 초기 방역물품 위주 기증에서 현재 백신 공동개발 협업 중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전 세계 20위권으로 10월에도 약 4,0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36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2020년 10월 20일)
- 한국의 K-방역의 주요 국가로 현지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 진행 중
  -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4월, 한국 정부는 방역 물품 수출 및 인도적 지원 요청국 117개국 중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4곳을 선정하여 우선 지원(2020년 4월)
  -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코로나 방역 물품 기부 활동으로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방재청에서 대사관에 감사패 전달(2020년 10월)
  - 한국 기업과 현지 제약사간 백신 공동개발 진행 중, 현재 임상시험 준비(2020년 10월)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단순한 K-방역 편승 세일즈가 아닌, 현지 실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 위주 진출 전략 수립 필요
  - 일부 방역 품목의 경우 국내 기대와 달리 일부 수요만 존재
    - \* 한국산 마스크 제품의 수입 비중은 전체의 약 2% 정도로 미미한 비중(2020년 7월)
    - \* 손세정제 현지 조달 역량 확보로 긴급수입통관 물품에서 제외(2020년 7월)
  - 한국산 체외진단기 및 시약, 방사선 촬영기기 등 현지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 대상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 중국산 PCR 키트 품질 문제로 한국산 키트 수요가 증가하여 수입의 22% 차지(2020년 7월)
    - \* 인도네시아는 약 90%정도의 의료기기를 수입에 의존, 한국산 제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2020년 7월)
- 계속해서 변경되는 정부정책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의료기기의 경우 유통허가(IPAK)를 보유한 수입업자가 인·허가 진행 가능
  - 향후 의료기기 국산부품 사용비율 증가 예상에 따른 현지화 전략 고민 필요

## 나.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스마트 제품·시스템 수출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정보통신 및 사물인터넷 분야의 본격적 육성
  - \* 스마트 홈·시티(city) 및 전자상거래 체계 구축 완성, 제조산업 육성 위한 산업자동화 추진
- 사물인터넷, 정보통신 기술과 접목한 도시 계획 개발 추진과 관련한 행사 진행
  - \* 2017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스마트 시티 관련 전시회 개최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도 개최했음
- 2018년 9월 인니 조코위 대통령은 방한 당시, 한국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촉구
  - \*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2016~), 지능형 교통체계(ITS) 협력 MOU(2018), 녹색기술협력거점센터(2019년 8월)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정보통신기술(ICT) 및 사물인터넷(IoT)과 접목한 도시개발사업 개발 확대 예정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과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수도 이전, 스마트 도시 환경 마련을 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 추진
    - \* ITS Korea와 ITS Indonesia간 한-인니 간 지능형 교통 체계(ITS) 협력 MOU 체결(2018년 9월)
  - 2017년 인니 최초의 스마트 전시회\*를 개최, 2020년에 제 4회 전시회 개최 예정
    - \* 산업부, 빅데이터협회, 자카르타 스마트시티가 후원하는 Indonesia International Smart Home, Building and City Technology Exhibition로 매년 3~5월 자카르타에서 개최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스마트 제품과 관련된 하이테크(Hi-Tech) 시장\* 공략으로 인니 스마트 시티 사업 참여
  - 단순 수출 뿐 아니라 지식 공유, 네트워킹, 컨설팅 수행 등으로 사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상호 작용을 통한 한국발(發) 고성능 제품 및 콘텐츠 수출 모색
    - \* 2018년 인도네시아 하이테크 시장 규모는 650.3조 루피아(USD 465억)이며 2016~2025 시장 성장 속도는 아세안 주요 17개 경쟁국 중 8위(한국 6위, 일본 17위)로, 1·2차전자 분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전망(유로모니터, 2019)
- 2020년에는 전통적인 제조·건설 현장 시스템에 사물인터넷(IoT) 개념 도입, 산업자동화 및 효율성 증대 목적의 스마트 기자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개인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수도 이전 인프라 및 자카르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필요한 통신 장비,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 처리 시스템, 사무빌딩 및 주택의 IoT 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 관련 ICT 기자재 등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
  - \* 2015~2017년 수입 증가 스마트 품목은 건물용 도어락, 음성·영상 자료 변환기기, 자동 차단기, 전기스위치, 비휘발성 기억장치, 스마트 카드 등

## 다. 제조업 분야 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판매·수출 기회 창출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연·천연자원을 기반으로 가장 큰 경제성장 동력은 제조업 분야임
  - \* 인도네시아 GDP 중 제조업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음료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음
-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5대 산업 및 선도산업 투자 유치를 적극 희망
  - \*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투자진출 추진(2019) LG 전자 제조공장 이전(2020년)
- 중공업 뿐 아니라 생활소비재와 같은 경공업제품의 투자 진출을 통해 양국 간의 이익 증대
  - \* 특히 수요가 높은 한국 화장품의 현지 생산 공장 설립으로 수월한 판로 개척 도모 및 물류 비용 절감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도네시아 산업의 최대 경제 성장 동력은 제조업(GDP의 19.7%)임
  - 제조업에서 식음료 분야 차지 비중은 32.5%이나, 화학·제약(8.5%), 금속·전자·정밀기기(8.5%), 기계 분야(1.5%)는 상대적으로 부진(2019년 기준)
- 부진한 제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국산 콘텐츠 비중을 높이기 위해 상기 분야로의 투자 유치를 적극 희망
  -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에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분야로의 투자진출 촉구했고, 한-ASEAN 정상회의 방향기간 동안 일부 사업에 대한 협약\*이 체결됨
    - \*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진출 공식 선언(2019년 11월)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국의 4차 산업 융합 혁신 제조업계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제조업계 간 파트너십을 체결해 조달 가능한 자재에 한해 저렴한 인니 산(産) 원자재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생산 공정 기술을 전파해 제조업 상생 협력 체계 구축
- 정부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 중인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주력 제조분야\*로 투자 진출해 현지 조달 불가한 원자재·자본재를 인도네시아로 수출
  -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7대 산업: 식음료, 자동차, 섬유봉제, 전자, 화학, 의료기기, 제약

## 라. 대중소 동반 진출 협력 사업을 통한 시장 진출 확대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니 대도시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인니 간 협력 가능성 높음
  - \* 한국 컨소시엄의 자카르타 경전철(LRT) 구간 건설, 현대로템 경전철 사용, 서울메트로-MRT자카르타 MOU
- 35,000MW 발전 프로젝트가 연장되면서, 관련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수력 발전 등 에너지 프로젝트 다각화
- 우리 대기업 또는 인프라 분야 공기업이 인니 공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 \* 우리 기업 참여 프로젝트와 관련, 관련 자재 및 장비 수출 여건이 일반 수출보다 호조적일 것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인니 기업 및 유관기관 간 인프라 사업 구축 위한 다수의 협약\* 체결
  - 2017~2018년 양국 정상방문 시 체결된 29건의 사업 협약 중 20건이 인프라 분야
    - \* 우리 대기업·공공기관과 인니 국영기업·대기업 간 전력생산·ICT·부동산·상수도·교통 인프라 개발 구축 관련 내용
  - 인도네시아 최초 지하철인 자카르타 경전철(MRT)이 2019년 3월에 개통되면서, 2021년에는 철도 사업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과의 협력 기회가 증가할 것임
    - \* 서울메트로-MRT자카르타 MOU 체결(2019년 8월) 통해 운용통제센터의 개발과 운영, 차량과 차량 기지의 정비 능력 제고, 빅데이터의 자동 분석 시스템 구축,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의 운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 예정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인도네시아 시장에는 거대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있는 관계로, 유력 바이어들은 브랜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 이로 인해 중소기업 단독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의 대 인니 주력 수출제품이면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제품의 수출을 위해, 대기업 상사군 및 에너지·수자원·철도 공기업과의 동반 진출 전략을 권장
  - 이에 초기 진출 시에는 상기 주체 브랜드를 활용한 인니 인프라 시장 진출을 권장

## 마. 창업 인프라 지원 및 지속가능개발 스타트업 협력 통한 진출 확대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도네시아는 2020년 10월 기준 세계 5위 스타트업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코워킹스페이스 보유
  - \* COHIVE(구 COCOWORK)는 현재 인도네시아 유명 코워킹스페이스로 발돋움함
- 조코위 대통령 방한 시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 신설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활성화 기대(2018년 9월)
  - \* 한-인니 젊은 세대의 교류 증진을 통한 취·창업 기회 확대, 2019.10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영리더스 다이얼로그 개최
- 한-인니 지속가능개발 스타트업 구축 협력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 \* 인도네시아는 사회적 약자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조코위 대통령은 국민방한 시 한-인니간 '영 리더스 다이얼로그' 신설 촉구
  - 양국 간 젊은 인력의 교류 증대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유엔·MIKTA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합의(2018년 9월)
- KOTRA와 COHIVE(구 COCOWORK)은 한-인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고 있으며, 2018년 12월과 2019년 7월에 인니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캠프를 개최했음

##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KOTRA-Tech in Asia 프로그램을 이용해 창업 시설 및 엑셀러레이터·스타트업 투자가 접촉을 늘려 현지 창업 성공 확률 증대 노력
  - 인도네시아에도 엑셀러레이터와 대기업이 주관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존재하나 각종 애로사항\*으로 외국인의 이용 확률이 저조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
    - \* 외국인 노동 비자 문제, 외국인으로서 영리활동을 할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정 존재
  - 조코위 대선 공약(2019.2)인 '1,000개 스타트업 설립 프로젝트' 위한 스타트업 규제 완화 노력과 RPJMN 2020~2024 실행 계획 중 하나인 '유니콘 스타트업 3개 설립' 목표 달성과 관련해 제정 될 정부 규정을 활용
- 지속가능개발을 목표로 한 스타트업 구축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
  - 인도네시아는 사회적 약자 고용, 농촌 경제 부흥, 환경오염 해소 및 보호 등 지역사회 환원형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 Gojek(2019년 9월), Smash(2019년 9월), iGrow(2019년 9월) 사례 분석 기사 참조(KOTRA 해외시장뉴스 → news.kotra.or.kr에서 열람 가능)
  - 현존하는 지속가능 개발 스타트업과의 협업 가능성 및 자금 투자, CSR활동에 관심이 높은 글로벌·현지 대기업과 엑셀러레이터로부터의 자금조달 기회를 포착해 테크 기반의 지속가능개발 스타트업 단독 설립 등의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기회 증대

###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RCEP 및 한-인니 CEPA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교역 증진 도모 예정
  - \* 11년째 한-아세안 FTA를 통해 상호 특혜관세를 적용 중이며 최근 RCEP 및 한-인니 CEPA 협상 중
- 한-인니 간 현재 180억 달러의 교역 규모에서 2022년까지 300억 달러로 확대 기대
  - \*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의 유·무형 재화 교역 확대를 위한 한-인니 정부 차원 프로그램 신설 기대
-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인니의 협동조합 상생번영과 관련, CSR을 활용한 일거양득 전략 구사 가능
  - \* 협동조합 기술전수 및 저비용 현지 생산 전략, 샘플형태의 제품 납품 후 비즈니스 교류 확대 전략 등

##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가공 단계를 거친 에너지원이나 가성비가 뛰어난 제조용품을 주로 수출하며, 인도네시아는 주로 천연자원과 노동집약산물을 한국으로 수출\*
  - \* 양국의 주 교역 품목은 석유·석탄·가스, 수송기계(선박), 합성수지, 편직물, 기계 및 부품 등
- 한국의 문화콘텐츠와 한류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대 인니 진출 증가 추세
  - 모바일을 활용한 웹툰 시장은 한국산 콘텐츠 및 플랫폼이 지배적\*이며, 한류 대표 품목인 화장품의 수출과 연예인 초청 행사가 최근 3년간 두드러짐
    - \* 2015년 진출한 라인(LINE) 웹툰이 인니 웹툰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했으며 웹툰 시장을 네오바자르, 토니웍스 등의 한국 웹툰 플랫폼과 콘텐츠가 지배

##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CSR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니 진출 확대
  - 인니 협동조합을 상대로 제품 가공 기술을 전수하고 저비용으로 현지 생산을 도모하거나, 낙후 지역에 필요한 제품을 샘플형태로 납품 후 제품 인지도 상승으로 정부 또는 현지 대형 바이어 구매 도모 전략\*
  - \* 사례: 커피, 코코넛설탕 등 마을 부존자원 가공, 소형 발전기, 전등, 마스크, 교육 기자재 납품
- 교역과 문화 교류를 접목한 판촉전·수출상담회 참여로 바이어 발굴 기회 확대
- 인도네시아 문화·역사·종교 등 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금기사항이 포함된 비즈니스 활동이나 유·무형 아이템 판매를 피하고, 우호적인 라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동과 상품·서비스 수출 권장
- 2007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AKFTA) 및 2019년 하반기 최종 타결이 된 한-인니 CEPA (IK-CEPA)의 상품 수입 관세 절감 또는 면제 효과를 활용 가능하며, 이는 제조·수출 목적의 투자 진출 기업의 한-인니 교역 실적을 증대시킬 것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0(AKFTA)
기초화장품, 메이크업용 제품류	수입액 (2019/US\$백만)	232.1	대(對) 한 수입액 (2019/US\$백만)	25.0
	선정사유	SNS마케팅과 한류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 인기상승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對) 인니 한국산 기초화장품·메이크업 제품 수출 폭발적 증가 - 25.0백만 달러(2018) → 34.3백만 달러(2019)</li> <li>2020년 1~7월 대(對) 인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 한국산, 인니 수입 시장 1위</li> <li>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브랜드 진입 증가 추세</li> <li>브랜드와 품질경쟁력이 우선시되나 최근 저렴한 중국산 급증</li> <li>화학적분보다는 식물추출 천연성분이 들어간 기초 제품을 선호</li> <li>한국 마스크팩 제품이 특히 인기로 한국 모델이나 한글을 사용한 마케팅 전략 활용 추세</li> <li>더페이스샵, 에뛰드하우스 등 한국 코스메틱 기업의 인도네시아 몰 입점</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제품의 점유가 지배적</li> <li>주요경쟁사: 로레알, 샤넬, 에스티로더, 더바디샵, 시세이도, Wardah, 바이어스도프(니베아), 유니레버 등</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셜인플루언서 활용을 통해 제품 인기 타진 후 진성 바이어 발굴</li> <li>* 2020년 1월 부 역직구물 면세 한도 FOB 3달러 미만으로 축소</li> <li>신할랄인증 및 BPOM(필수) 인증 철저히 대비할 것</li> <li>차후 시행될 화장품 대상 신할랄인증법(할랄인증여부 의무표기)에 대한 대비 필요</li> <li>할랄인증의 경우 제품별로 개별 인증 취득 필요</li> <li>인도네시아 기후 및 환경에 적합한 제품 개발 전략</li> </ul>			
품목명 2	HS Code	901890	수입관세율(%)	0(AKFTA)
내과·외과·치과용 진단기기	수입액 (2019/US\$백만)	381	대(對) 한 수입액 (2019/US\$백만)	18.1
	선정사유	내수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품목군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 대(對) 인니 한국산 의료용 진단기기 수출 지속적 성장 - 17.0백만 달러(2018) → 18.1백만 달러(2019)</li> <li>최근 5년간 한국산, 인니 수입 시장 6위(2015~2019)</li> <li>다수의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제품을 수출 중임</li> <li>품질경쟁력이 중요한 요소이며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시장임</li> <li>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 성장 및 국민건강보험(BPJS Kesehatan)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에 관련 제품 수요 증가 전망</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제품의 점유가 지배적</li> <li>주요경쟁사: GE Healthcare, Pfizer, Siemens, Philips 등</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협력사업(PPP) 형태의 의료 분야 프로젝트 참여 또는 진성 의료기기 유통업자 발굴 통한 수출 기회 확대</li> <li>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험(BPJS Kesehatan)정책 숙지 필요</li> </ul>		
품목명 3	HS Code	850710	수입관세율(%)	0(AKFTA)
연산축전지	수입액 (2019/US\$백만)	57	대(對) 한 수입액 (2018/US\$백만)	15.3
	선정사유	수송기계(자동차, 오토바이 등) 주요 부품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대(對) 인니 한국산 연산축전지 수출 규모 - 12.4백만 달러(2018) → 15.3백만 달러(2019)</li> <li>2020년은 2019년 대비 1단계 하락한 전체 수입 2위 차지(20.53%)</li> <li>품질도 우수하면서 단가가 높지 않아야 하는, 가성비를 높여야 바이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품목임</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태국, 인도, 미국 제품이 한국산 다음으로 많음</li> <li>중국, 인도 제품 시장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 기록</li> <li>주요경쟁사: GS Battery, Furukawa Indomobil, Yuasa 등</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산축전지 또는 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수송기계 조립사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수출 기회 모색</li> <li>대기오염상황이 심각한 인도네시아에서 친환경 컨셉이 가미된 제품일 경우 현지 수입업자로부터 좀 더 관심을 끌 것</li> <li>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치세(PPnBM)를 면제 및 감면해 주는 새로운 시행령이 2019년 8월 제정되어 2022년 발효 예정으로 관련 정책 모니터링 권장</li> </ul>		
품목명 4	HS Code	852859	수입관세율(%)	0(AKFTA)
모니터·프로젝터(TV수신장치無)	수입액 (2019/US\$백만)	77.6	대(對) 한 수입액 (2019/US\$백만)	9.4
	선정사유	인니 ICT 산업 육성 정책으로 영상 기기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2018년 대 인니 한국산 모니터·프로젝터 수출 증가 후 2019년 소폭 감소(10.0백만 달러(2018) → 9.5백만 달러(2019))</li> <li>2020년 한국 제품은 중국, 태국, 베트남에 이은 4위(2.8백만)</li> <li>품질도 우수하면서 단가가 높지 않아야 하는, 가성비가 중요한 아이টে이며, 영상 기자재 수요 증가로 유망 품목</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한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산 제품이 지배적임</li> <li>특히 중국, 싱가포르산 제품 시장이 최근 3년간 폭발적 성장</li> <li>주요경쟁사: ViewSonic, BenQ, Epson, LG Indonesia, Samsung 등</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수송기계의 일부부품으로 들어가지도 하는 바 관련 제품 제조업체 물색을 권장</li> <li>우리나라 전자제품 취급 대기업 납품을 통해 간접 수출</li> <li>자국산 부품 사용비율(TKDN) 확대 정책에 유의</li> </ul>		
품목명 5	HS Code	901812	수입관세율(%)	0(AKFTA)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입액 (2019/US\$백만)	48.4	대(對) 한 수입액 (2019/US\$백만)	8.9
	선정사유	의료 시장 확대로 고성능 의료기기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 대(對) 인니 한국산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대한 수요 지속적 발생 - 2019년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수입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수입의 3위를 차지 중</li> <li>특히 출생율이 2명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질환 초음파 진단용으로 수요 증가 전망</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중국, 한국, 일본산이 지배적임</li> <li>○ 주요경쟁사: GE Healthcare, Pfizer, Siemens, Philips 등</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emens, GE Healthcare 등 현지 진출한 글로벌 의료 장비 기업으로의 수출 또는 이들 기업에 기(既)납품중인 우리 기업을 통해 간접 수출을 통한 인니 시장 진출 기회 확대</li> <li>○ 인니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전략</li> </ul>

\* 선정기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마케팅팀 및 유망 품목 구매 의사가 있는 현지 바이어 의견 반영

\* 참고: 2020년 데이터는 1월~7월 기준 반영했으며, 경쟁사 및 취급사의 비즈니스 형태는 업체별로 다양함(제조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 무역업자 등으로 유로모니터, indotrading 상위 검색 업체 등을 기반으로 작성)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1		
건설 서비스	선정사유	각종 인프라 추진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건축 협회(Asia Construction Loo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잠재력이 큰 건축 시장으로 선정</li> <li>○ 정부 및 민간 발주 건설 프로젝트가 많아 이에 따른 건설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4차 국가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추진 예정</li> <li>- 35,000MW 규모의 전력발전소 추가 설립 프로젝트의 지속, 전 국토 광케이블 통신 연결 완료</li> </ul> </li> </ul>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기업: Wijaya Karya, Waskita Karya, Pembangunan Perumahan, Adhi Karya</li> <li>○ 민간 기업: Nusa Raya Cipta, Total Bangun Persada</li> </ul>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한-인니 양국 간의 협업 사업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하여 저비용 고효율 건축물 설계에 대한 컨설팅과 건설관리서비스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li> </ul>
품목명 2		
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2014년 공보험 체계 도입, 최첨단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헬스케어 및 보험서비스시장 규모는 172억 1,3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성장* * 유로모니터(2019년 10월)</li> <li>○ 병원 시설 확충 프로젝트가 민관협력사업(PPP) 형태로 발주되며, 해당 시설은 국립암센터, 대학 병원 등임</li> <li>○ 애플리케이션 기반 온디맨드 헬스케어 서비스 등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 인력 부족</li> </ul>
	경쟁동향	Siloam Hospital, Medistra Hospital, SOS Medika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서비스 진출의 대부분은 외국인 지분율이 67%로 제한되어 있어, 진출 전 합작 파트너를 신중히 모색</li> <li>○ 헬스케어 공급망, 의료기관 의료기록 전산화, 원격진료, 고성능 통신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IT 분야 협력</li> <li>○ 제조·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 진출</li> </ul>
품목명 3		
교육 서비스	선정사유	인도네시아 교육 수요에 맞추기 위한 온라인 교육시장 협력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니는 전체 평균 연령이 31세로 SNS 사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li> <li>○ 인터넷 사용자가 10년 전보다 7배 증가한 1.7억 명이고,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8천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음(statista)</li> <li>○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조코위 2기 정부는 교육 서비스의 발전에 관심이 많음</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듀테크서비스 종합 플랫폼: Ruanguru</li> <li>◦ 튜터 매칭 플랫폼: sukawu, PrivatQ</li> <li>◦ 교수활동 관리 플랫폼: HarukaEdu, Kelase, Class Kita</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공동 자격증 추진, 한-인니 고등교육 교환 제도 지원</li> <li>◦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콘텐츠 보급, 유/무선 접속 시스템 구축, 한류 활용 교육프로그램(한국어) 수출 등</li> </ul>
<b>품목명 4</b>		
<b>금융 서비스</b>	<b>선정사유</b>	비대면 금융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기술수요 ↑
	<b>시장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의 빠른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0% 성장, 가계 소비 성장이 5% 이하에 비해 급속 성장</li> </ul> </li> <li>◦ 인도네시아 국민의 금융기관 접근성이 약 50%인 상황으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의 수요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2019년에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막론하고 핀테크(Fintech)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li> </ul> </li> <li>◦ 전자지갑(E-Wallet), P2P대출 서비스 사업이 성행 중임</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니은행: BRI, BNI, BCA, Bank Mandiri, BTN, BI 등</li> <li>◦ 외국계 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UOB, 미쓰비시 도쿄 등</li> <li>◦ 핀테크업체: Buka Dompot, Doku, Inapay iPay 88, iPayMu 등</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 추천, 할부금융, 핀테크 기반 지불결제서비스, 카드사업 등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진출을 위해 엑셀러레이터나 그룹사 등 투자자 물색을 권장</li> <li>◦ 인도네시아 정부 은행·보험 업무 효율화 컨설팅 사업에 참여</li> </ul>

주: 경쟁업체 동향은 유로모니터, PwC, OBG 자료, 업체 및 유관기관 인터뷰 또는 검색 상위 업체를 기준으로 작성

### 첨부 3

## 2021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창업/스타트업	KOTRA-신한퓨처스랩, 이노테크 스타트업 지원사업 * 무역관의 창업캠프 운영, 마케팅 및 현지진출 지원 노하우와 SF의 금융 기반 스타트업 지원 경험, 투자 노하우를 결합한 협력사업 추진	2020년 미정/ 자카르타
2		KOTRA-Tech in Asia 스타트업 콘퍼런스 개최 * 유명 스타트업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우리 스타트업들의 현지 진출 지원	2021년 미정/ 자카르타
3	소비재	ASEAN 메가 디스트리뷰터 초청 상담회 *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부대행사로 추진	2021년 미정/ 자카르타
4		지방 프리미엄 중소기업 화상 B2B 상담회 및 원스톱컨설팅 *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부대행사로 추진	2021년 미정/ 자카르타
5		K-Product/Beauty 특별관 및 인플루언서 활용 K-Goods O2O 판촉전 *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부대행사로 추진	2021년 미정/ 자카르타
6	투자진출	한국 기업 투자지원센터 운영 * 우리 기업의 대(對) 인니 투자 진출 과정 지원	2021년 연중 상시/ 자카르타
7	통상/FTA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 우리 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 및 통관 애로 해소 가이드라인 제시	2021년 연중 상시/ 인도네시아
8	서비스/ 지적재산권	IP 데스크 운영 *우리 기업의 인니 특허 출원 및 파침해 지원	2021년 연중 상시/ 인도네시아
9	취업	K-Move 센터 운영 * 우리 청년의 인니 취업 기회 확대 및 취업 지원	2021년 연중 상시/ 자카르타
10	방산·보안	방산 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 * 방산 시장 조사 및 인콰이어리 발굴, 한국 방산업체 마케팅 지원	2021년 연중 상시/ 자카르타
11	CSR	OVOP(One Village One Product) *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CSR활동 지원	2021년 연중 상시/ 인도네시아

주: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사업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상시 진행 중

## 첨부 4

# 2021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 주요 정치 일정(2021년 주요 정치일정 미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2020년 12월	270개 지역 (9개 주, 224개 지구, 37개 도시)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세계 경제 포럼	2021년 연중	매년 개최
RCEP 협상	2020년 연말	매년 개최
한-인니 CEPA 관련 행사	2021년 연중	의회 비준
제27차 아세안(ASEAN) 노동부 회의(ALMM)	2021년 연중	매년 개최
제12차 한·중·일·아세안(ASEAN) 노동부 회의(ALMM+3)	2021년 연중	매년 개최

### □ 유망 전시회·컨퍼런스·포럼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Railway Tech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2021.3.30.~4.1.	코로나19로 인해 차년도로 연기됨
Inabike (PT Global Expo Management)	2021.3.24.~3.26.	
Indonesia International Trade Show for Automotive Industry(INAPA) (PT Global Expo Management)	2021.3.24.~3.26.	
Tyre & Rubber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2021.3.24.~3.26.	
Indonesia International Motor Show (PT Dyandra Promosindo)	2021.2.18.~2.21	
Indo Marine Expo & Forum (PT Napindo Media Ashatama)	2021.4.7.~4.10.	
Indo Defence Expo & Forum (PT Napindo Media Ashatama)	2021.4.7.~4.10.	
Indo Aerospace Expo & Forum (PT Napindo Media Ashatama)	2021.4.7.~4.10.	

## 1.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 가. 인도네시아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현황

#### □ 인도네시아의 잠재력

- 인도네시아는 정치·경제·지정학적 성장 요인을 균형적으로 갖춘 국가임
  - 대통령중심제인 민주주의 국가로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정치적으로 안정된 편이며, 연 5%의 경제 성장률, 세계 4위 인구수를 보유하고, 오세아니아와 근접하면서 아세안 중심 지역에 위치한 면적 190km<sup>2</sup>의 도서 국가
  - 산림이 전체 면적의 60% 이상으로 팜유, 석탄, 카카오, 커피, 고무 등 자연 자원의 매장량이 세계적으로 많음



- (시장 잠재력)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국가로서 2019년 기준 GDP가 1조 1,190억 달러로 아세안 10개국 GDP의 35.4%를 차지
  -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 신자로서 (세계인구의 12%)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할랄 시장
- 구매력 부족 및 비관세장벽 등 보호주의 정책으로 수입 비중은 타 동남아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생산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등으로 무역 의존도와 GDP 대비 수입 비중은 아시아 주요국 대비 낮은 편
- (시장 기회) 상장기업 가운데 화교기업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스타트업 투자, 스마트 분야, 의료 서비스, 전자상거래 유통분야 등에서 강력한 영향력 유지
- 바이어 90% 이상은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은 품질 중심
-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면서 전자상거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위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안전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최근 5년간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
- (높은 진입장벽) 외국기업 견제, 사업 허가 정부 규제, 제조업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연평균 8%대로 제조업 진입장벽 존재
- 고용, 생산 등 자국 발전에 기여도가 낮은 외국기업에 대한 진출을 제한하거나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 및 기업을 보호
- 아세안 최대 국가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이에 따라 국제 표준 등을 준수하기보다 자국 기준을 대외에 적용하는 경향
- (할랄 시장 기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슬람 교도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신할랄인증 제도 시행과 “2020-2024 샤리아 경제 마스터플랜” 발표로 2020년 이후의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기회는 증가할 것임

#### □ 주요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협력 현황

-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 협력 파트너는 중국, 미국, 일본 및 EU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과는 동일 아시아권 국가로 교역과 투자가 가장 활발
-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교역 및 투자 속도가 둔화되었으나, 이로 인해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인도네시아 진출 추진 기업 현황〉

Category	Description	Companies	Investment Value (million USD)	Job Creation
I	<b>Committed</b> Relocate/Diversified to Indonesia	7	850	30.000
II	<b>Having Intention</b> to Relocate/Diversified to Indonesia	17	37.000	112.000
III	<b>Potential Companies</b> (Based on Investment Market Intelligence through Media, Embassies, IIPC, Other Sources)	119	41.392	162.000

United States  
 57 companies

Taiwan  
 39 companies

South Korea  
 25 companies

Japan  
 21 companies

Hong Kong  
 1 companies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 새로 취임한 일본의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2020년 10월)
  - 남중국해 관련 중국 공동경제 및 안보협력 강화,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는 철도·항만 인프라 개발 협력,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경제지원 논의
  - 인도네시아에서는 투자조정청(BKPM) 특별 투자이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본기업들의 중국 발 투자이전 수요를 적극 유치 중

### 일본의 淸인도네시아 전략

- 자국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회랑계획(IEDC), 수도권 인프라 정비(자카르타 수도권 투자촉진 특별지역)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계획 단계부터 건설, 보수 및 점검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모델 인프라 수출을 위한 정부차원 수출활동 전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회랑계획(IEDC)	자카르타 수도권 투자촉진 특별지역	
<b>주요 협력 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개최된 일본-인도네시아 경제합동포럼에서 IEDC의 양국 공동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을 6개 회랑으로 구분하여 각 회랑에 도로, 항만, 발전소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로 민관협력사업(PPP)방식으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 도시개발 계획에 합의하여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조 엔 규모의 수도권 정비 계획 추진(도로 정비, 철도 건설, 전력 수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과 송전선 정비 등을 중심)</li> </ul>	
<b>지원 정책</b>	<b>제도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淸인도네시아 수출품의 92%에 무관세를 합의하여 순차적으로 적용 중, '패키지 모델 인프라 수출' 추진을 위해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 국제협력기구(JICA) 등 관련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방식의 표준화를 진행</li> </ul>	<b>직접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연계하여 5년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ASEAN지역 인프라 개발에 1,1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발표(15, 일본-인니 정상회담), 사회 간접자본 정비를 위한 11억 달러의 차관 발행</li> </ul>	<b>간접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10회 이상 총리·각료가 톱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투자 및 진출을 위한 ODA 및 공적 금융 지원, 엔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양자 통화스왑 추진 등을 실행</li> </ul>
<b>진출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요타: 2004년 진출하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거점에서 상호 조달하는 국제 분업체제 구축, 2016년 기준 38만대를 판매하며 인도네시아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3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li> <li>• 와코루: 1981년 현지 의류 및 속옷 회사와의 라이선스를 통해 진출한 뒤 1990년 합작투자를 통한 현지 법인 설립, 2016년 현지 법인 매출 6,500만 달러를 기록</li> <li>• 리쿠르트: 2012년부터 현지 여행 예약 사이트 합병 후 베트남, 필리핀의 합병회사와 연결자회사 구축하여 온라인 영업 실시, 현지 여행 예약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합병 회사인 Pegipegi는 2016년 거래량이 전년 대비 250% 증가하는 등 성장세</li> </ul>		

자료: KOTRA, Caleb(2019년 6월)

### 중국의 淸인도네시아 전략

- 일대일로(一帶一路)연계 포괄적 제휴관계를 통해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하고 경제회랑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해양거점 정책과 연계

주요 협력 사업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경제회랑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ASEAN 지역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2015년 중-ASEAN 정상선언문을 통해 상호이익 추구를 약속하고 외교 및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중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건설과 인도네시아와의 역내 종합 경제회랑 건설지시</li> </ul>	
지원 정책	제도개선	직접지원	간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재 및 자본재 182개 품목에 관세를 철폐하고 고민감 품목 관세인하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중-ASEAN 2개국 이상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0억 위안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을 마련하고 일대일로 참여국 및 국제 조직에 600억 위안을 원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의 항공기 구매를 위해 17억 달러의 자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BRICS 개발은행, 세계은행 및 다자개발 기구와 협력하여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고 163억 달러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 4차 산업 관련 사업에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 및 면세 혜택 등의 간접 지원 추진</li> </ul>
진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철도총공사: 2015년 중국개발은행 및 현지 4개 회사가 참여하는 55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수주,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를 2016년 착공하여 2019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토지 수용철차 부진 등으로 건설 지연</li> <li>• 알리바바: 현지 최대 결제서비스 업체 DOKU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전자 상거래 사이트 Aliexpress를 통해 진출, 현지 전자상거래 기업인 Lazada, Tokopedia에 투자하여 진출 확대, '17년 기준 전년 대비 58% 증가한 약 37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주변국에 확대 진출 추진</li> <li>• 텐센트: 현지 미디어 전문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TV광고 시장 공략, Tencent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이 인도네시아 모바일 앱스토어 1위 차지</li> </ul>		

자료: KOTRA, Caleb(2019년 6월)

### 미국의 淸인도네시아 전략

- 상품무역 불균형의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중이며 FTA 추진 과정의 일환으로 투자 자유화, 지식재산권,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에서 협력 진행

淸인 협력 기초

####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 과거 오바마 행정부부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며 아시아 중시정책 강조. 2011년부터 ASEAN 주도 아시아정상회의(EAS)에 공식 참여하였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국가들과 양자 관계 강화를 적극 모색

지원 정책

제도개선	직접지원	간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출 절차의 간소화,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양국 정부 기관 및 기업의 참여 필요성 등은 언급하였으나 구체적 개선 방안은 미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reta API社에 인프라 및 정보통신 사업 참여를 위한 기술 지원(60억 달러 상당), 인도네시아 지형공간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원(100만 달러), 인도네시아 석유 경제사업 현대화에 보조금 지원(30만 달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상공회의소와 해외민간투자기구(OPIC)의 MOU를 통해 현지 자국 중소기업 지원</li> </ul>

진출 현황

- 카길: 1974년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였으며 2020년까지 사업 확장을 위해 5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 2017년 1,09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팜유, 코코아, 사료, 설탕 등을 생산 가공
- 필립 모리스: 2005년 현지 담배업체 삼푸르나(HMSP)를 인수하면서 진출하였으며, 이후 현지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제품 출시, 인도네시아 기업인 Gudang Garam을 넘어 업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 매출 69억 달러를 기록
- 마이크로소프트: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진출하였으며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등 현지의 기술수요 증가에 따라 인재개발에 중점 투자,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2018년 회계연도 2분기 기준 ('17.10~'17.12)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한 28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자료: KOTRA, Caleb(2019년 6월)

### 유럽의 對인도네시아 전략

- 독일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 자유무역주의를 추진하여 개발 도상국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 EU-ASEAN FTA는 협상 단계에서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으나 일자재 수출 및 임가공업 등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한 ASEAN 국가들과 개별 FTA 협상 중, 자카르타 선언 이후 포괄적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상호 교역규모 확대

#### 주요 협력 사업

##### 자카르타 선언

- 2012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자카르타에 방문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유도요노 대통령과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 국방 및 사회질서 관련 협력 체결을 통해 독일계 탱크 판매 등 방위산업 진출 확대

#### 지원 정책

##### 제도개선

- 상호교류와 발전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위해 관세 등의 무역 장벽 개선에 상호 협의 진행

##### 직접지원

-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동반자관계 협정을 체결하고 독일과의 정치, 국방, 산업,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였으나 직접적인 지원책은 미미

##### 간접지원

- 테러리즘, 불법자금세탁 등 초국가적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경찰 협력으로 상호 신뢰 증진

####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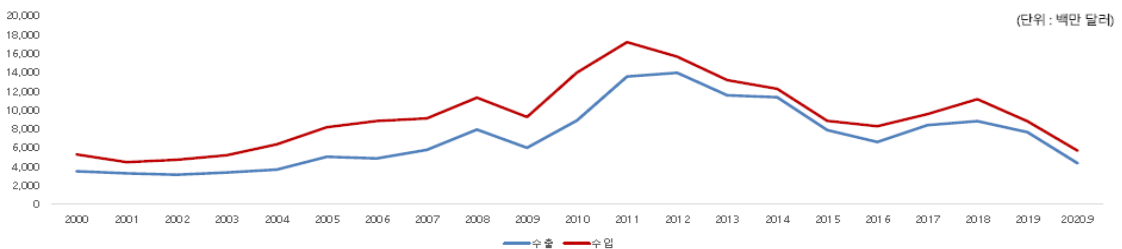
- **지멘스** : 2016년 기준 신규 수주 1,008억, 매출액 92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솔라웨이 섬에 풍력발전소 건설 중,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였으며 풍력, 가스 등의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 **폭스바겐** : 2016년 기준 2,532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현지에서 연간 10만대 생산 규모의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나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98%)로 고전, 2013년 동남아시아를 타깃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조립라인 운영을 통해 진출하였으며 부품기업의 동반 진출로 연결
- **알리안츠** : 2012년 기준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시장 점유율의 32.8%를 차지하며 현지 가입자 600만명 확보, 현지 법인 설립으로 진출하였으며, 최근 디지털 투자 부문 자회사를 통해 현지 O2O(Online to Offline) 기업인 고객에 3,500만 달러 투자

자료: KOTRA, Caleb(2019년 6월)

## □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협력 현황

### ○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역 동향

- 양국 간 교역은 2004년 100억 달러, 2011년 300억 달러 돌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148.9억 달러(수출 66.1억 달러, 수입 82.9억 달러) 기록
- 2017년 교역 규모는 약 180억 달러, 2018년의 교역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2년간 교역량이 증가했음
- 2019년 교역 규모는 16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6% 감소했으며, 이는 ①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및 주요국 제조업 경기 부진, ②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의 단가 하락세 지속 등의 요인으로 인한
- 2020년 교역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주요 교역국들의 경기가 부진하면서 수출(-24.8%)과 수입(-16.7%) 모두 전년 대비 부진



#### 對 인도네시아 10대 수출품목(2019)

석유, 철강, 직물, 전기기계장치, 플라스틱(원료), 산업용 일반기계, 특수산업용 기계, 비철금속, 생고무, 유기 화합물

#### 對 인도네시아 10대 수입품목(2019)

석탄, 천연가스, 철강, 의류, 광물, 석유, 신발, 나무제품, 생고무, 유기 화합물

자료: 무역협회(2020년 10월)

○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FDI 현황

- 2018년 전체 대(對) 인니 투자 규모는 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7% 감소했으며, 2019년 투자규모는 10억 달러로 33.2% 감소
- 하지만 2020년 상반기 투자 규모는 6.8억 달러를 기록하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대(對) 인도네시아 주요 업종별 FDI 투자 금액(2016년~2020년 6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상반기
전기, 가스, 수도	154.5	249.8	204.7	106.8	228.4
기계,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68.9	147.9	658.8	20.5	6.4
화학, 제약	24.9	263	66.4	246.9	148.4
가죽, 신발	77.2	207.9	92.6	123.4	50.9
기타	11.6	380.2	49.1	85.9	1.9
광산	42.5	122.9	56.2	166.9	13.7
섬유	57.5	54.5	122.4	37	60.8
고무, 플라스틱	110.7	34.8	68.4	96.3	2.1
비 기계부품	72.8	163.7	12.2	2.2	1.5
식음료	54.9	46.5	89.5	24.5	14.8
총 투자	1065.8	2024.6	1604.7	1070.4	683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202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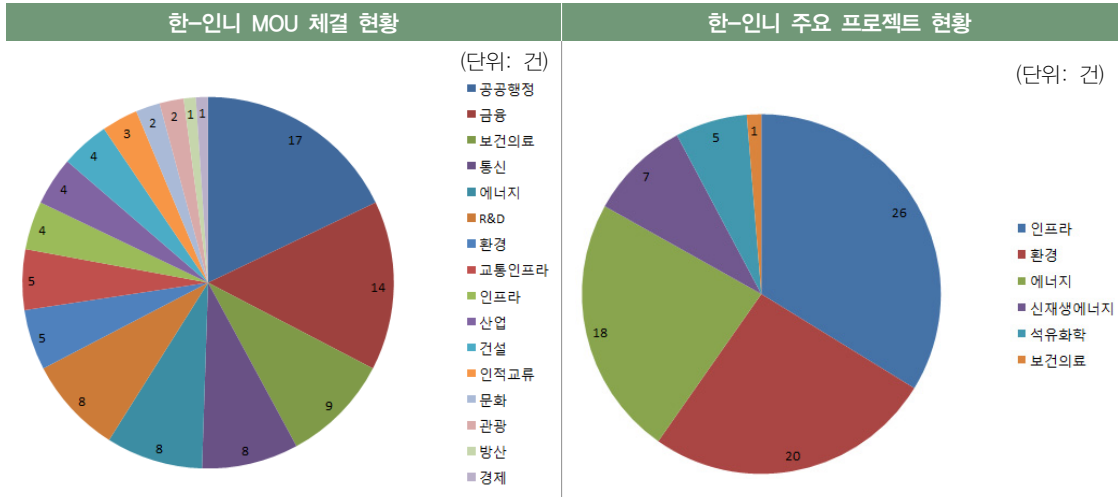
○ 최근 3년 이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회담 및 면담 결과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통상, 외교, 산업 영역에서 밀접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7년과 2018년, 양국 정상외 방문을 계기로 교통 인프라, 지역 균형 개발, 4차 산업, 인적 자원 분야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다이얼로그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음
- 이는 2019년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6월 28일 G20 행사에서 성사된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점검하고 협력강화방안 논의

○ 2019년 10월 CEPA 협상 실질 타결 선언, 2020년 한국 외교부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코로나19 공동 방역 협력 강화 논의

○ 한국-인도네시아 MOU 및 주요 프로젝트 협력 현황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주로 공공행정, 금융, 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서 MOU를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프로젝트 협력 분야는 주로 인프라, 환경임
- 공공행정, 금융, 보건, 통신이 전체 95건의 MOU 중 48건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프로젝트의 경우 인프라와 환경이 전체 77건의 주요 프로젝트 건수인 77건 중 46건임



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KOTRA(2019년 10월)

## 나.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 □ 인도네시아 인프라 정책 주요 현안

#### ○ 인도네시아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년) 개요

- 최근 인도네시아는 제 3차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15~2029)에 이어 제 4차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을 수립

####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주요 내용〉



자료: Rancangan Teknokratik RPJMN 2020~2024(2020년 1월 버전)

#### ○ 인도네시아 2020~2024년 인프라 개발 정책 전망

-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인프라 개발이 2021년부터 재개될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2024년 간 5,957조 루피아(약 4,12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는 25개의 공항 건설, 신규 전력 발전소 등이 포함

- 상기 예산의 40%는 정부 자금, 25%는 국영 기업, 그리고 나머지 35%는 민간 기업을 통해서 조달할 예정
- 인프라 계획 산업 중에서 60%는 교통시설과 관련된 인프라인데 이는 조코위 정부가 산업이 편중되어있는 자바 섬 외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함
- 2020~2024년 인프라 구축 계획 초안에는 17%는 에너지 분야이며, 10%는 관개시설 구축임
  - \* 조코위 정부는 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2018년까지 14개의 댐 건설을 마무리했으며, 15개의 댐을 신축할 것이며 완공 시기는 2020~2022년으로 예상
- 조코위 2기 정권에서 추진 예정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현존하는 165개의 공항 시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및 해양 물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도 포함됨
- 한편 인도네시아는 조세 납부 준수 수준이 낮으며 취약한 원부자재 가격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타격을 입으면서 그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상당수 프로젝트가 민관 협동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 조코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산업별 기회 및 위협요인

주요 산업	기회요인	위협요인
농업·플랜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기 개선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인프라,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li> <li>○ 최근 'Sayurbox(야채박스)'라는 스타트업이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 농부와 소비자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결해 농작물 신속 주문 배달 사업을 하며 각광받은 바가 있음</li> <li>○ 물류 인프라 개선으로 인한 농작물 배송 루트의 체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은 국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자원</li> <li>○ 인도네시아 농장이 자급력을 높인다면 우리 기업의 농산물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을 것</li> <li>○ 팜유를 사용한 바이오디젤연료 정책이 확대 실시되면서 대 인니 디젤유의 수출이 어려워질 것</li> <li>○ EU가 팜유 사용 금지에 대해 주장한 바(2019.3), 팜유 농장 사업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음</li> </ul>
해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선박 수요 증가 및 프로젝트 참여 기회 증대</li> <li>○ 선박 부품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선박부품의 70%는 수입산으로 우리 기업제품의 수출 기회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인해 배기가스 배출 감축 관련 부품 수요 증가 예상</li> </ul> </li> <li>○ 경제 영역 뿐 아니라 국방, 외교관계에서의 협력 기회가 증가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li> <li>○ 인니 선박산업의 성패는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라 좌우되어 수익성이 불안정</li> <li>○ 어획량이 증가하게 되면 대 인니 어류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음</li> </ul>
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광물 매장 국가이며, 국내외 기업의 광물 제련사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li> <li>○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에 따라 전기차 부품 관련 광물 제련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 채취와 관련한 허가, 영업권, 토지사용권과 관련한 인허가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했으나(2018.7), 여전히 복잡</li> <li>○ 지역정부와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 법이 수시로 변경되어 사업자들의 혼란 가중</li> <li>○ 제련과 관련해 법규에 지정해둔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 규제에 봉착</li> <li>○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 수출중단 조치가 2년 앞당겨진 2020년 1월 부 시행</li> </ul>

주요 산업	기회요인	위험요인
건설업·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 사업의 성행 및 국가 주택 정책으로 관련 자재 수요 및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li> <li>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민형 주택 뿐 아니라 고급 주택과 쇼핑몰 건설 수요 증가</li> <li>자카르타시의 MRT 발달로 MRT 인근에 회사원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KOS) 영업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업 진출에 따르는 각종 영업 허가권을 발급받는 조건 및 절차가 까다로움</li> <li>건설 수요는 주로 글로벌 기업, 대기업, 화교계 그룹이 장악하고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음</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네시아의 35GW 전력 프로젝트로 여러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예정</li> <li>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잠재 발전 가능 용량은 424 GW이며 정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혼합 정책 이행 중</li> <li>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리드 접근성(Grid Access)가 없는 지역의 전력화율 및 에너지 인프라로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현존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전력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가 IPP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의 참여를 장려하나 토지 사용, 비용, 행정, 법규 수시 변경 등 제반 문제는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투자가 애로사항이 될 전망</li> <li>인도네시아 전력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개발 10개년 계획(RUPTL)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해당 목표치는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li> <li>석유 등 에너지 부존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으며 석유·가스 탐사에 드는 비용이 높음</li> </ul>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코위 정부는 인프라를 모든 경제의 근간으로 간주하며, 2020~2024년 인프라 개발 규모를 4,120억 달러로 전망</li> <li>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선박 수요 증가 및 프로젝트 참여 기회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제안 및 입찰 과정에서 자재의 가격경쟁력 또는 예산자원이 풍부한 기업 또는 국가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단독 진출이 쉽지 않음</li> <li>인프라 사업 시 투입되는 예산 규모로 정부 재정 적자를, 그리고 원부자재 수입에 따르는 무역 적자를 야기해 수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 또는 중단 현상 가능성 존재</li> </ul>
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관광산업 타격이 심했으나 2021년에는 관광산업이 재개되면서 다시금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li> <li>관광지에서의 전자지갑(e-wallet) 사업 사례 증가</li> <li>인도네시아는 스타트업 수 2,115개로 전세계 5위를 기록한 바(2019.5.26. 기준), 관광과 코워킹 스페이스 연계 사업 기회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관광산업 타격</li> <li>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투자에 드는 비용이 높음</li> <li>10대 신(新)발리에 식당, 호텔 등 관련 사업으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발리만큼의 인프라가 조성되어있지 않고 관광객 수가 적어 사업 영위의 어려움이 존재</li> <li>중소기업 대상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나 이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스타트업 사업자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것</li> </ul>
조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 감면 혜택 대상 폭을 늘려 외국인 직접 투자 장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인센티브는 대규모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며 소규모 투자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함</li> <li>정부 재정 적자 확대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여론 존재</li> </ul>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에 기반하여 식음료, 자동차, 섬유봉제, 전자, 석유화학을 중점적으로 육성, 2020년 코로나19 방역 중점산업인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 추가</li> <li>* 상기 산업분야의 우리 대기업의 진출 소식은 중소, 중견기업 동반 진출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인프라 및 관련 시설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li> <li>자동차의 경우, 여전히 일제차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전기자동차 산업 개발 원하나 전기충전소, 배터리 기술 등이 상당히 부족</li> <li>조코위 1기 정권 하 제조업 인력 임금 상승률 연평균 8% 내외였으며, 이는 조코위 2기 정권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li> </ul>

주요 산업	기회요인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 및 산업자동화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으로 조코위 2기 정권에서는 이를 본격 구축해 나갈 전망</li> <li>제조업의 경우 정부 장려 산업은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 없음</li> </ul>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기본 인프라는 ICT로 디지털 기술, 바이오 산업, 하드웨어 자동화 등에 대한 인니 정부의 수요가 증가할 것</li> <li>전자 정부 구축에 따른 프로젝트 참여 기회, 관련 장비 조달 기회 증가</li> <li>2019년에 자카르타 도로의 속도위반카메라 설치 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중임</li> <li>핀테크, 라이드헤일링 시장, 앱 기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 Digital Report 자료에는 유선 인터넷 속도가 한국은 132.5MBPS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13.8MBPS임</li> <li>한국 모바일 접속 속도는 43MBPS인 반면, 인도네시아 모바일 접속 속도는 9.8MBPS에 불과</li> <li>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등의 스마트 사업은 연구 단계로 시장이 미성숙해 진출을 위한 제도적·물리적 시설이 제대로 준비돼있지 않아 조코위 2기 정권에서도 시장성을 평가하기 어려움</li> </ul>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li> <li>인니 정부의 공동 방역체계 구축 수요</li> <li>2억 6천만 명의 세계 4위 수준 인구로 보건 의료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인니 정부·민간 수요가 높음</li> <li>디지털 헬스케어, e카탈로그 등 전자 시스템 기반 의료시설 개선 계획과 관련한 진출 기회 증가할 것</li> <li>건강보험(BPJS Kesehatan) 가입자 100%를 목표로 국민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li> <li>의약품(완제품) 제조, 침술 서비스의 외국인 지분 100% 개방 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진행 상황</li> <li>원격의료 파일럿 테스트 실시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연구개발 단계로 진출 가능성 모색 어려움</li> <li>의료기기/위생용품 인증 등과 관련한 수출 애로사항 발생</li> <li>병원설립과 관련한 외국인 대상 규제가 조코위 2기 정권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것</li> </ul>
환경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정부 수요 지속 발생</li> <li>공장 및 오토바이 분진 등으로 대기 오염이 심해해 공기 청정과 관련한 사업 기회가 확대 될 것</li> <li>농약 사용에 따른 농가의 토지 오염 문제 해결과 관련한 사업 가능성 존재</li> <li>산림화재, 자연재해 예방 시스템 사업 진출 기회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폐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조코위 1기 후기의 사건들이며 정부와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음</li> <li>환경 보호와 관련한 정부 규제가 조코위 1기 정권보다 더 많이 수립될 것이나 환경 관련 규제가 적어 당분간 환경 사업 기회 확대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li> </ul>
물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관 등 세관업무가 까다로워 인니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인의 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li> <li>정부의 물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li> <li>물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산업자동화와 ICT 산업과 통합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종업계로 오랜 기간동안 사업하는 우리 진출 기업이 다수 존재</li> <li>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기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선적 시기, 화물 인도 시기 등의 변경 빈도수 증가</li> <li>물류 인프라 및 관련 법규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li> </ul>
금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테크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관련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인니 금융업계의 수요 증가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인터넷 속도에 최적화된 기술을 인도네시아 디지털 뱅킹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li> </ul>



주요 산업	기회요인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니 국민의 은행 서비스 이용률이 49%로 낮으며 모바일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객이 증가하며 전자지갑, P2P 대출, 제2금융권 진출 기회</li> <li>인터넷 뱅킹 타행이체 시스템이 근무시간 외에 작동하지 않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모색 가능할 것</li> <li>샤리아 금융으로의 진출 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기반 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시스템 취약</li> <li>외국은행 진출 시 자국 은행 인수 조건 충족해야 할 것</li> <li>외국 은행의 주재원 수 기준이 엄격해 진출이 오래될수록 주재원의 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제약 존재</li> <li>다수의 한국 시중 은행이 진출하여 활발히 영업을 추진 중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li> <li>전자지갑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최대 49%까지 제한</li> </ul>

자료: 언론 보도자료, 업계 인터뷰,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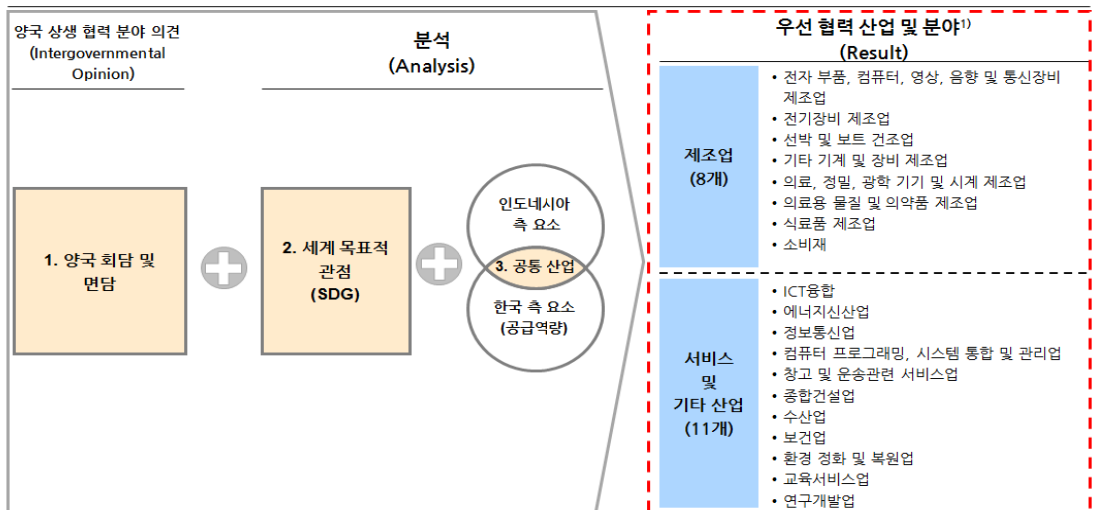
## □ 양국의 경험 개발 노력

- 11회 한 인니 에너지 포럼 개최(2020년 9월, 화상)
  - 양국은 전력·신재생에너지, 석유·가스 등 3개 주제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
  -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되고 양국 간 합의된 사항은 2020년 연내 개최될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로 도출 예정
- 양국은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달성 위한 협력관계 구축 노력

## □ 한-인도네시아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회담 및 협정에서 도출된 상생 협력 분야에 SDG 및 양국 간의 요소를 분석하여 8개의 제조업 관련 산업, 11개의 서비스 및 기타 산업을 도출하여 우선 협력 사업을 선정했음

의견과분석을 통한 우선 협력 산업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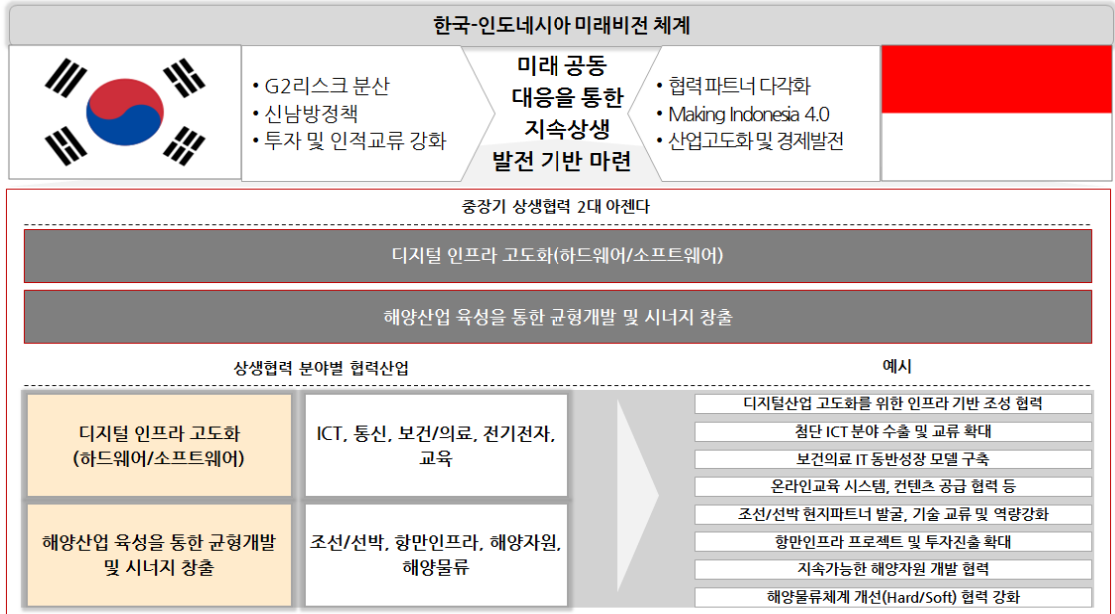


1) 일부 산업은 현재의 산업표준분류(KISCO)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16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시 초안을 인용함  
 자료원: 2018년도 무역통상진흥정책, 산업통상자원부(2018년 3월); 5대 신산업 산업분류 연계 및 활용도 계고를 위한 연구, KIET(2016년 12월)

자료: KOTRA, Caleb(2019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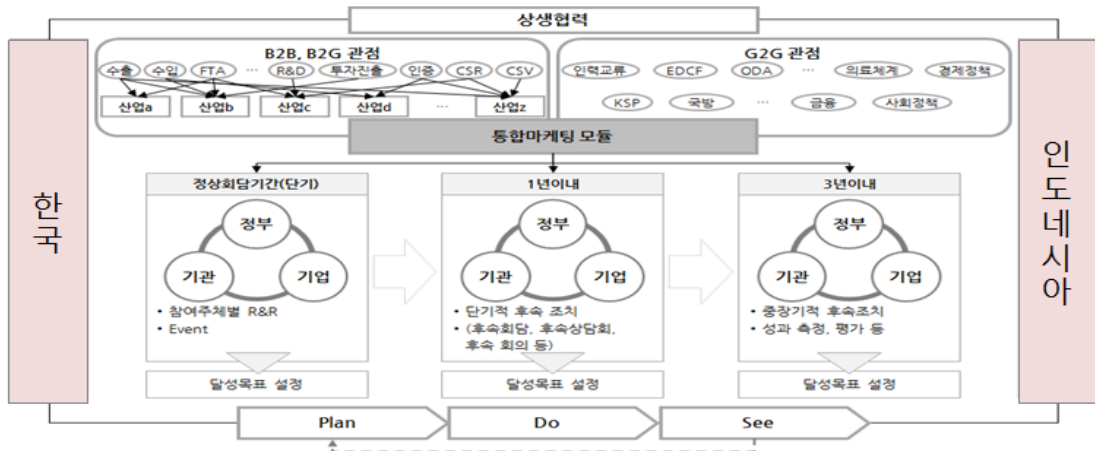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패키지를 활용하여 협력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하여 지속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각국의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미래비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한국-인도네시아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자료: KOTRA, Caleb(2019년 6월)

한-인니 비전달성을 위해 양국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한 단기-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행필요



자료: KOTRA(2019년 10월)

## 2.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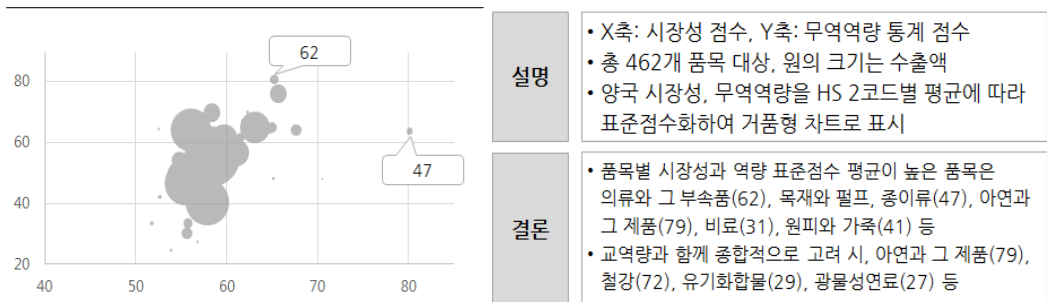
### 가. [G2G] 대(新) 남방정책 파트너와의 상시 소통을 기반으로 한 상호 수요 충족

#### 정부 차원의 상시 다이얼로그 이행으로 양국 수요 기반의 협력 강화

#### □ 양국 CEPA 협정 최종 마무리를 통한 교역 증대

- **(정책 수요)** 한-인니 2022년 교역액 300억 달러 달성 및 원활한 투자(한국의 대(對) 인니 직접 투자) 확대 위한 정책적인 장치가 필요함
  - 아세안(ASEAN) 경제공동체(AEC)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 아세안의 중심인 인도네시아와의 CEPA 협정 조속 발효 필요
  -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 활동을 기준으로 한국 무역역량과 인도네시아 시장성이 모두 높은 항목은 유기화합물, 전자 기기 등으로 나타남

한국 무역 역량X인도네시아시장성 매트릭스



자료: KOTRA, Caleb(2019년 6월)

- **(협력 방안)**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무역 협력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고위급 및 실무급 간의 '다이얼로그' 기회를 수시로 마련할 것
  - 세계무대에서 중견국 영향력 확대가 목적으로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가 설립한 중견국 협의체 MIKTA를 통한 전반적인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건실한 무역 협력 체계 구축

#### □ 상호 인증 협력 기반 구축

- **(정책 수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인증에 우리 기업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관련한 정책적 수요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선진 인증제도 벤치마킹 및 지식 공유를 위한 정책적 수요가 파악됨
  - 2019년 10월 17일 이후부터 신할랄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할랄인증 관리 주체가 국가가 되면서 한-인니 정부 간 교차 인증 관련 협력 필요성 대두

- **(기업 수요)** 인증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문의 및 애로 호소 증가에 따라 양국 간 인증 협력 기반 구축 필요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으로 접수된 문의 중 식약청, 할랄, SNI, 각종 수입 규제 관련 인증 문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

- (협력 방안) 제품 및 서비스 안전과 품질 관리에 대한 정보 교환, 평가·검사 분야 협력을 통한 기업 밀착 지원

□ KSP/ODA를 활용한 산업·정책 한류 확산

- (정책 수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정책적, 기술 노하우 습득과 더불어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마련에, 한국 정부는 KSP 또는 ODA 지원을 통한 개인·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지원에 관심이 많음
  - 유상 및 무상원조 수행 사업과 관련 수출입은행과 KOICA가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두고 있음
- (기업 수요) 인도네시아는 KSP/ODA를 활용하면서 시장 진출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국의 기업인은 해당 분야의 정부 차원 협력을 희망하는 추세임
- (협력 방안) EDCF 차관에 대한 Framework Arrangement 체결, 제 3기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20~2024)\* 수립을 통한 ODA 지원
  - 양국 간 경제협력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레버리지로서 무상지원 이후 유상 차관 또는 PPP, 민간 자금 지출까지 연계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규 협력 모색\*\*
    - \*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제 4차 중기 개발 계획(RPJMN 2020~2024)에 맞춘 CPS 2020~2024전략을 ADB(아시아 개발은행)이 수립
    - \*\*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무상 지원 규모가 지난 5년 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음
  - ‘자본 지원에서 KSP 지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산업 부흥에 기여하고, KSP와 관련, 우리 전문 인력 및 기업의 진출 기회를 최대한 확보

〈1987~2018년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EDCF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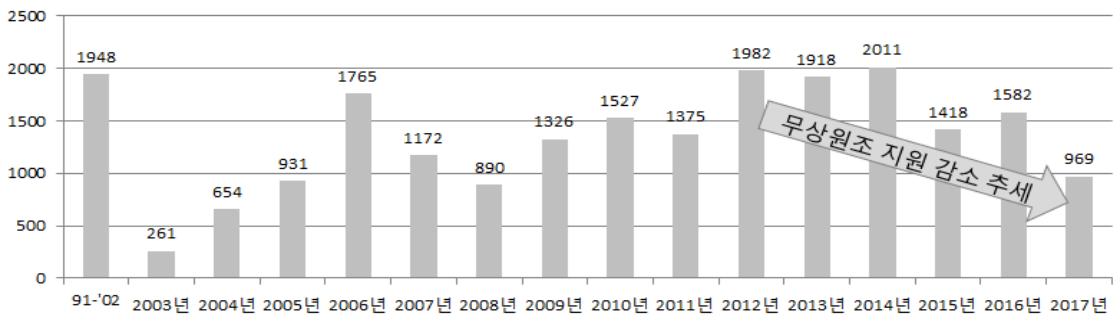
분야	연도	사업명	승인액		추진단계
			백만 원	백만 달러	
의료	1997	칼리만탄 병원개선사업	27,534	30.0	원리금 회수
	2000	동부자바 지방병원 개선사업	34,369	30.0	원리금 회수
	2005	종합병원 개선사업	27,500	24.0	원리금 회수
	2008	아담말릭병원 개선사업	34,164	30.0	원리금 회수
	소계 (4건)			123,567	114.0
수자원	2010	까리안담 건설사업	109,520	100.0	자금 지출
	2016	수자원 엔지니어링 사업	36,009	31.7	L/A 체결
	2017	서부지역 농업관개시설 개선사업	107,800	98.0	L/A 체결
	소계 (2건)			253,329	229.7
정보통신	2004	국가범죄정보센터 개발사업	19,438	20.2	원리금 회수
	2006	바탐 전자정부 구축사업	14,747	16.0	원리금 회수
	2006	국가정보통신교육원 건립사업	19,362	21.0	원리금 회수
	2010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45,425	40.0	본사업 구매
	소계 (4건)			98,972	97.2

분야	연도	사업명	승인액		추진단계
			백만 원	백만 달러	
교통	1987	빠당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9,839	13.0	원리금 회수
	1995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	13,318	10.0	원리금 회수
	2006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사업(2차)	19,094	16.0	종료
	2009	빠당시 우회도로 확장사업	62,746	58.0	완공평가
	소계 (4건)		104,997	97.0	-
환경	1999	병원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45,336	40.0	원리금회수
	2013	바땀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57,397	50.0	자금 지출
	소계 (2건)		102,733	90.0	-
교육	1991	이동식 직업훈련사업	18,181	25.0	원리금 회수
	1994	실업교육 개선사업	8,111	10.0	원리금 회수
	소계 (2건)		26,292	35.0	-
공공행정	2013	경찰청 고속순시선 공급사업	40,930	35.0	자금 지출
	소계 (1건)		40,930	35.0	-
농업	1992	생견사제조 해투사업	978	1.3	종료
	소계 (1건)		978	1.3	-
합계 (20건)			751,798	699.2	-

주: 총 20개 사업, 7,520억 원(699백만 달러) 지원(1987~2018년 7월), EDCF 전체 승인액 중 4.6% 차지, 전체 54개 수원국 중 6위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주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2018년)' 수출입은행(2018년) (2018년 자료가 최신, 2020년 10월)

### <1991~2017년 한국의 대(對) 인도네시아 무상원조지원 현황>

(단위: 만 달러)



주: 1991~2017년 간 총 2억1,730만 달러 지원(2017년 잠정 969만 달러),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사업(총9건)·초청연수·봉사단 파견·NGO 지원 등 사업 추진, 무상원조 지원 감소 대신 유상원조, KSP 사업 형태 증가 추세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주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2018년)" KOICA(2018년)

## 나. [B2B] 정부 협력에 기반한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 □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하드웨어/소프트웨어)

- (현황 및 수요) 국가 통합 온라인시스템(OSS)의 구축으로 투자 관련 업무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를 시작
  - 제조업과 더불어 정책상(국가 중기개발계획) 최대 육성분야인 인프라 개발 분야에 있어 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거나 이를 위한 통신인프라와 같은 기반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 역량) 세계 최초 5G망 구축 예정, ICT, IoT 및 건설인프라 분야 정상급 기술력의 보유, 한국형 서울시 스마트시티 개발 모델의 해외진출 타진 중
- (참여주체) (한)산업부, 과학기술통신부, 한국전력, KIND, KOTRA, KT, LH, 서울시주택도시공사(SH), 건설사 등
  - (인니) 산업부,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국토부, 주요 건설사, 통신장비 제조사 등
- (추진 배경) 산업고도화와 디지털혁신 분야 육성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육성방안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분야 소프트웨어 시장의 형성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1단계 협력이 필요한 분야임
  - 국가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의 도시개발 로드맵에 의한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 역시 디지털인프라 기반 구축의 선행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국내 건설사, 경제 유관기관과 인도네시아 측 주요 경쟁 기업과의 전반적인 산업 협력이 요구되며 정부간의 G2G 협력 역시 필수
- (협력 방안) 가상현실기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어 협력 포럼을 통한 인력교류, 공공기관 사업 참여 등의 협력이 가능함

#### 정보통신 공급망 인프라

- (G2G) 브로드밴드 기술협력 정책자문, 전문가 파견 및 인력교류 진행 ⇒ (B2B)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사업자와 파트너십 계약 또는 수주를 통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진출 추진
- (B2G) KIND의 해외인프라 수주 정보 및 행정력 활용, LH, KT 등 실무 협력안의 마련, 인도네시아 유관기관과의 협력
- (B2B) 통신인프라 장비 직접공급, 완성품 수출 및 부품류 공급, 유지보수 지속 협력
- (B2B, B2G) 첨단 인프라 시설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양성, 기술협력

#### 스마트시티

- (G2G, B2G) 정부 주도 아래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기관(LH, SH, 한전 등)과 인도네시아 현지 정부, 기관 간 협력 MOU체결과 양국 간 유망 협력 모델의 도출(한국의 IT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제조기술의 접목)
- (B2G) KOTRA 주관 한국-인도네시아 주요기관, 기업 대상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방안 포럼 등 개최로 양국 간 협력 준위기의 조성과 기회 포착
- (B2B) 스마트시티 연관 기업간 교역 활성화, 기술협력

#### □ ICT 산업(가상현실, 스마트 기기)

- (현황 및 수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핵심 분야의 하나로 디지털 기술, 자동화 등의 육성을 추진 하고 있으며, 조코위 정부는 ICT, IoT 등 첨단 산업육성에 적극적으로 특히, 자국산 콘텐츠 비중 (TKDN)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예정
- (한국 역량) 삼성전자, LG전자를 중심으로 첨단디지털기기, 연관 프로그램 등 최첨단 기술력과 네트 워킹의 보유
- (참여주체) (한)산업부, KOTRA, 과학기술통신부, 삼성전자, LG전자, 주요 ICT기업, 스타트업 등
  - (인니) 산업부, 국가개발기획부, 통합전산시스템관리국, 주요 전자기기 제조업체, ICT 스타트업 등

- (추진 배경)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사무 자동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증가, 제조업 발달로 인한 수요 증가 등이 원인임
  - 젊은 소비층의 성장으로 가상현실,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 ICT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자국의 제조업 기술력을 첨단제조분야로 확산을 적극 추진 중
- (인도네시아 내 글로벌 기업 동향) 중국의 알리바바는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인 DOKU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체결하고 온라인 결제,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ICT 분야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 중임
  -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의 제조 기술력을 활용하며, 인력 양성에 협력하는 등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
- (협력 방안) 가상현실기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어 협력 포럼을 통한 인력교류, 공공기관 사업 참여 등의 협력이 가능함

- (G2B)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한국산 첨단ICT 기기의 보급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포럼, 연관 세미나 개최 지원, 판매 촉진을 위한 기관지원 협력 -> (B2B) ICT 기업 간 교류/교역 확대로 확산
- (B2G) 첨단기기, 웨어러블 장비 등의 인도네시아 젊은 층 타겟으로 한 마케팅(세미나, 전시회)방안의 마련으로 구매수요의 증가로 연결
- (B2B) **인도네시아의 고객 등 주요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교류 확대**

#### □ 헬스케어 IT 산업

- (현황 및 수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혁신분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포함되었으며, 최근 몇몇 한국산 의료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한국 역량) 바이오헬스케어와 IT 분야 기술력에 강점 보유, 2017년 양국 정상간 회담 통해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 (참여주체) (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KOTRA, KT, 루닛, 크레스콤, 더궁, 테크하임, 레몬 헬스케어 등 건강 ICT 솔루션 기업
  - (인니) 보건부, 국가개발기획부, 통합전산시스템관리국, 의료기관 등
- (추진 배경) 한국은 국내 원격의료 규제·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기업이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있음
  -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통의료 시스템의 구축비용과 시간 등 구축을 위한 과도한 시간, 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이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첨단의료시스템의 구축으로 의료 선진화를 이루고자하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도입의사가 높음
- (한국의 헬스케어 ICT 비즈니스) 디지털 헬스케어 동남아시아 로드쇼
  - 국가별로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토론회)와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비즈니스 상담회 실시 및 현지 우수기업과 병원 방문

- 러시아에 병원 ICT, 온라인 원격진료 등 진출해 현지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넓혀가고 있음
- KT는 러시아인 레일웨이즈와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역사병원 및 열차 안에서 1차진료(Primary Care)가 가능한 모바일 건강진단 솔루션을 시범구축
- (협력 방안) 한국은 ICT 솔루션과 의료에 산업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 기업 및 기관의 수요에 맞는 솔루션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할 수 있음
  -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인도네시아 대형 병원들과 협업 논의 중(2020년 10월)

- (B2G) 한국 헬스케어 ICT 솔루션 기업과 말레이시아 내 수요 기관의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B2B) 국내 싱가포르의 VC를 통해 펀딩을 받아 진출 또는 인도네시아 내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통해 사업 확장 검토
- (G2B, B2B) 인도네시아 기업 및 기관의 수요에 맞는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제공
- (B2B) 한국 기업의 역량강화, 말레이시아 기관의 업무 효과 상상을 통한 동반성장

## □ 교육 산업

- (현황 및 수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업고도화 정책 추진과 첨단기술력 도입 의지에 대비 운용 능력을 갖춘 인력의 부재와 이질 및 교육열이 높은 젊은 층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온라인 교육 시장 협력
- (한국 역량) 의무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사교육 서비스가 매우 발달해 있음
- (참여주체) (한)교육부, EBS, 서울사이버대학교, KOICA, 교육 분야 스타트업 등
  - (인니) 교육부, 통합전산시스템관리국, 산업부, 정부부처, Lippo Group 등
- (추진 배경)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10대 국가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자원의 업그레이드의 주요 목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의 재설계와 전문 인재교류 프로그램의 도입
  - 세계경제포럼(WEF, 2019년)의 국가경쟁력 지수, 인적자본 분야 기술력 지표에서 한국(27위)은 인도네시아(64위)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평균 교육연수, 교원 훈련, 직업교육 품질 등에서 우위에 있음
  -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및 한국 교육에 대한 수요 다대
- (협력 방안) 한국은 ICT 솔루션과 의료에 산업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에듀테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 및 기관의 수요에 맞는 솔루션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할 수 있음

### 온라인교육

- (G2G) 양국 교육부 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핵심협력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MOU 등 체결
- (B2G) 고등교육기관 간 상호 학생교류
- (B2G) 한국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홍보 강화를 위한 전시회, 세미나 개최 활성화 → 한류 소비재로 확장 연계
- (B2B) 주요 교육 분야 스타트업 간 기술협력, 양국 언어 교류 프로그램 등 개발 협력

### 전산시스템 등 ICT 운용기술 교육 협력

- (G2G, B2G) 국가 통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정부 부처의 해당 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따라 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체계 구축 → (B2B) 국내 주요 업체 진출로 동시시스템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시장 확보
- (B2G) 블록체인 보안기술 등의 국내 스타트업 진출 지원
  - \* 전자 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 암호화, 보안기술 수요 확대
- (B2B) 블록체인 보안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교류를 통한 기술협력



## □ 조선·선박 산업

- (현황 및 수요)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화물 대부분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컨테이너항은 자카르타 (Jakarta), 수라바야(Surabaya), 벨라완(Belawan) 및 우중 뾰당(Ujung Pandang) 항이며, 그 밖에 원유·가스·목재·팜유 등은 상기 4개항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중심 항만에서 처리됨
  -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은 중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인프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및 시스템 등의 부문에서 협력기회 모색 필요
  - 또한, 한국의 조선·해양 분야 엔지니어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에 파견하는 식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관련 조코위 대통령은 산업 지도의 설계는 일본에 맡겼지만 실행계획은 한국이 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음
- (한국 역량)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지수의 인프라 부문에서 한국은 항구 서비스 효율성 분야에도 우위가 있으므로 Soft Power에서도 강점이 있음. 또한, 2018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해양, 인프라 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음
  - 국토부는 국제물류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신규 고급물류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종사인력을 재교육하기 위해 '해운항만 물류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하였음
  - 현지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은 판토스 로지스틱스, 대우 로지스틱스, 한인 도익스프레스, 짐모아 FCL, JSK쉬핑 등 다수가 존재함
- (참여주체) (한)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KOTR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소, 대우 로지스틱스 등 주요 물류기업, 기타 유관기업 및 학회 등
  - (인니) 산업부, 국가개발기획부, 해양조정부, 조선산업협회(IPERINDO), 유관기관 및 기업 등
- (협력 방안) 인프라 개발은 일본과 중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 해양물류 분야의 Soft Power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의 협력 방안 모색이 요구됨

- (G2G/G2B) 해양물류 분야 인적교류 활성화 및 해양물류인력 재교육 및 신규인력 양성 등을 위한 MOU 체결 등 기반 조성
- (B2B) 엔지니어링 및 물류시스템 분야(ITS 등) 전문 인력 파견 등 인력교류, 현지 협업팀 구성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및 사업 참여 등

## □ 항만인프라

- (현황 및 수요)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 상, 교통 인프라 열악, 취약한 항구 시설과 비효율적인 항만 운영 등의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조코위 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 해양강국 (Global Maritime Axis)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해양 고속도로(고속해로)와 항만개발 등 해양인프라 개발을 제안하여 기존 인프라 개발계획에 해양 부문을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또한 2019년도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대중교통 승객 증가 및 물류환경 개선을 위한 MRT·LRT 및 신규 공항·항만 운영을 육성하고자 함

- 중국과 일본은 일대일로 및 경제회담 등을 통해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한국은 2017년 및 2018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대(對) 인니 투자 규모 감소
- (한국 역량)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은 140개국 중에서 세계 6위, 인도네시아는 71위로서 한국은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인프라 수준 및 서비스 효율성 측면에 우위가 있으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인적 협력 강화 가능
- (참여주체) (한)산업부, 국토부, 해수부(항만투자협력과), KOTRA,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 기관, 경남기업, 우방건설, 두산중공업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 유관학회 등
  - (인니) 산업부, 국가개발기획부, 교통부, 인도네시아 국영항만사(PT. Penlido - I~IV) 및 WKA, ADHI 등 현지 주요기업
- (협력 방안) 인도네시아는 항만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는 외교채널을 통한 기반 조성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진출확대 혹은 경쟁국과 협업을 통한 공동진출 모색이 가능함

- (G2G) 고위급외교 채널의 적극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강화(인도네시아는 특정 국가에 의존적인 인프라 개발을 기피하는 경제적 균형전략을 택하고 있어 이를 한국이 활용 가능)
- (G2B)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는 중국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 방안 모색
- (G2B/B2B) 프로젝트 및 투자진출 확대, 자금력과 경험이 풍부한 경쟁국(일본 등)이 주도하는 사업에 가격경쟁력과 시공품질이 높은 한국기업이 지분투자자 및 수주를 통해 참여하는 협력방식 모색 등
- (B2B) 한국 기업의 역량강화, 말레이시아 기관의 업무 효과 상승을 통한 동반 성장

## □ 해양 자원

- (현황)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해양광물자원(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수출비중 23.3%)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수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2019년 주요 정책 중, 새우 생산량과 수출량 증가, 고부가가치의 해조류 수출 증가 등을 추진
  - 자카르타, 발리 등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코위 정부는 관광을 포함한 해양산업의 고도화를 대선공약으로서 중점 추진 중임
  - 중국은 일대일로 및 경제회담 공동개발을 통해 인도네시아 글로벌 해양거점 정책과 연계하고, 미국은 석유 정제사업 현대화에 보조금 지원(30만 달러)하는 등 주요 경쟁국은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한국 역량) 2018년 9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해양,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음
  - SDG 분석 결과 한국은 인프라와 산업화 지표 관련, 연구개발업(R&D)에 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위가 나타남에 따라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모색 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인니 산업부 산업혁신 연구협력
- (참여주체) (한)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KOTRA,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유관기관 및 기업, 학회 등
- (인니) 산업부, 국가개발기획부, 광물에너지자원부, 해양조정부, 유관기관 및 기업, 학회 등
- (협력 방안) 풍부한 인도네시아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공동 R&D, 사업모델 개발 등의 협력이 가능함

- (G2G) 해양산업 관련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기술교류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등 기반조성
- (B2G/B2B) 해양광물자원 및 수산자원의 활용과 개발을 위한 공동 R&D,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인도네시아의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등
- (B2B) 현지파트너 발굴을 통해 향후 진출 확대방안 모색 등

## □ 해양 물류

- (현황) 인도네시아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조선 산업 개발 로드맵을 발표, 신규 선박 건조 규모 증대, 특수선박(잠수함) 분야 육성, 선박 수리 및 유지 보수 분야 개발을 통해 자국의 선박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나 자국 콘텐츠 규제에 따라 진입장벽 존재
- (한국의 역량) 인도네시아 조선업계는 자국의 전체 수요를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며, 수입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 65~70% 내외로 높은 분야
  - 한편 한국은 전통적인 조선업 강국\*으로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국에 따른 위기가 있었으나 새로운 성장전기 모색이 가능
    - \* 세계 시장 선박 수주점유율 44%로 1위(2018년)
  -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경제회랑 등에 따른 인프라 확대로 향후 선박의 수요가 전망됨에 따라, 인프라 분야와 더불어 조선/선박 분야의 Two-track 협력을 통한 성장기회 발굴
    -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관련 조코위 대통령은 산업 지도의 설계는 일본에 맡겼지만 실행계획은 한국이 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음
- (참여주체) (한)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KOTRA,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선박 분야 주요기업 및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중소 조선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인니) 산업부, 교통부, 조선산업협회(IPERINDO), 현지주요기업 등
- (협력 방안) 조선/선박 분야의 현지 파트너 발굴을 통한 기술교류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콘텐츠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함

- (G2G) 조선/선박 분야 협력을 위한 중앙정부 및 주요부처 MOU를 통한 기반 조성
  - \* 인도네시아 선박(HS Code 89) 주 수입국은 2018년 기준(백만 달러) 일본(79), 중국(67), 싱가포르(65), 한국(40) 순으로서 한국의 시장 영향력 확대 시도 시, 현재 우위를 점한 일본 및 중국의 견제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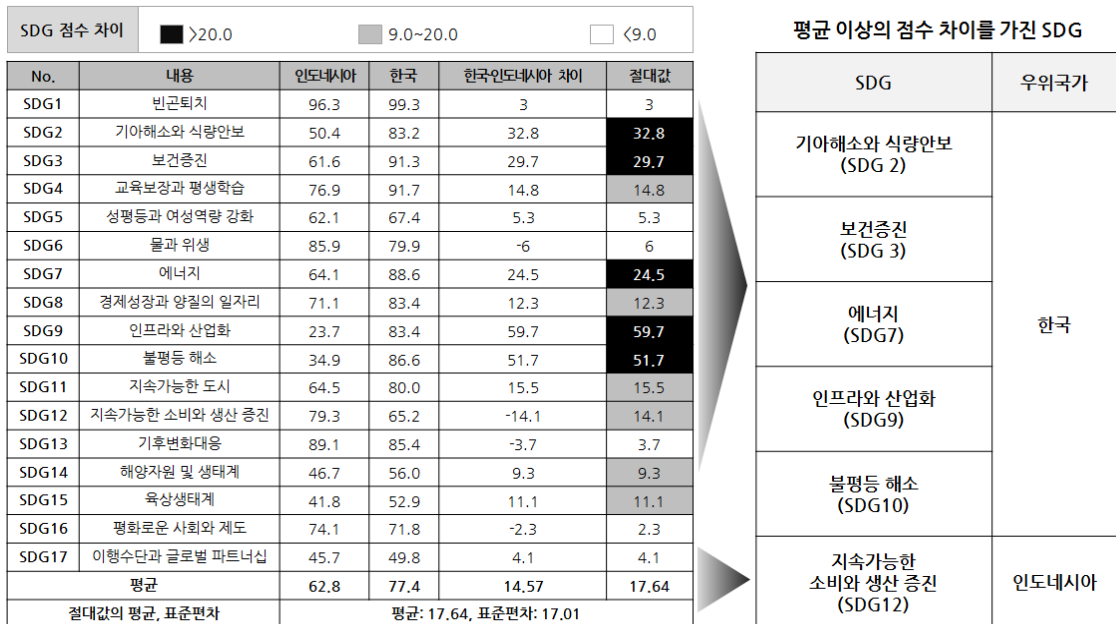
\* 이에 조선, 선박 기술 교류, 관련 전문 인력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양성, 프로젝트 협력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MOU를 통해 초기 정부·협단체 협력에서 기업 차원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협력으로 전환 또는 민관동시협력이 요구됨

- (G2B/B2B) 기술 협력 및 인적교류를 통한 인도네시아 조선/선박업 역량 전반의 강화, 비즈니스 파트너 행사 등을 통한 현지 파트너(납품, J/V, M&A, 투자 등) 발굴 → 단순 수출방식에서 나아가 인도네시아 콘텐츠 규제 (인도네시아는 2025년에 선박에 대한 자국산 콘텐츠 비중을 10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대응 및 국내기업 진출 확대 등

## 다. [B2G]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협력 강화

### □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의 인프라 협력 수요

- (정책 수요) 조코위 정부는 인프라를 모든 경제의 근간으로 간주하며, 2020~2024년 인프라 개발 규모를 약 4,120억 달러로 전망
  - 상기 예산의 40%는 정부 자금, 25%는 국영 기업, 그리고 나머지 35%는 민간 기업을 통해서 조달할 예정
- (기업 수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 기업이 각종 PPP 형태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기업에 있어서 PPP 참여는 B2G의 대표적 비즈니스 형태가 될 것임
- (SDG 관점) SDG 관점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보다 17.6점 앞서 있으며, 양국이 평균 이상의 점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목표는 상생 협력 분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협력 분야에는 '인프라와 산업화'가 가장 높은 격차로 한국이 절대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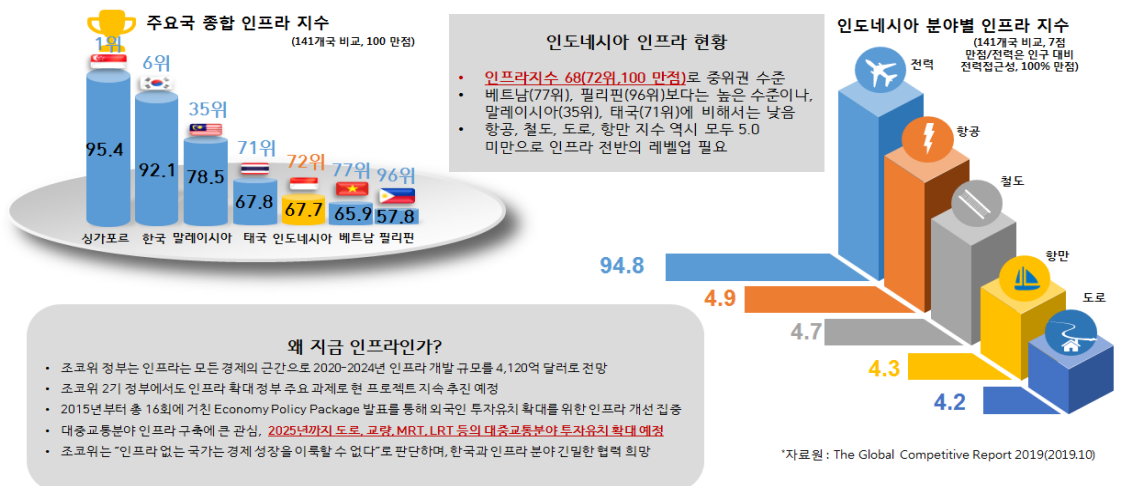
자료: 2018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2018년):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 (시장 현황) The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9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지수는 전체 141개국 중 72위
- 조코위 1기 정부의 인프라 집중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각 세부 인프라 지수가 2019년에도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각 분야별 시장 수요가 높은 상황임

〈The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9 인도네시아 인프라 지수〉

구분	지수(100 만점/전년대비 증감여부)	순위	1위 국가
교통 인프라(항만, 철도, 공항, 도로 등)	56.1(↑)	55	싱가포르
시설 인프라(전력, 수도, 수질)	79.4(↓)	89	아이슬란드
전체	67.7(↑)	72	싱가포르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9(2019년 자료가 최신)



□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진출 추진

- 분야의 특수성으로 한국전력 및 발전사, 수출입은행, 가스 공사 등 공공기관과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이 중요 (B2G)

**한국기업 성공사례 ①**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 사룰라(Sarulla) 지열발전소 프로젝트에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 2018년 5월 성공적으로 준공했음. 사룰라 지열발전소는 민자발전사업(IPP)으로 110MW급 지열발전 3기를 건설한 프로젝트로 단일로는 세계 최대 및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임. 현대건설은 2019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푸상안 수력발전소 등 2개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기업 성공사례 ②**

현대 건설은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업체 후타마카라(PT Hutama Karya)와 '주요 국책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19년 10월에 체결. 후타마카라는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기업으로 인프라(도로 중심) 공사에 독보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부문의 공기업 대표 주회사로 출범을 앞두고 있음.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20여개 유료 도로를 운영하는 등 인프라 개발·운영 사업에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 한국기업 성공사례 ③

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4조5000억 원 규모 인도네시아 발릭파판(Balikpapan) 정유공장 증설 사업 수주. SK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4조500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증설 사업을 수주. 2019년 4월 11일 업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빠르따미나(PT Pertamina) 전날 기자회견에서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계약 규모는 총 40억 달러(약 4조 5,100억 원)로 알려졌다

-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공사 주축으로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을 위한 협력
  - \* 국토교통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
  - \*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2019년 11월) 체결
- 우리나라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를 통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및 활용
  -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시장에서 프로젝트 수주성과확산위한 정책내용(2018년 11월)
- 정부차원의 대중소 동반진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 진출활성화, 인력·금융·정보제공 등 역량강화 등을 활용한 기업지원

### 한국기업 성공사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도시고속철도(MRT)의 운영사 MRT 자카르타와 한국의 서울교통공사(서울 메트로)가 15일, 도시 철도의 운영정비에 관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협력 기간은 2년이며, 이를 통해 운용통제 센터의 개발과 운영, 차량과 차량 기지의 정비 능력 제고, 빅데이터의 자동 분석 시스템 구축,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의 운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

MRT 자카르타의 윌리엄 사장은 “운영 노선이 많은 서울 메트로는 오랜 역사와 경험이 있으며, 특히 차체에 센서를 장착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양국 엔지니어의 상호 교류 작업도 실시할 예정”임을 언급

- KOTRA-KIND\* 협력 플랫폼을 활용, PPP 수주 확대
  - \*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KOTRA 간 MOU 체결(2018년 8월),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자카르타 지사 개소식(2019년 6월)
  - \* 우리 기업의 해외 PPP 시장 진출 지원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주요 기능은 사업발굴·개발금융지원 등 PPP 사업 전 단계를 전문적 지원

### PPP 협력 지원 관련 기대 업무협력 범위

- 국별 PPP시장 진출 관련 정보 수집 및 발간
- 유망 프로젝트 공동개발
- 발굴 프로젝트 정보공유
- KIND의 잠재적 투자대상 검토 시 KOTRA의 현지조사 및 수행기업공동지원
- 해외정부 및 발주처 교섭 등 프로젝트 수주 공동지원

## 기관 간 업무협력 R&R



## 라. [국민] 동반자 관계 형성과 발전

### □ 상생을 위한 인력·문화 교류 확대방안

- (인력교류)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교류를 지속하며, 지식 공유, 직업 훈련, 한국어 전파를 통한 친(親) 한파 육성 목적의 교환학생, 노동인력, 전문인력, 스타트업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SDG 관점'에서 상호 우위 영역별로 확대 추진
- (문화교류) 정부, 기업,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한국문화원 외 K-Beauty, K-Pop 등 한류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라이드헤일링 업체, 이월렛 업체와 협업하여 한류를 활용한 유·무형 콘텐츠의 홍보와 판매를 활성화

### 〈한-인니 인력·문화 교류 협력사례〉

####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인니 인력 교류

- 양국 간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MOU 체결
  - 2004년 7월 13일 양국의 인적자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한국 고용노동부와 인도네시아 인력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후 4차 갱신
  - 2015부터 5차 갱신을 위한 협의 진행 중
- EPS를 통한 인력도입 현황 및 계획
  - (현황) 2004년부터 7만6천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 성실히 근무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
  - \* 인도네시아는 16개 송출국 도입인원 650,778명 중 약 11.7%를 차지하며 베트남과 태국에 이어 제3의 도입국(2004년 이후 총괄 시)

#### 인도네시아 연도별 EPS 인력 도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누계	2004~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6,077	38,220	6,253	9,387	7,354	5,482	5,664	3,717
(비율)	11.7	11.9	11.7	16.4	14.3	10.7	9.5	7.3

자료: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가개황(2018년 자료가 최신)

- (계획) 매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경기전망, 고용사정, 업종별 인력부족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제조업 국가별 도입쿼터는 사업주 선호도, 불법체류율 등 주요지표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성실근무 및 송출 시스템 효율화 등을 전제로 협력 확대 전망

자료: 주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외교부(2018년)

### 한-인니 문화 상호 교류 행사

- 양국 간 문화교류가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황
-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한·인니 양국 간 문화교류를 위해 매년 9월 또는 10월을 '한·인니 문화의 달'로 지정
-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TV와 온라인 등에서 K-POP과 한국드라마를 지속 방영 중
- 2011년 7월 자카르타에 한국문화원을 개설하여 문화 교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내 세종학당에 한국어 강좌를 마련하여 현지인들에게 우리말과 글 보급
  - ※ 2018-1학기 460명(15주, 세종한국어 1~8, 초·중급)

자료: 주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대한민국 외교부(2018년)

### □ OVOP, CSR 활성화

- (OVOP) KOTRA와 인니 중소기업부와 제2차 OVOP(2019~2021년)를 확대 추진
  - 제1차 사업수행 성과\*를 바탕으로 KOTRA의 핵심 역량인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 조합 발굴 및 지원 확대

- 발리 커피(Mertha Buanah): KEB하나은행 지원 중인 제품으로 타 공급선을 추가 확보로 자생기반 확충
- 족자카르타 코코넛설탕(Jatirogo): CJ와 신제품 개발 시 기초 원료로 활용, 새로운 동반성장 방식의 모멘텀 확보

- 각 조합들 상호간의 연계지원\*을 적극 강화 추진

\* 동업종 선진조합이 후발조합을 지원하여 동반 성장 기반 확보 추진(품질관리 기법 및 디자인 역량)

- (CSR)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코로나19 방역물품 기부 지원

### 〈우리 중소·중견기업 사회적 가치 제고 사례〉

#### 〈주요 사회적 가치 제고 이행 노력〉

##### [OVOP] 활동 강화

2018년 말로 마감되는 4개 한국 기업의 5개 조합에 대한 제1차 3개년 지원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제 2차 3개년 지원 계획 수립,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물품 지원 중심

\* 현재 한국 후원 기업 8개사 접촉 및 6개사 지원 확정

\*\* 대상 조합 선정 중이며 6개 조합 확정 및 10개사 지원 목표

- (1차 지원 주요 성과): ① 발리 커피(Mertha Buanah) 타 공급선을 확보 자생기반 확충 ② 족자 코코넛설탕(Jatirogo)의 경우 CJ와 신제품 개발 기초 원료로 활용, 새로운 동반성장의 모멘텀 확보

##### [CSR협업 N/W 확보]

인도네시아 대학 및 사회부 산하 FORUM CSR과 협력 추진으로 성과의 저변 확산 및 홍보 강화, 한국 기업 CSR로 장관상 수상 지원 등

#### 〈주요 글로벌 CSR 수행내역〉

연번	수행사업(일자)	참가기업·기관	주요 내용
1	인니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개선(9월 17일)	(주)엔에스데블	원격교육, 평가 시스템의 대 인니 교육기관 제공 사업
2	인니 한식제조 기술학교(11월 15일~16일)	리바치 인터내셔널	인니 취약계층에 대한 한식조리기술 교육으로 자립 기반 확충 지원
3	인니 경전철 최신기술 교육학교 (12월 4일~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KRTC 등	철도공단 및 한국철도 정책/현황, PPP사업 개요 경전철 시스템 개요 교육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2020년) / 주: KOTRA 지원사업



### 3. 향후 대(對) 인도네시아 K패키지 실행체계(안)

#### 가. 한(韓) SDG 우위-인니 수요 분야 집중 협력 체계 총괄 센터 구축

##### □ K패키지 우선 대상국가

- '수출 시장 매력도', '투자유치 매력도', '투자진출 매력도' 3가지의 지표를 기반으로 국가별로 점수화 및 순위를 측정해 상위 20개국이 도출됐고, 인도네시아는 상위 11위로 한국과 경험가능성이 높은 국가임

#### 〈K패키지 대상국가 우선순위 선정 결과〉

평가점수 상위 20개국						지표별 가중치			
순위	국가	수출 매력도 평가점수	투자유치 평가점수	투자진출 평가점수	평가점수 합계	차원	상위기준	지표	가중치
1	미국	61.4	65.2	56.5	183.1	수출 시장 매력도 <sup>1)</sup>	현재의 시장성 (51%)	인구	6%
2	중국	72.3	23.3	36.4	132			GDP	12%
3	싱가포르	23.4	61.5	21.2	106.1			수입시장 규모	16%
4	홍콩	30.5	35.9	20.2	86.6			한국 수출규모	17%
5	베트남	50.4	7.1	26.9	84.4		향후의 가능성 (49%)	GDP 성장률	17%
6	아일랜드	35.5	21.5	15.9	72.9			수입시장 성장률	32%
7	네덜란드	22.3	37.3	12.5	72.1				
8	필리핀	47.9	9.6	13.6	71.1	투자 유치 매력도 <sup>2)</sup>	현재의 시장성 (81%)	대 한국 투자 규모	55%
9	일본	25.9	31.4	10.6	67.9			FDI 투자액	26%
10	인도	43.1	4.8	19.2	67.1		향후의 가능성 (19%)	대 한국 투자 규모 증가율	10%
11	인도네시아	32.1	13.2	19.8	65.1			FDI 투자액 증가율	9%
12	캄보디아	41.7	5.4	17.8	64.9	투자 진출 매력도 <sup>3)</sup>	현재의 시장성 (51%)	FDI 유입액	15%
13	영국	27.7	18	15.7	61.4			인프라개발 민간참여 규모	11%
14	모로코	26.8	5.7	24.4	56.9			한국 투자진출 규모	25%
15	파나마	28.6	3.5	23.3	55.4		향후의 가능성 (49%)	FDI 유입액 증가율	13%
16	독일	31.4	14.5	9.5	55.4			인프라개발 민간참여 규모 증가율	15%
17	요르단	23.6	3.9	27.8	55.3			한국 투자진출 규모 증가율	21%
18	멕시코	31.9	3.1	19.6	54.6				
29	라오스	29.1	3.7	21	53.8				
20	스위스	24.5	10.1	18.8	53.4				

주: ①인구, GDP, 수입시장 규모, 한국수출규모를 종합하여 산출, ②대한국 투자규모, FDI 투자액을 종합하여 산출, ③FDI 유입액, 인프라개발 민간 참여 규모, 한국 투자진출 규모 종합 산출

자료: KOTRA, Caleb(2019년 6월)

## □ 협력 필요 SDG 연관 산업

○ 한국 우위, 인도네시아 열위 산업이 협력 가능성 높음

국가	상대적 열위 SDG	해당 SDG 지표	연관 협력 산업
인도네시아 <sup>1)</sup>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아 종식,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 달성</li> <li>•중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유전적 다양성 유지</li> <li>•농촌지역 사회 기반시설, 농업 연구와 지도사업 및 기술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료품 제조업, 보건업</li> <li>•농업</li> <li>•종합건설업, 교육 서비스업</li> </ul>
	보건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 방지 및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축</li> <li>•교통사고 사망률(10만명당)</li> <li>•필수 의약품과 백신 연구 개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업</li> <li>•바이오헬스</li> <li>•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생에너지 비율 증대</li> <li>•에너지 효율성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신산업</li> <li>•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li> </ul>
	인프라와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DP 중 R&amp;D 개발 지출 증대</li> <li>•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 접근 장려</li> <li>•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업</li> <li>•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li> <li>•정보서비스업, ICT 융합</li> </ul>
	불평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 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li> <li>•국제 및 외국기관</li> </ul>
한국 <sup>2)</sup>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자원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li> <li>•유해 폐기물 및 기타 화학물질에 관한 국제 환경 조약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li> <li>•환경 정화 및 복원업</li> </ul>

자료: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2018):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KOTRA, Caleb(2019년 6월)

## □ 인도네시아 수요산업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책적으로 보건의료, 건설, 산업기계, 자동차 등의 분야에 수요가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는 자동차, 소비재, 교육 등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 수요 산업〉

구분	산업	주요내용
정부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적 요인(2017년 의료산업 예산은 104조9000억 루피아(약 72억71만 달러)로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8년 의료산업 예산은 111조 루피아(약 76억1943만 달러)로 책정)에 따른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수요증가</li> </ul>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 조코위 정부가 출범한 이래 건설이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은 지속적인 육성 대상이며, 정부가 인프라에 할당한 정부 지출 꾸준히 증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인식 제고로 재료의 효율화, 저탄소 배출 등을 중점으로 두고있음</li> </ul>
	산업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산업, 건설 제조업 비율이 높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제품으로 향후에도 수입산 기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는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 차량 계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연간 판매되는 신차의 20%(약 40만대) 이상이 전기차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기업 투자유치 희망, 인프라 프로젝트(2019년 인프라 구축에 415조 루피아를 배정, 2,007km 도로 구축, 415.2km 철도, 2만 7067km 교량 건설 등) 및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자동차 수요는 성장할 전망</li> </ul>
기업/소비자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산층 증가(2011년- 2016년 가계당 평균 가처분 소득 24% 증가), 인터넷 사용률 증가로 인한 온라인 쇼핑 확대, 도시화로 인한 아파트 거주 증가에 따른 다기능 소비재 선호, 현대적인 소매유통점 이용 증가세(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Artistry가 10.5%로 1위, Nu Skin이 10.3%로 2위, Lancome이 6.9%로 3위, 그리고 한국 제품인 Sulwasoo가 6.6%로 4위)</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콘텐츠 이해 목적,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동경 등 다양한 이유로 수요 증가세</li> </ul>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언론사 보도자료

## □ 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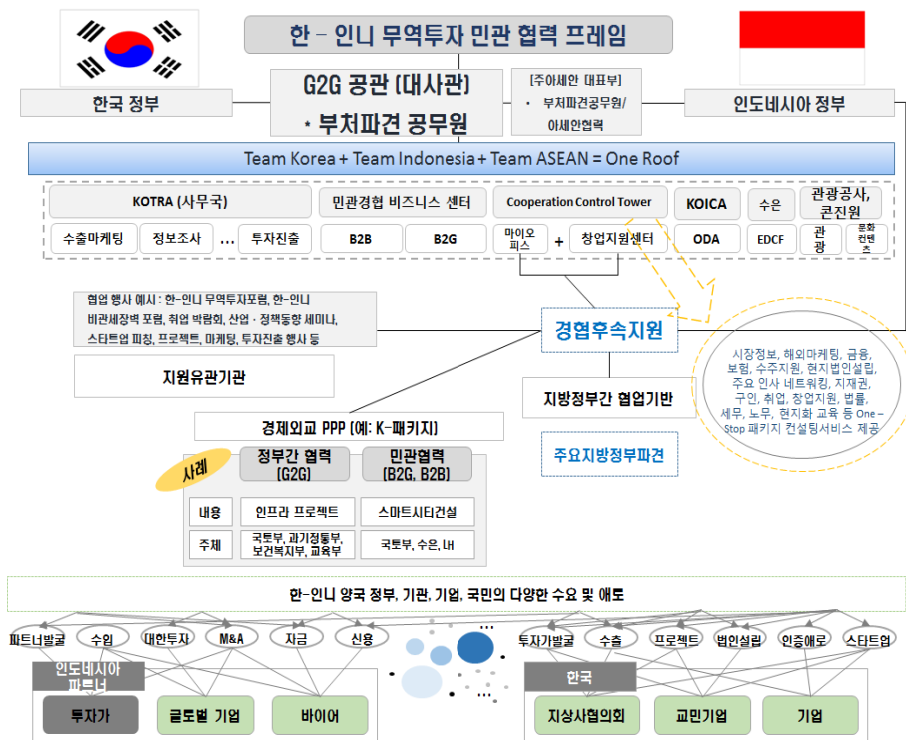
-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체계 가동



한국	인도네시아
MOEF: 기획재정부 MOTIE: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OWH: 보건복지부 KPBMA: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DICA: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MOLIT: 국토교통부 CAK: 대한건설협회 ICAK: 해외건설협회 KOAMI: 한국기계산업진흥회 Technopark: 테크노파크 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TECH: 자동차부품연구원 IKFA: 한국프랜차이즈협회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LSA: 한국온라인쇼핑협회 MOE: 교육부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MA: 한국능률협회 MS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ITS Korea: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IND: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EPCO: 한국전력공사 MAFRA: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EXIM: 한국수출입은행 FSS: 금융감독원 KORFIN: 한국핀테크협회 NAACC: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BAPPENAS: State Ministry for Development Planning /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BKPM: State Ministry for Investment /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Kemendag: Ministry of Trade ITPC: Indonesian Trade Promotion Center KEMKES: Ministry of Health GP Farmasi: Association of Indonesian Pharmaceutical Companies ASPAKI: Indonesian Medical Devices Manufacturers Association PU: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 ASPEKINDO: Indonesian Construction Entrepreneurs Association AKI: Indonesian Contractors Association Kemenperin: Ministry of Industry GAMMA: Association of the Indonesian Metal and Machinery industry association LIPI: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GAIKINDO: Association of Indonesian Motor Vehicle Industry GIAMM: Association of Indonesian Car and Motorcycle Equipment Industry AFI: Indonesian Franchise Association LSPRO: Product Certification Agency BPJPH: Halal Product Guarantee Agency idEA: Indonesia E-commerce Association Kemendikbud: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Ristekdikti: Ministry of Research,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OMINFO: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KEMENHUB: Ministry of Transport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PLN: State Electricity Company PERTAMINA: State Oil and Gas Mining Company Kementan: Ministry of Agriculture BPOM: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PT EXIM BANK Indonesia: Indonesian Import Export Bank OJ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AFTECH: Indonesian Fintech Association

## 나. 현지 KOTRA에 무역·투자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단기적으로는 KOTRA가 팀코리아(Team Korea) 체계 하에서 대사관, 주아세안대표부, 유관기관과 상시 협업
- 신남방 비즈니스데스크 운영을 통한 현지 진출 기관 및 기업 네트워크 구축, 해당 기능 강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 지속 수행
- 중장기적으로는 풍부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한 KOTRA가 무역·투자 중심의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여 다원화됐던 대인니, 대한 경제진출창구를 일원화하고 협력 비용·시간 절감 등 효율성 증대
- 현지 KOTRA가 민관수요 맞춤형 무역·투자 조사 및 컨설팅 총괄 수행으로 인니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JETRO 사례와 유사하게 전문 조사 기능 확대



## 다.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해당 K패키지는 KOTRA가 대(對) 정부 제안 차원에서 작성된 자료로, 협업기관은 기관 성격 반영해 임의 선정됐으며, 향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및 유관기관의 구체적 수요를 추가 반영해 협업기관 최종 선정 및 정부차원 K패키지를 마련할 것
  -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향후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시 K패키지 내용을 공동성명 형태 발표
  - \* 양국 정부부처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MOU 체결 병행

## 〈한-인니 상생협력 요약〉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박승석	과장	자카르타무역관	+62 21 574 1522	ss.park@kotra.or.kr

KOTRA자료 21-068

## 2021 국별 진출전략 인도네시아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1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781-6(93320)  
979-11-6490-691-8(95320)(PDF)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